

발열성 핵-맨틀 분리 자니베코프 회전 (ECDO)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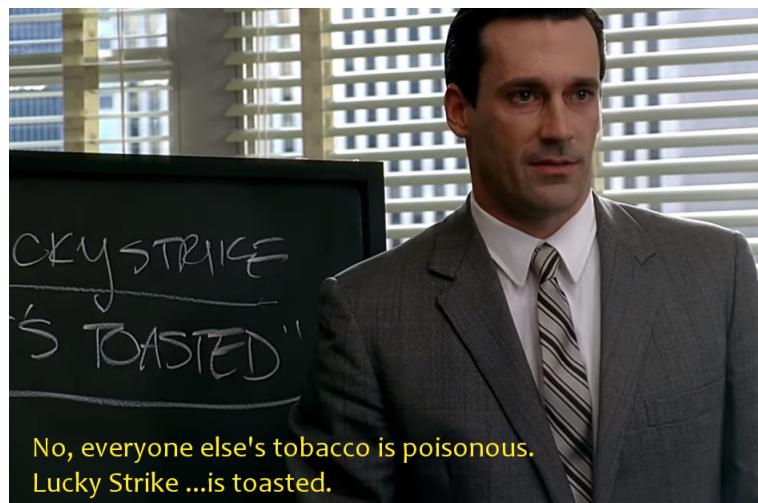
2024년 5월 12일 The Ethical Skeptic이 작성함

다음 자료는 저자가 수십 년간 헌신적인 전문 및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세 가지 새로운 가설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가설들은 The Ethical Skeptic의 ECDO Theory의 기초를 이루며, 이 글에서 요약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엑소써믹 핵-맨틀 분리의 Indigo Point를 훨씬 지난 상태이며, 이 증발 현상으로 인한 열을 인간 활동에 의한 것으로만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 회전에 대한 후속 Tau Point Dzhanibekov 진동의 접근을 감지할 긴급한 필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동안, 맨틀과 지각으로 구성된 지구의 외부 회전체(ORB)가 H-layer에서 핵과 분리됩니다. 이 분리는 이 논문에서 논의된 매개된 Dzhanibekov 회전 가설의 핵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그러한 회전과 그로 인한 침수가 불가능하다고 배웠으며, 이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Dzhanibekov 회전을 자기 극 이동이나 반전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오래된 교리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 전, 경험이 부족한 신입 컨설턴트로서, 저는 맨해튼 5번가에 위치한 남성 의류 소매업체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이 브랜드는 거의 한 세기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Mad Men 시리즈의 등장인물이 점심시간 쇼핑이나 중요한 이사회 회의 전에 열룩진 셔츠를 대체하기 위한 급습을 위해 방문했을 법한 그런 유형의 가게였습니다.



소매업체는 수십 년간의 경직된 관료주의와 5번가의 더 민첩한 신생 경쟁자들로 인해 브랜드 침식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파란색과 흰색 남성 비즈니스 셔츠는 이 소매업 부문의 주력 제품 또는 손실 보상 제품(세일 중일 때)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셔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고객을 매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지만, 소매업체는 이 부문에서 입지를 잃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요 셔츠의 판매가 감소하고 있었고, 고객들이 돈을 다른 곳에 쓰기 시작하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Hugo Boss 정장을 차려입고, 저는 여러 날에 걸쳐 남성 의류 매장에서 몇 시간씩 무심한 척하며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고객들이 쇼핑에 할애한 짧은 시간 안에 소매 길이, 칼라 사이즈, 단추 세부 사항의 올바른 조합을 찾는 것에 좌절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보통 고객들은 5분에서 8분 정도의 시간만을 소비하며 구매를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빨리 찾지 못하면 아무것도 사지 않고 떠났으며,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남성 드레스 셔츠 부서에서 야간 회복 프로세스를 설계했습니다. 매일 밤 10시 30분, 제가 특별히 디자인한 카트를 사용하여(오늘날까지도 소매업 공급 카탈로그에 제공되는 디자인 중 하나입니다) 모든 셔츠를 매장 바닥에서 제거하고 지하 재고실로 가져갔습니다—이는 바로 이 회복 문제로 인해 셔츠가 고객의 시야에서 숨겨지는 문제도 해결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곳에서 직원은 카트의 각 10-셔츠 빈을 사이즈, 스타일, 색상에 따라 정리하고, 완벽하게 정렬하여 재고를 보충했습니다. 찢어진 봉투도 없고, 뒤죽박죽으로 접힌 셔츠도 없으며, 잘못된 위치나 누락된 제품 태그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 8시경, 셔츠는 다음 판매일을 위해 다시 매장 바닥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든 진열대가 완벽하게 채워졌습니다.

희소성은 가격을 올릴 수 있지만, 풍부함은 관심을 끕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고객이 필요한 셔츠를 몇 초 안에 찾고, 구매하고, 8분 이내에 떠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몇 가지 주요 이점을 실현했습니다: 고임금 판매 직원들이 재고 정리에 시간을 보내는 대신 고객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 고객들은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필요 사항을 생각할 여유가 생겼으며, 매장은 향상된 진열과 숨겨진 재고의 감소로 인해 과잉 재고 세일의 필요성이 줄었습니다.

일 년 후,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던 소매업체의 부사장은 나에게 감사의 전화를 걸어왔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매출을 세 배로 늘리고 주요 시간대의 매장 방문객 수를 두 배로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서 수익성도 다섯 배로 증가시켰다. 그는 이 이니셔티브로 회사의 연간 상을 수상했다. 이 경험은 브랜드 관리에서 비용 대비 가치의 중요성, 또는 나무 사이로 서 있는 나무를 보면서 숲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나무 위의 거주자들과 전술적 고착

이 기사는 분명히 과학을 가장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이라고 왜곡할 것이다. 이것은 특히 고고학과 이집트학에서 과학의 참담한 상태를 강조할 뿐이다. 오늘날의 과학은 내가 ‘선형(점진적) 귀납법’이라 묘사하는 관행에 따라 운영된다. [1] 우리는 먼저 답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설이라고 잘못 명명한 뒤, 우리의 선입견을 뒷받침하거나 p -값을 산출할 수 있는 관찰을 모아놓고는, 유용한 바보들이 실질적인 증거 없이 모든 경쟁 이론이나 당사자를 사회적으로 실추시키도록 강제한다. 그러면서도 같은 사회적 메커니즘 내에서 반대의 존재를 비난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병적인 구시대적 연합 엘리트 사고의 예를 들 수 있다.

이는 군사 용어로 ‘전술적 고착’이라 불리는 심각한 형태의 확증 편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과정은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편향이 아닌 기관에 의한 것), 이전 기사에서 언급한 바 있는 ‘넬소니안 무지의 덫’으로 이어질 수 있다.

Linear Incremental Induction (Science as a set of answers – Tactical Fixation)



그러나 과학을 불변의 진리, 귀납적 점진적 검증 및 뿌리 깊은 연합체의 집합체가 아닌 진화 과정으로 보는, 훨씬 더 드물지만 강력한 발견 방법이 존재한다. 나는 이 접근 방식을 탐정 업무나 군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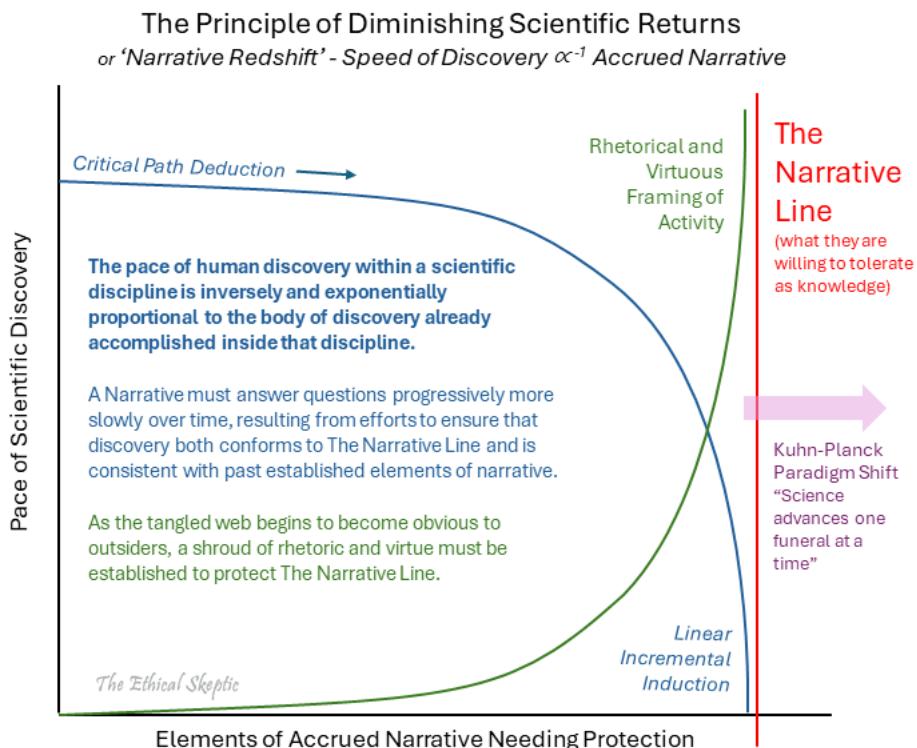
맥락에서 알려진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에 비유하여 연역적 비판 경로 과학이라고 부른다. 이 방법은 약한 귀납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다양한 개념과 구성을 반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살아 숨 쉬고 때로는 위협적인 이론으로 발전한다 – 확립된 교리와는 반대된다. 이 버전의 과학은 믿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과학 애호가'의 무리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Critical Path Deduction (Science as an evolutionary process – Working the Problem)



더욱이, 동료 검토는 '문제 해결 작업'의 본질을 아우르지 못하며, 아이디어를 전술적이거나 사소한 문제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익숙하지 않거나 혐오스럽다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 결과 자신의 결론을 매우 제한적인 '가능성 있음' 추론으로 제한하거나, 연구의 결론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목을 붙이거나, 결론을 난해한 언어로 표현하거나, 과도한 발견적 장식으로 연구를 꾸밈으로써 동료 검토를 이해 상충의 전형으로 만들어 버린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취약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2] [3]

이 모든 결과로 인해 내러티브 과학이 실제 과학적 방법보다 우선시되며, 나는 이를 '과학적 수익 체감의 원리'라고 부르는 철학적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종종 쿠언-플랑크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과학적 발전을 이끌어가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활동은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해결책 작업'을 하는 과정으로 변질되어, 과학의 근본 원칙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실수는 대개 외부인들만이 인지할 수 있다.

정통성은 혁신과 상극이다; 그들은 단지 혁신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지배하는 방법만 알고 있을 뿐이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음부터 깊은 상황 인식과 혁신적이고 연역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복잡하고 정확한 수학이나 발견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은 논리적 계산이 작동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이다. 그 결과, 동료 검토는 기존 클럽 교리를 강화하고, 대부분 이미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치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단순히 체계적으로 적용된 의견에 의해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진화의 과학은 비판 경로 연역을 통해 개발된 반면, Covid-19와 기후 과학은 선형 귀납의 엄청난 주장에 의해 전파되었다. 후자의 과학은 최근 우리를 끔찍하게 실망시켰다.

내 경력 동안, 나는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연구 및 실험실 환경에서 리더십 역할로 자주 소환되었다. 과학 자금 확보를 위한 주제 집중에 대한 기존의 초점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 지향적 전략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성경의 홍수나 고대 외계인 가설을 암시할 수 있는 연구를 고고학자들이 개발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과학 자체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종교는 무엇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가치 없다고 금지되느냐에 의해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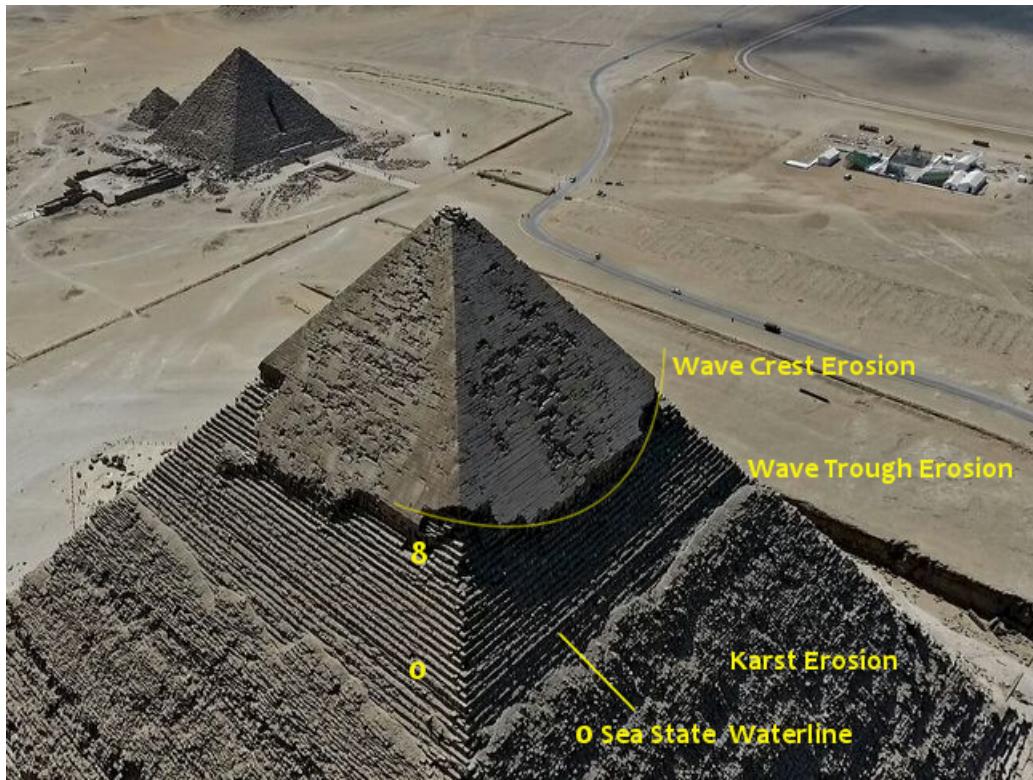
내가 앞서 설명한 초기 경력 소매업체 시나리오의 예에서, 내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지 전술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 목적은 기존 이론이 얼마나 옳은지를 보여주는 더 많은 귀납적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기존 이론은 이미 처참하게 실패했으며, 참여자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나는 나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넓히고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좁게 고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그림—숲을 평가하는 임무를 맡았다.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반증을 찾으라

불가능한 것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진실일 것이다.

~ 셜록 홈즈, "네 개의 서명" by 아서 코난 도일 경

이 기사에서 독자들은 위에서 설명한 비판 경로 연역적 과정에서 도출된 가설을 접하게 될 것이다. 연역적 과정은 선형 귀납적 '점 연결' 접근법이 취약할 수 있는 아포페니아에 영향받지 않는다. 연역은 선택된 하나를 증진하는 대신 실현 가능한 설명의 범위를 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가설은 모든 다른 가능성의 반증된 후에만 고려된 마지막 아이디어를 나타낸다 (이미지 1 참조). 이것은 모든 다른 아이디어가 실패한 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대안이다.



이미지 1 – 수위 침식 '죽은 몸' 반증 사건 – 지구의 바다는 과거에 이동했고, 이는 상당한 기간(10 – 50년)에 걸쳐 발생했다. 투라 석회암 외장재를 카보닉산으로 용해시키기에 충분한 기간이다. 만약 가설이 이 특정 카프레 침식 수위 특징을 결정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과학적 가설이 아니다.

나는 이 대안을 싫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이 가설의 핵심은 철학에서 '무기한 타이밍을 통한 반증 불가능한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래의 Tau 지점 참조). 나는 그런 개념을 싫어한다 – 진정한 가설의 요소 중 하나로 맥락과 통제된 테스트 가능 예측을 선호한다. 사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아이디어에 격렬히 반대했다. 나와 많은 동료들처럼 나는 노아의 홍수 이론을 듣는 것에 지쳤고, 이에 대한 회의감(회의주의가 아님)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틀렸다 – 이전에 선호했던 모든 개념이나 다른 사람들이 주장했던 모든 대안을 반증한 후에야 비로소 이 가설의 논증 구조('최종 답변'이 아님)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4] 이후로 이 가설은 논증 구조로 존재하며, 처음부터 100% 옳을 수는 없다. 이는 과학의 집합적 의식에서 완강하게 금지된 생각들의 작업적이고 진화하는 집합이다.

대다수의 고고학자들은 광범위한 항해 전문 지식이 부족하며, 재료 과학 연구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다. 두 분야 모두에서 깊은 경험을 가진 나로서는 이미지 1에서 나타나는 것의 중요성이 쉽게 이해된다. 더욱이, 기존 가설이 이미지 1에 제시된 연역적 증거를 다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과학적 가설이 아니라 정치적 기술일 뿐이다.

게다가 이 가설에는 이후의 섹션에서 설명될 여러 예측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전 기사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되었다. [5] 처음에는 이 이론이 살인 사건을 추론하는 것만큼이나 가능성성이 낮다고 여겼다. 그러나 카프레 피라미드의 외부를 조사한 후 내 관점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그곳에서 내가 발견한 증거는 마치 죽은 시신을 발견한 것처럼 설득력이 있었으며, 지금 이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경로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처음에는 명백히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 가설은 이 주제에 대해 내가 접한 가장 강력한 '논증 구조'를 제시하며, 특히 쿠푸 피라미드 내의 네 개의 '공기 통로'의 '기능'에 대한 설명에서 그러하다. 이 구조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수정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학이 권위와 기존 타당성에 의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오컴의 면도날을 넘어섰으며, 이제는 다원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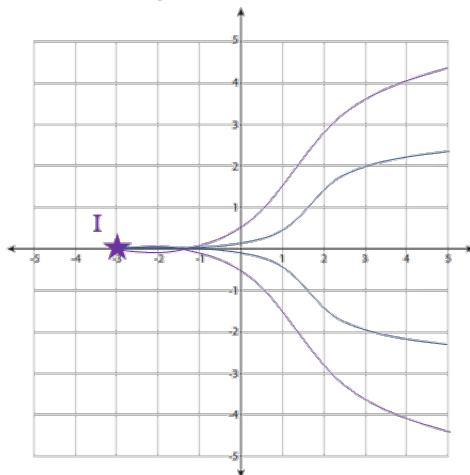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렸다고 소리쳐도 소용없다. 만약 파티 직후 거실에서 죽은 시신을 발견한다면, 아무리 많은 전문가 참석자들이 파티가 잘 진행되었다고 증언해도 그 시신이 다른 결론을 증명할 것이다. 카프레의 침식 흔적은 ‘죽은 시신’을 의미한다. 카프레의 해양 침수는 기존의 이론을 반증하고 필수적인 연역적 비판 경로 구성을 도입하며, 모든 사람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

추가적인 연역적 증거와 이 가설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우리 기사 [Hidden in Plain Sight](#)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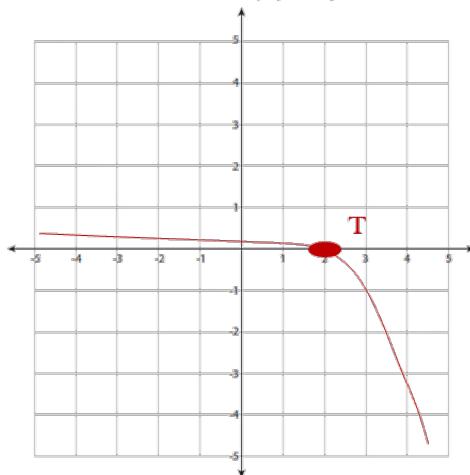
인디고와 타우 사이의 열기

인디고 지점과 타우 지점은 내가 전략, 캠페인, 문제 또는 기만을 분석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전환점과 분기점이다. 인디고 지점은 계획이 조용히 실행되어 잠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설정되며, 미리 결정된 타우 공격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기능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인디고 지점은 초기의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결과를 초래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레이 브래드버리의 나비 효과 개념과 유사하다. 반대로 타우 지점은 결과의 문제가 명확해지고 사건의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직접적인 개입이 너무 늦은 시점을 의미하는 말콤 글래드웰의 전환점 개념과 비슷하다.

Point Indigo – Inflection Point



Point Tau – Tipping Point



인디고 지점과 타우 지점 사이에서 근본적인 과정은 종종 숨겨지며, 그 요소들은 정상적이거나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다른 요인에 잘못 기인할 수 있다. 타우 지점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폭발한다.

따라서 이해를 돋기 위해 여기에서 설명된 가설을 인디고 지점에서 시작된 은밀한 기원—행동이 미묘하게 시작되고 심지어 오해되거나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지점—과 사건의 전체 세트가 정점을 이루는 필연적인 타우 공격 지점, 이 두 가지로 설명하기로 했다.

고대 문명들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이해한 방식으로 유물, 상징적 예술, 돌 원형 구조물, 고지대 기념물 등을 통해 전달하려 했던 사건들의 정점.

인디고 지점 - 발열성 핵-맨틀 분리 - 타우 지점 잔니베크프 LLVP 진동 (ECDO)

인디고 지점 (구조와 비판 경로) - 발열성 핵-맨틀 분리 및 열 전달 전환점

인디고 지점 세트라고 부르는 일련의 사건은 현재 우리의 지리적 북극(Np)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 자기 모멘트와 관련 핵-맨틀 자기 결합의 약화로 시작된다(우리가 ‘우선순위’라고 부르는 것). 그 후, 핵에서 지구의 점탄성 맨틀 내의 대규모 저속 전단 속도 영역(LLVP) 네트워크로 발열성 열이 전이되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남아프리카 돌출부’이다. 이 활동은 2023년에 우리가 모두 목격했듯이 꾸준하고 때로는 극적인 해양 온난화를 촉진하고, 북반구 툰드라의 온난화를 일으키며, 그 결과 강제적인 메탄 방출로 인해 기후 모델 예측을 초과하는 메탄 ppm이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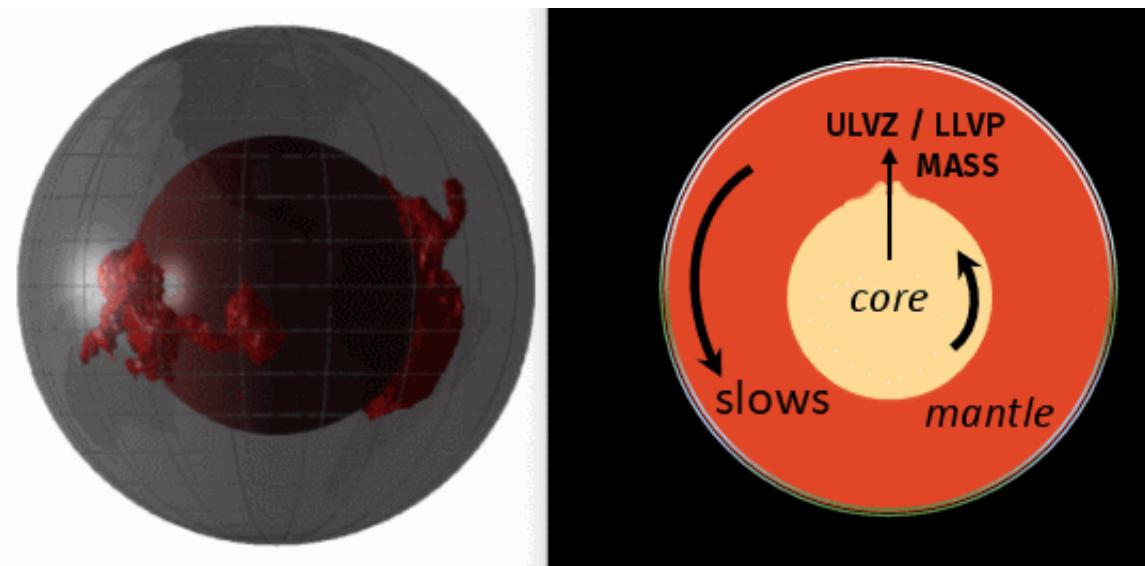


Exhibit A – 핵에서 전달된 열은 남아프리카 대륙(SAC-LLVP)과 태평양 아래의 붉은색 대규모 저속 전단 속도 영역을 피하고 맨틀로 유입된다(Exhibits E 및 E2 참조). [6] 그 결과, 이 거대한 구조물은 주변의 핵 공급 맨틀에 비해 밀도가 낮아진다.

- A. 핵-맨틀 자기 결합(지구의 지자기 모멘트)과 북극(Np) 우선순위의 약화.
- B. 대규모 저속 전단 속도 영역(LLVP – Exhibit E 참조)의 축을 제외한 지구 맨틀로 발열성 운동 에너지(열) 공급(Exhibit E2 참조) – 주변 핵 공급 맨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로 변함.
- C. 극적인 해양 표층 온도(SST) 및 북반구 툰드라 온난화와 함께 강제적인 이산화탄소 및 메탄 방출 초래.

이 인디고 지점 사건의 대부분은 우리의 기사 The Climate Change Alternative We Ignore (to Our Peril)에서 설명되었으며, 이 그래픽에서도 요약된다.

타우 지점 (예측) - 진정한 극 이동 사건 - 자이로스코프적으로 매개된 잔니베코프 분리 경사(31° E 자오선을 따라 104° 회전)

우리는 ECDO 이론을 확장하면서 중요한 경사점 또는 타우 지점이 중요한 지질학적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 중요한 사건은 유크형 밀집 철(HCP-Fe)의 상 변화 상태에서 지구 맨틀 전체로의 열 기여, 남아프리카 돌출부 및 태평양 대규모 저속 전단 속도 영역(LLVP) 맨틀 형성 그룹(위의 Exhibit A의 왼쪽 부분 제외)의 열 기여를 포함한다. 핵심 지구 역학적 결절에서 밀도가 높은 금속질 질량의 이 주입은 지구 핵의 지자기 투과율 감소와 관련하여 자이로스코프적 모멘트 증가를 촉진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적 북극(Np)은 새로운 위치, Exhibit B의 오른쪽에 지정된 Np'로 재정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고대의 수수께끼 같은 쿠푸 피라미드와 동일한 경도를 공유하는 31° 동경을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약 104도 이동하는 이 재정렬은 지구의 자전축의 극적인 재정향을 나타내며, 이는 진정한 극 이동(TPW) 사건이라고 불리며, [7] 타우 지점에서 ECDO 이론의 변혁적 의미를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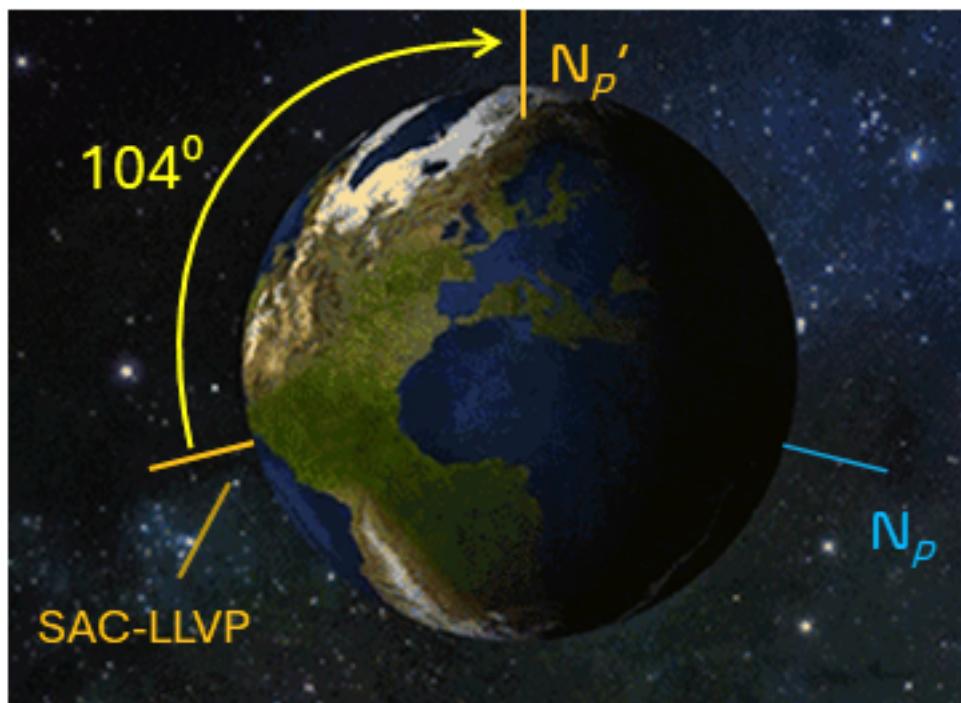


Exhibit B – ECDO 이론과 지구 맨틀 내 확립된 LLVP 저밀도 축을 기반으로 한 개념적 잔니베코프 회전.

D. 특정 자기 모멘트 감소 임계값을 초과하면, 핵-맨틀 자기 결합이 자이로스코프적으로 매개된 형태의 잔니베코프 회전에 길을 내어주게 되며, Np에서 Np'로 이동하게 된다(31° E 경도선을 따라 104° – 쿠푸 피라미드와 동일한 자오선).

핵의 H-층은 발열성 각피를 가속화하며, 이러한 물질 탈피 효과는 핵과 맨틀 사이의 일종의 ‘무한 윤활제’ 역할을 하여 두 신체가 독립적으로 회전할 수 있게 한다(Exhibits J 및 J2에 나타난 대로).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미 인디고 지점을 훨씬 넘었으며, 이 증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열이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만으로 잘못 해석되었으며, 이제 자이로스코프적으로 매개된 잔니베코프 회전 타우 지점의 접근을 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질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사건의 시작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

잔니베코프 동역학과 회전

잔니베코프 효과는 테니스 라켓 정리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주에서 회전하는 물체에 관한 현상으로, 서로 다른 세 개의 관성 모멘트를 가진 물체(회전축)가 회전할 때 반직관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효과는 러시아 우주비행사 블라디미르 잔니베코프가 지구 궤도에서 날개 너트가 회전할 때 예상치 못하게 뒤집히는 것을 관찰한 후 특히 유명해졌다.



Exhibit C – 우주에서 회전하는 대칭 물체에 대한 순수한 잔니베코프 효과. 중간 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이 축 동역학에서의 반전을 초래한다. [8]

이 효과는 중간 축 정리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물체의 중간 축(최대 또는 최소 관성 축이 아님) 주위의 회전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9] 테니스 라켓이나 날개 너트와 같은 물체가 이 중간 축 주위에서 회전할 때, 결국 다른 축 주위로 회전하며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을 초래한다. [10] 이 놀라운 행동은 특히 우주의 미세 중력 조건에서 회전 동역학의 독특한 안정성 특성을 강조한다.

우리의 이론이 잔니베코프 효과를 참조하고 있지만, 지구의 실제 세 PIM 축 신체 적용(오른쪽의 Exhibit C2 참조)은 우주에서 관찰된 고전적인 세 축 정의(Exhibit C)와 부분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우리의 모델은 중간 축 주위의 회전 불안정성으로 인해 물체가 단순히 180도 회전하는 고전적인 잔니베코프 효과 정의를 엄격히 따르지 않는다(위의 Exhibit C 참조). 대신, 유사한 원칙이 지구 내부의 다른 조건에서 회전 동역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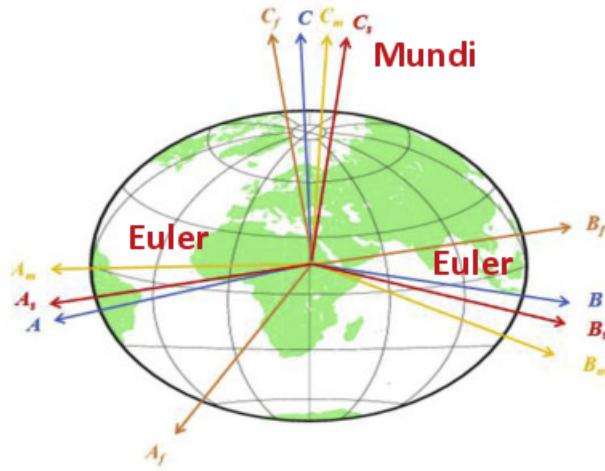


Exhibit C2 – Mundi 및 오일러 밀집 축 – 우리가 추정한 LLVP 축과 현저히 대비됨 (인용된 Wenying, et al. Geodynamics 2020 연구에서 발췌).

1. 핵의 자기 모멘트가 약해지면서 지구 핵과 맨틀 간의 자자기 결합이 감소함에 따라 현재의 극 회전 축을 우선 순위로 유지하는 기능이 사라짐,
2. 지구의 더 뜨거운 맨틀과 상대적으로 덜 밀도가 높은 대규모 저속 전단 속도 영역(LLVP) 간의 불안정성, 특히 남아프리카 돌출부 LLVP의 저질량 중심에서의 불안정성. 이 핵 물질 주입은 지구의 최대 축(남아 있는 밀도가 높은 맨틀) 주위를 중심으로 지구의 회전 운동량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가지며,
3. 잔니베코프 효과의 자이로스코프적 104도(현재의 극 축에 비해, Exhibits H 및 J 참조) 조정 – 단순한 물리적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0에서 180도와는 다름 (Exhibit C).

이론적 접근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지구 내부의 지질학적 및 자기적 복잡성에 회전 동역학 원칙을 고유하게 적용하고 적응시키는 것이 강조된다. 따라서 이 이론은 이 복잡한 상호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동역학’, ‘매개된’, ‘회전’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며, 잔니베코프가 회전하는 세 축 물체에 대해 관찰한 직접적인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지 않는다.

대규모 저속 전단 속도 영역(LLVP) – 지구의 숨겨진 자이로스코프

대규모 저속 전단 속도 영역(LLVP)은 지구의 점탄성 맨틀 깊숙한 곳, 특히 핵과의 경계에 위치하며, 지구 표면에서 약 2,900km까지 올라가는 주요 지구물리학적 특징이다. 이 지역들은 지진파의 속도가 주변 물질에 비해 느리다는 것으로 차별화된다. 이러한 이상한 행동은 LLVP가 지구 맨틀의 대부분보다 더 뜨겁고 밀도가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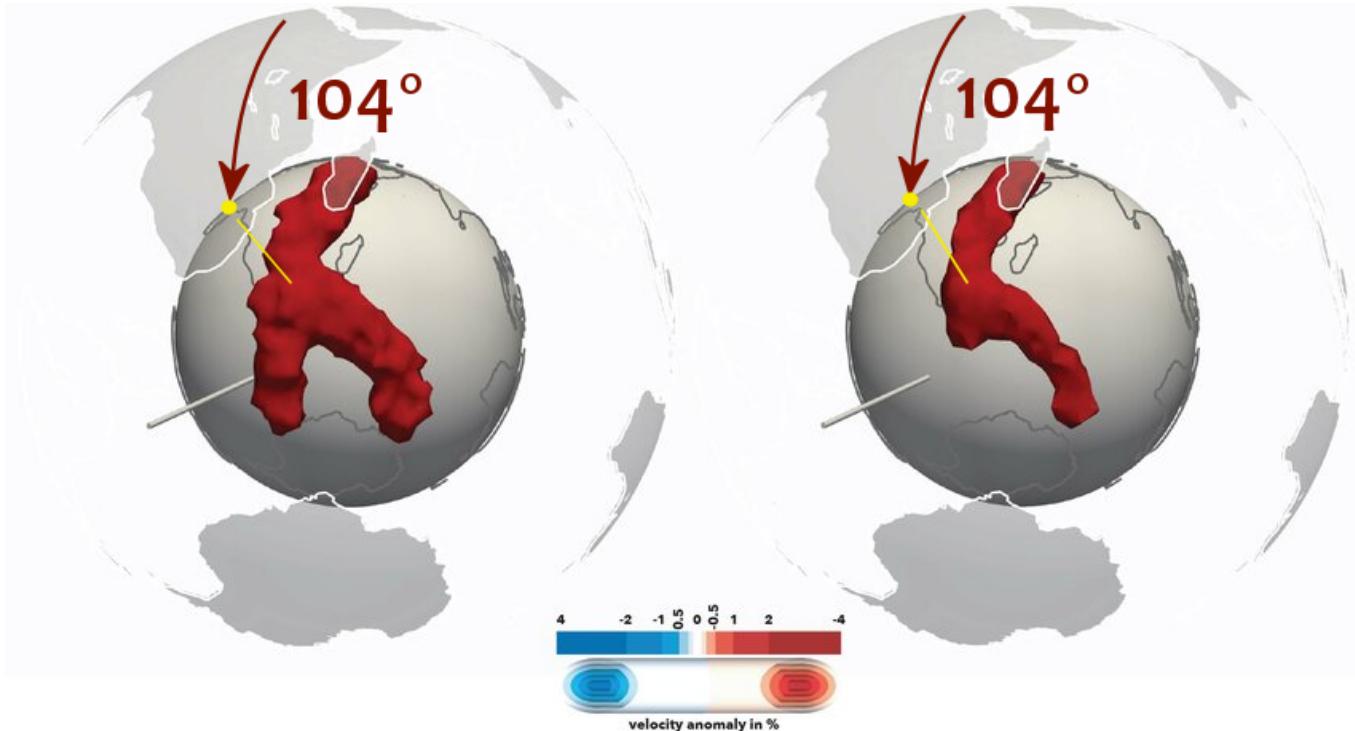


Exhibit D – 남아프리카 돌출부 – 아프리카 대륙 남단의 대규모 저속 전단 속도 영역(SAC-LLVP) 단층 구조(빨간색) 및 중심부(노란색). SAC-LLVP의 가벼운 축 중심은 31도 동경과 정확히 일치하며, 이는 현재의 북극에서 104도 떨어진 지점이기도 하다. [12]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주요 LLVP 구조를 ‘SAC’(남아프리카 돌출부)와 ‘PAC’(태평양)으로 언급한다. 이들은 각각 우리 달의 두 배 크기로 상당한 지구 회전 질량 모멘트 차이를 형성한다. [13] [14]

지구의 맨틀은 비등방성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맨틀 밀도, 특히 대규모 저속 전단 속도 영역(LLVP)에 대한 대부분의 단층 촬영과 과학은 지난 10년 동안 개발되었다.

두 개의 LLVP 구조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아래에서 발견되며, 지구 맨틀 내에서 일종의 자이로스코프 축을 따라 낮은 밀도의 극처럼 작용한다. 이들은 규모가 크며 각각 하부 맨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 구조물들은 주변 맨틀 매트릭스보다 밀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아래에 식별된 직교(경도 오프셋 90도 – 30° E – 120° E – 150° W – 60° W) 오일러 축은 더 밀도가 높고, 서로에 비해 상대적인 밀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Delta PIM (A, B, C) = .35\%$). [16] 우리는 Exhibits E 및 E2에서 묘사된 90도 간격의 열과 저밀도 구역의 이러한 상호 연계가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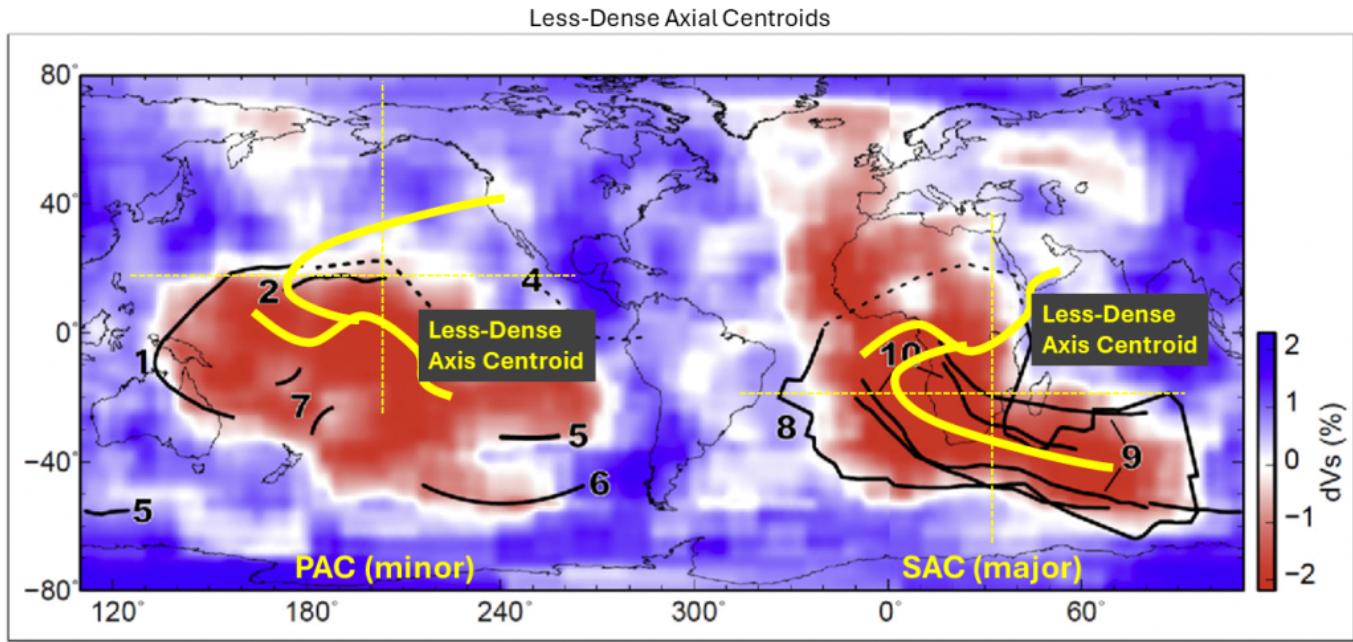


Exhibit E – LLVP 형성 저밀도 축 중심 – 30° E/ 150° W 자오선에 정렬되어 있으며, 현재 북극에서 104도 떨어진 아프리카 대륙 남단 내부에 위치해 있다. [15] 이 차트는 Mcnamara, et al. 연구에서 인용된 것이지만, 노란색 및 텍스트 주석은 우리가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극 이동(30° E 및 150° W 자오선) 대원을 형성하는 것과 직교하는 오일러 축(120° E 및 60° W 자오선) 대원을 따라 ENSO 지열 가열 사이에 명확한 수직 관계가 있다.

더욱이, 이러한 오일러 축의 지리적 지점은 모두 지속적인 해양 가열(ENSO 또는 엘니뇨–남방 진동 사건)의 동서 중심에 위치해 있다. 우리는 이 열이 지구의 핵에서 맨틀로 도입되는 상 변화 중인 핵 육각 밀집 철(HCP-Fe)의 잠재 에너지에서 기원한다고 추측한다.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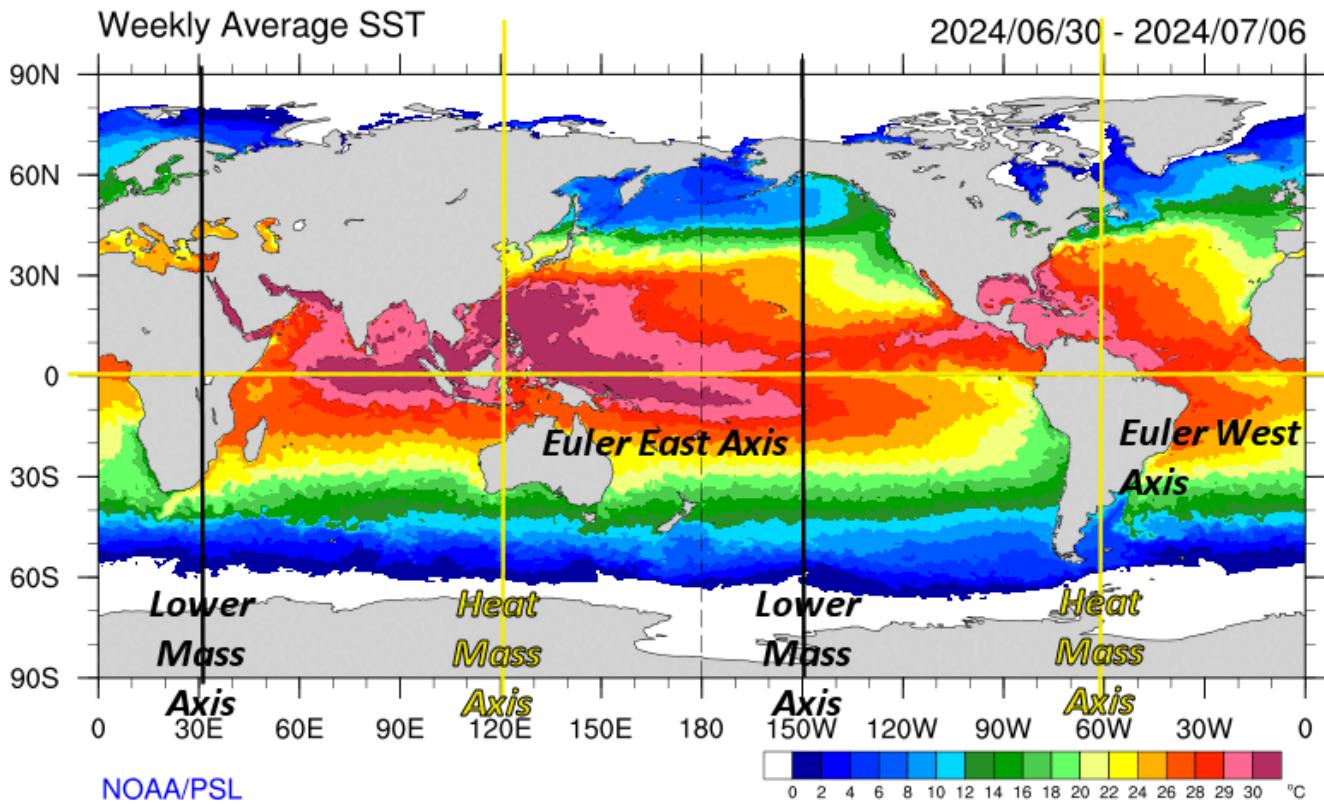


Exhibit E2 - 직교 오일러 축 가열 중심의 대조 – 120° E/ 60° W 경도에 정렬됨. 이 동서 오일러 축의 해양 가열 중심은 이 기사에서 이후에 다른 분석적 접근을 통해 식별된다. [17]

이 질량은 지구의 3-PIM 회전체 내에서 최대 모멘트의 전체 질량에 더해져 진정한 극 이동 사건을 유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면, LLVP 형성체(Exhibit E)는 최소 축을 제공하며, 나머지 맨틀은 뜨거운 3-PIM 최대 축 세트를 형성한다(Exhibit E2). 결합하면, 이들은 자기적으로 결합된 축과 자이로스코프적으로 경쟁하며, 순수한 180도 잔니베코프 회전이 지자기 축에서 벗어나는 것을 완화한다.

Exhibit E에서 볼 수 있듯이, 아프리카 대륙판 남단의 아프리카 대규모 저속 전단 속도 영역(LLVP)의 중심부는 이 LLVP의 경계에 따라 고온점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간 맨틀에서 지진 단층 촬영 모델은 아프리카 크라톤 아래에서 넓고 느린 지진파 속도 이상을 나타내며, [19] 이는 일반적으로 외핵에서 발생하는 열 기둥의 상승으로 해석된다. [20]

아프리카 LLVP가 리프트 밸리와 함께 지자기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31도 동경이 지나가는 길이와 일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중요한 사실이다. [21]

아래 Exhibit F는 이 두 LLVP에 의해 형성된 최소/최대 자이로스코프 축의 개념적 묘사를 보여준다. 이는 인용된 Cottaar, et al. 연구에서 발췌되었으며, 우리의 주석이 노란색과 파란색 텍스트/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SAC/PAC-LLVP Gyroscopic Ax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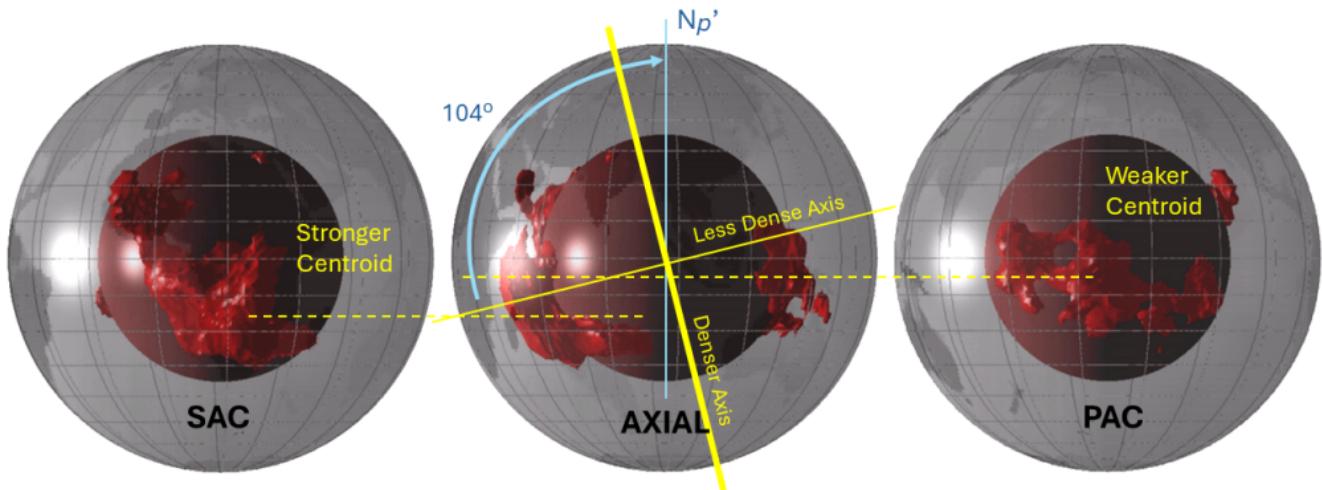


Exhibit F – 지구의 숨겨진 자이로스코프 모멘트 맵 – 아프리카 및 태평양 아래의 LLVP 구조에 대한 세 가지 관점과 아프리카 LLVP의 남아프리카 돌출부 중심을 기반으로 한 자이로스코프 모멘트 축(두꺼운 노란색 선)에 대한 개념적 묘사. [22]

그러나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 남아프리카 돌출부 – 대규모 저속 전단 속도 영역(SAC-LLVP)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더 객관적이고 최신(2021년 단층 촬영) 측정을 살펴보자. 아래의 인용된 Tsekhmistrovko, et al. 2021 연구에서 발췌된 Exhibit G에서 돌출부의 방사형 중심과 31° E 자오선의 교차점을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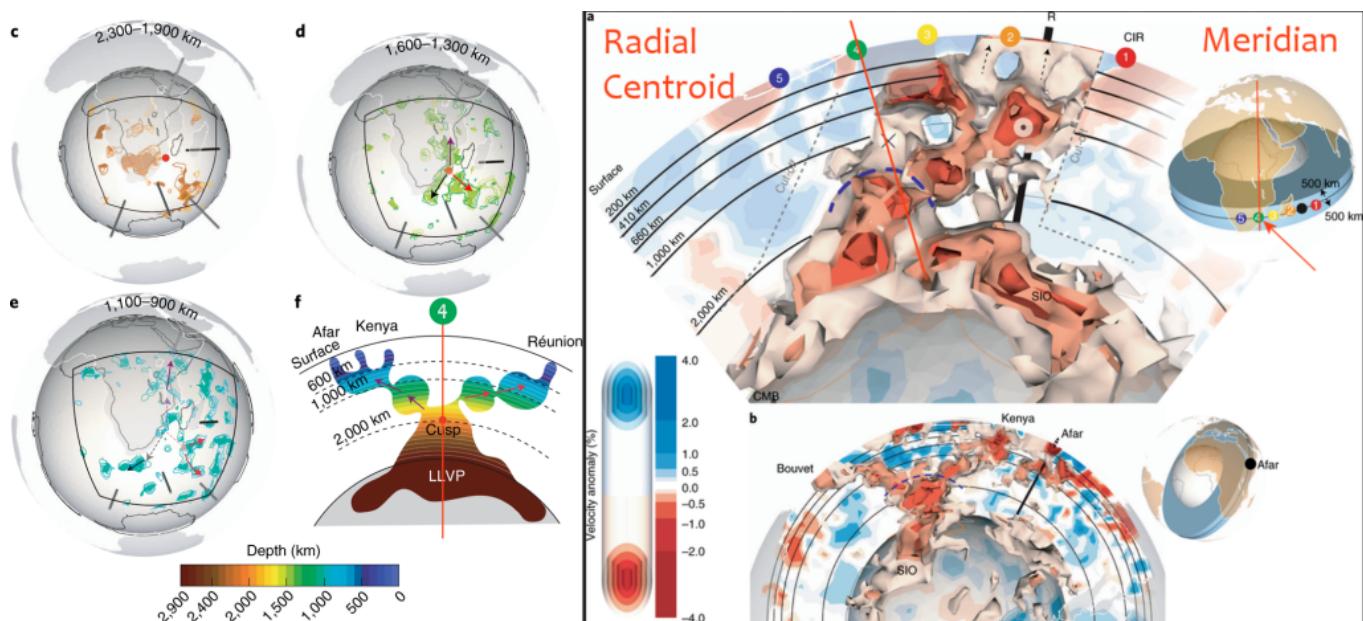


Exhibit G – 남아프리카 돌출부 방사형 질량 중심 – 남아프리카 돌출부 – 대규모 저속 전단 속도 영역(SAC-LLVP)의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2021년 단층 촬영. 빨간 선과 주석 '방사형 중심' 및 '자오선'은 우리가 추가한 강조 표시임에 유의하십시오. [23]

독자는 Exhibit G 위의 차트에 표시된 지점 4(녹색 공)의 경도가 기자 고원의 자리에 있는 31번째 동쪽 자오선과 동일할 수 있지만, LLVP 저밀도 중심이 할당될 수 있는 위도의 범위가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북쪽-남쪽 배치는 남위 8도에서 18도 사이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특정 추론 시나리오의 일관성을 위해 104° ($103.5^\circ \pm 1^\circ$ 또는 남위 13.5°)를 선택했다. 이 각도는 또한 잔니베코프 효과를 통한 90도의 기본 회전과 매우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14도의 총(경도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 극 변화(핵 자기극과 회전 극 사이의 각도 - 천체 항법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정의 규칙 하에서의 정의)를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전혀 질문거리를 제기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잔니베코프 이동에 대한 ‘기록된 역사 부족’ 논쟁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만약 지구의 지자기 핵이 현재의 방향을 유지한 채로 맨틀과 지각이 잔니베코프 회전을 경험했다면(아래 Exhibit I 참조), 그런 사건은 고지자기학 분야에서 지자기 극 변위로 해석되었을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의 측정 방법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잔니베코프 회전과 전통적인 지자기 극 이동을 구별할 수단이 없을 것이다(참고 참조 [24]). 더욱이, 만약 10년에서 50년 동안 카프레 스타일의 반전이 있었다면, 얼음 코어에서도 그러한 잔니베코프 회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아프리카 돌출부의 중심이 지구의 맨틀과 핵의 분리 동안 최소 자이로스코프-잔니베코프 축 지점으로 작용하여 지구의 자이로스코프 질량을 새로운 지구 회전의 지리적 축(Np')으로 회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남아프리카 돌출부의 저밀도 질량 중심이 천구의 북극(폴라리스, 작은곰자리 등)을 직접 가리키게 된다. 따라서 맨틀의 높은 질량 자이로스코프 평면은 LLVP 축에 수직하게 위치하게 되며, 이는 위의 Exhibit G에 묘사된 대로이다. 이전의 지리적 지구 회전축(현재의 ‘북극’)도 Np로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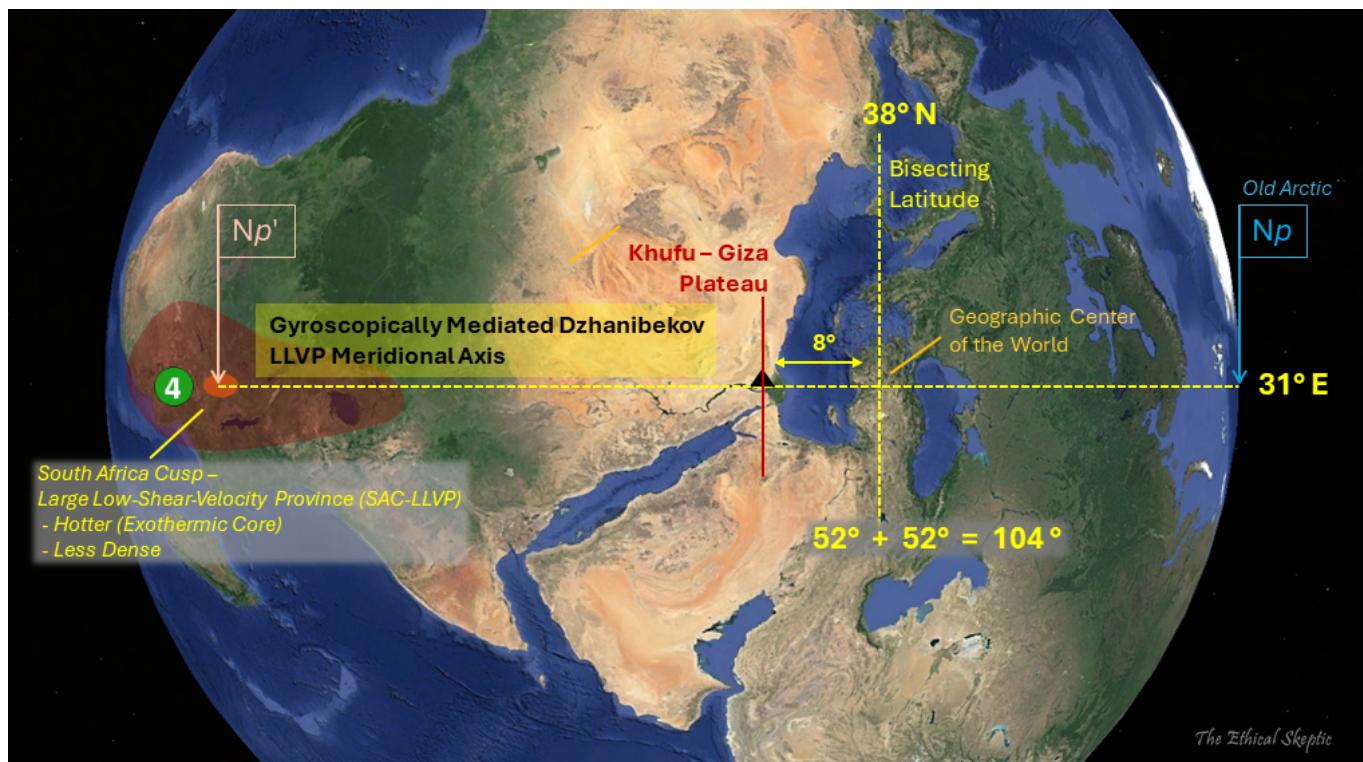


Exhibit H – 잔니베코프 SAC-LLVP 종방향(자오선) 돌출부 중심(덜 밀도가 높은 질량)이 기자 고원 자오선 및 북극과의 관계에서 104도 전체를 형성하며, 중앙 터키의 중간 지점을 반으로 나눈다 – 이는 또한 세계의 지리적 중심이다. [25] 이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아래 Exhibit L에서 검토할 인증의 근거로 작용한다.

매우 흥미로운 점으로, Exhibit H 위의 31도 동경, 38도 북위, 이는 Exhibit L 아래 오른쪽에 있는 여왕의 방과 일치하는 위치로, 고대인들이 세계의 지리적 중심으로 여겼던 곳이다(1973년 컴퓨터에 의해 업데이트되기 전까지). 이는 Exhibit L의 두 세트의 별 통로가 중앙 터키와 기자를 위해 이 위치에 묘사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리프트 밸리가 31번째 자오선과 일치하며, 이는 SAC-LLVP 상승이 발생하고 있는 지점으로, 아래 제안된 상태 2 자이로스코프 회전에서 가벼운 모멘트 축 회전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27]

위의 Exhibit H에서 보여지는 원리는 회전하는 물체의 물리학 용어로 아래에서 설명된다. 이 기사에서 제안하는 회전의 특별한 형태를 우리는 자이로스코프적으로 매개된 잔니베코프 회전이라고 부른다(오른쪽 Exhibit I의 마지막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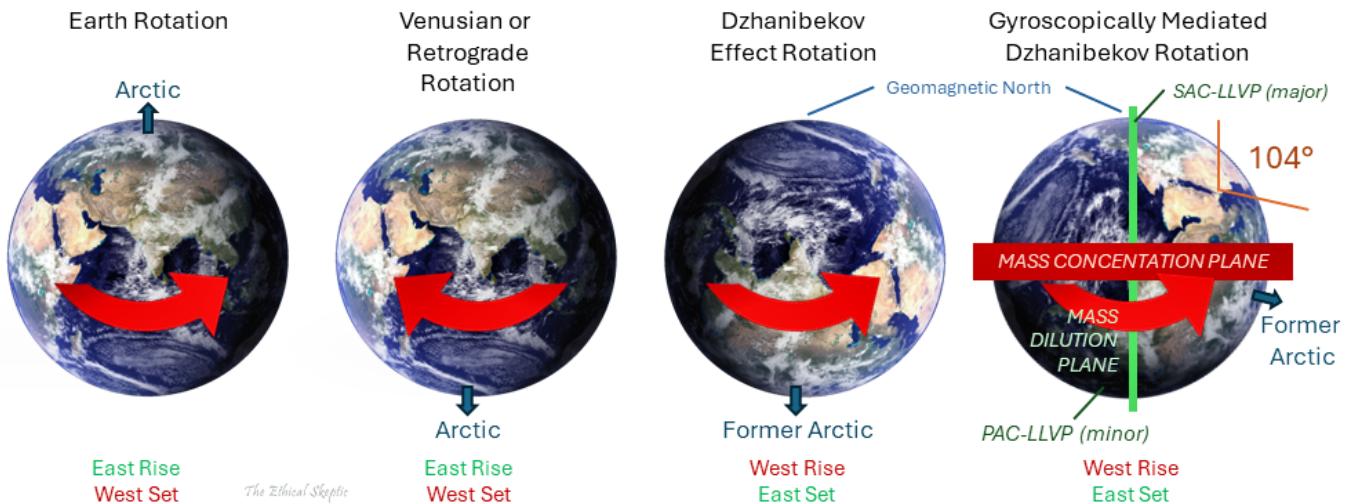


Exhibit I – 자이로스코프적으로 매개된 잔니베코프 회전 – 역행 회전이 아님.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수정된 순수 잔니베코프 효과 회전(Exhibit C)으로, LLVP 저밀도 축과 주변의 더 밀도가 높은 맨틀 간의 차동 질량 평면의 자이로스코프 효과에 의해 매개되며, 완전히 완료되지 않는다. 이 더 밀도가 높은 몸체는 일종의 자이로스코프 훨 역할을 하여, 지구 회전이 자이로스코프 안정성 우선순위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며, 핵-맨틀 결합 회전이나 순수 잔니베코프 회전이 되지 않는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회전 개념은 ‘북극’ 극 정의의 ‘오른손 규칙’을 따르는 것을 유의하라. 후자의 두 개는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이전 북극’을 나타낸다.

위의 Exhibit I 오른쪽 끝의 두 이미지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추론: 고지자기학의 과학은 잔니베코프 회전을 지자기 극 변위나 전환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무지를 근거로 하는 주장은 무의미하다.

이제 Exhibit I의 오른쪽 끝에 있는 수정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Exhibit F에서 이전에 검토한 Cottaar, Lekic, et al. 연구에서 발췌한 그래픽에 이를 배열해 보자.

Gyroscopically Mediated Dzhanibekov Rotation

Appears as a geomagnetic pole excursion in cyclostratigraphic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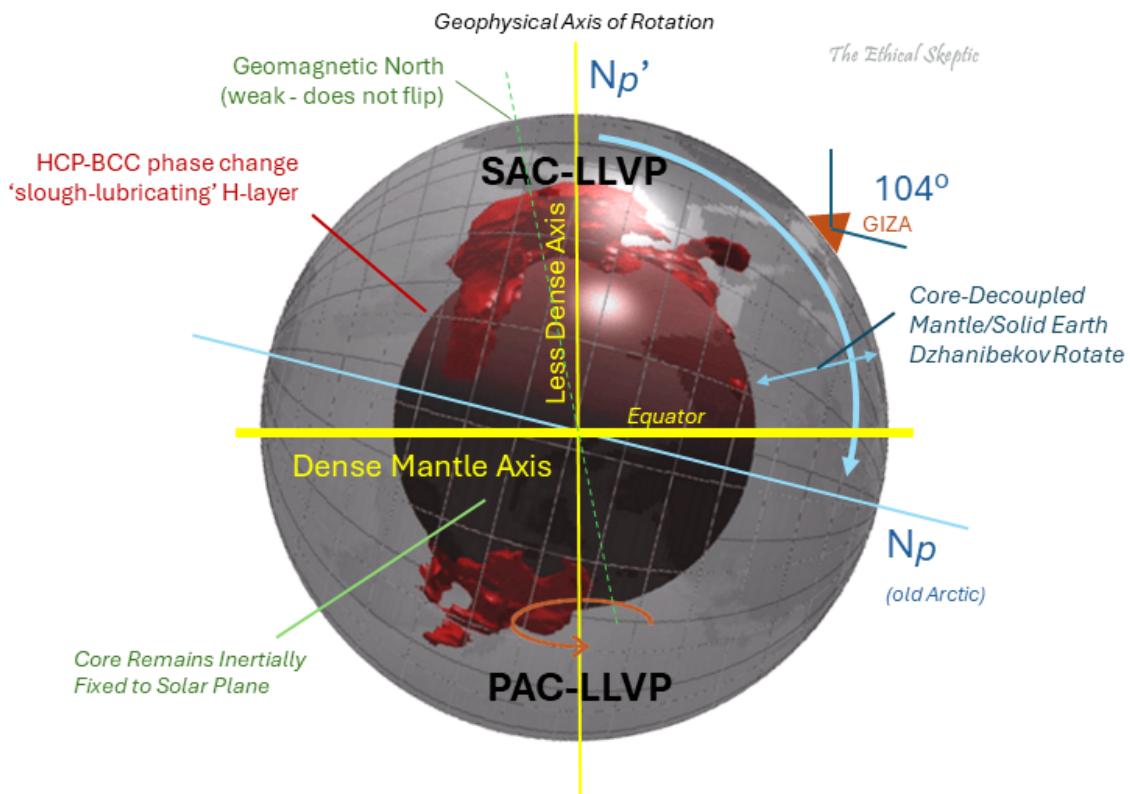


Exhibit J - 해결책 - 관성 교환 104° 진정한 극 이동 (IITPW) – 자이로스코프적으로 매개된 잔니베포 회전과 관련된 핵, 맨틀, SAC-LLVP 및 PAC-LLVP의 내부 구조. ‘매개’는 지구의 LLVP 구조물의 순수 중심으로 구성된 지구 질량 분포의 가벼운 모멘트의 개입을 포함하며, 이는 지구의 새로운 저밀도 각운동량 보존(자이로스코프) 회전 축이 된다.

독자는 이 시나리오에서 지자기 북극이 이동하지 않았으며, 맨틀, 아스테노스피어 및 암석권(지각)이 회전을 경험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H-층의 탈피는 핵과 맨틀 사이의 윤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여 이 과정을 촉진하며, 녹는 버터 공에 덕트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유사하다—그냥 붙지 않을 것이다.

지구의 핵은 여전히 안정적인 회전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소 약한 자기 모멘트를 가지며, 총 질량은 약간 낮아졌다. H-층은 맨틀과 핵의 회전 질량을 분리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맨틀과 지각(중권, 아스테노스피어, 암석권)의 결합된 질량을 외부 회전체(ORB)라고 줄여서 부른다.

우리가 여기서 제안하는 이러한 유형의 회전의 역사와 지구 회전 동역학에 대한 지구물리학적 모멘트 대안 접근에 대한 선행 과학 연구는 Kirschvink et al. 1997에서 개요가 설명된다. 해당 연구의 관련 결론은 아래에 인용되었다.

초기에서 중기 캄브리아기의 관성 교환 진정한 극 이동 사건 동안, 지구의 암석권과 맨틀이 행성의 관성 모멘트의 불안정한 분포에 대응하여 약 90도 회전했다.

... 지구 대륙 암석권의 3분의 2 이상을 포함하는 두 개 이상의 판이 회전축에 대해 약 90° 의 급격한 회전을 경험했다. 새로운 연대와 고지자기 데이터는 대륙이 맨틀 동역학에 대한 현재의 이해와 조화하기 어려운 급격한 속도로 이동했음을 나타낸다. 이 메커니즘의 변형인 관성 교환 진정한 극 이동(IITPW)은 중간 및 최대 관성 모멘트의 크기가 교차하면 지질학적으로 짧은 시간 간격 내에 최대

90° 의 진정한 극 이동(TPW)이 발생하는 개별적인 폭발을 포함한다.

이것은 적도에 위치한 최소 관성 모멘트를 중심으로 한 전체 고체 지구의 회전을 통해 이전 극의 지리적 위치가 회전축에서 급격히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TPW로 인한 속도라면, 이러한 지구역학적 고려 사항은 암석권과 함께 전체 맨틀이 회전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 초기 캄브리아기 대륙 질량의 대규모 재편성에 대한 증거, 관성 교환 진정한 극 이동, Kirschvink et al. (1997) [28]

이제 Exhibit J에서 ‘해결책’이 식별되었으므로, 독자 여러분께, 잔니베코프 회전의 진동(반복 주기) 전체 물리학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복잡한 그래픽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Exhibit J2는 지구의 회전 조건 쌍을 보여주며, 각 상태에서 관련된 물리학을 더 자세히 설명한다: 지자기 우선순위와 자이로스코프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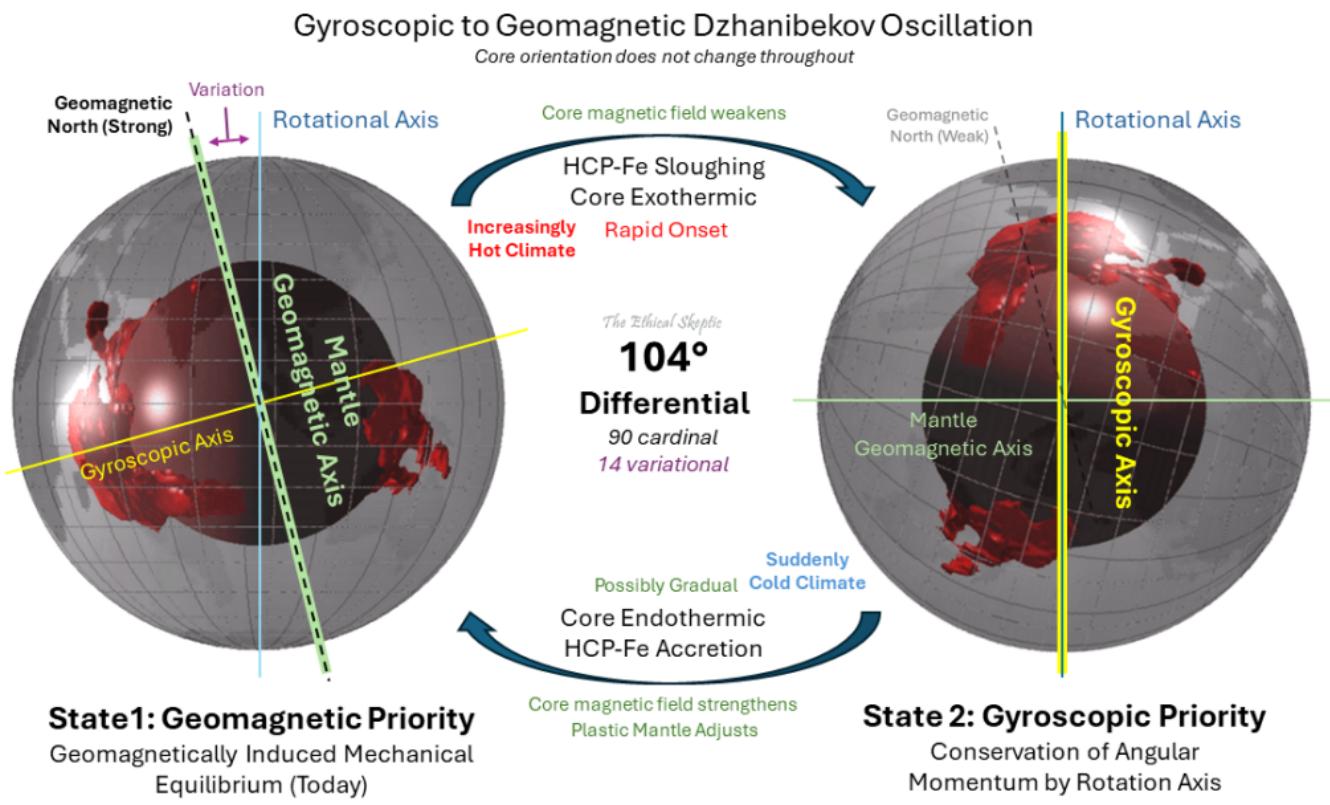


Exhibit J2 – 핵 발열 탈피가 뒤따른 흡열 부착이 지구 핵의 지자기 모멘트(Exhibit J2의 녹색 주석)의 가변 강도에 기반하여 반복되는 진동을 생성하는 반복 주기. 이 과정은 잔니베코프 효과와 지구 맨틀의 자이로스코프 각운동량을 통해 작동한다. 우리는 상태 2(자이로스코프 우선순위)에서 상태 1(지자기 우선순위)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점탄성 맨틀의 높이 재조정 및 점진적인 안정화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핵이 HCP-Fe 격자 구조를 되찾는 지점에서 비교적 갑작스러운 냉각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측한다.

상태 1: 지자기에 의해 유도된 기계적 평형 (핵-맨틀 결합)

설명: 이 상태에서는 자이로스코프의 회전축이 가해진 자기장과 정렬되어 있으며, 무게가 있는 바퀴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지 않는다. 자기력으로 인해 시스템은 균형 잡힌 평형 상태가 된다.

상태 2: 회전축에 의한 각운동량 보존 (핵-맨틀 분리)

설명: 외부 자석이 제거되면, 자이로스코프 바퀴는 평면 회전(두 상태 모두에서 변경되지 않음)으로 돌아온다. 이 상태에서 자이로스코프는 회전축을 통해 각운동량을 보존하며, 자석이 분리되어 회전 운동이 재개될 수 있다.

이 그럴듯한(또는 아마도 가능성 있는) 진동은 20개 이상의 문화에 걸친 신화적 전통과 함께 다음의 중요한 경로 질문을 제기한다: 왜 이러한 사건이 고지자기 또는 얼음 코어 샘플 데이터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진정한 극 이동과 쿠푸 정렬에 대한 각주: 상태 2에서 상태 1로 복귀할 때 쿠푸가 진정한 북쪽으로 정확하게 정렬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할 수 있다. [29] 이 문제는 실제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단순한 귀납적 추론이며, 무지에 대한 호소, 사고 가능성 노출, 체리 피킹/문화적 과장에 의존하며, 반증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나 이 관찰 세트(다수의 기념물)를 시간 경과에 따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지질학적 무지에 대한 호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문제를 연구하는 동안, 대부분의 고지자기 쌍극자 모멘트 연구가 연간 구독 유료 장벽 뒤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의 일반적인 시간 해상도는 최선의 경우 이천에서 사천 년 수준이다.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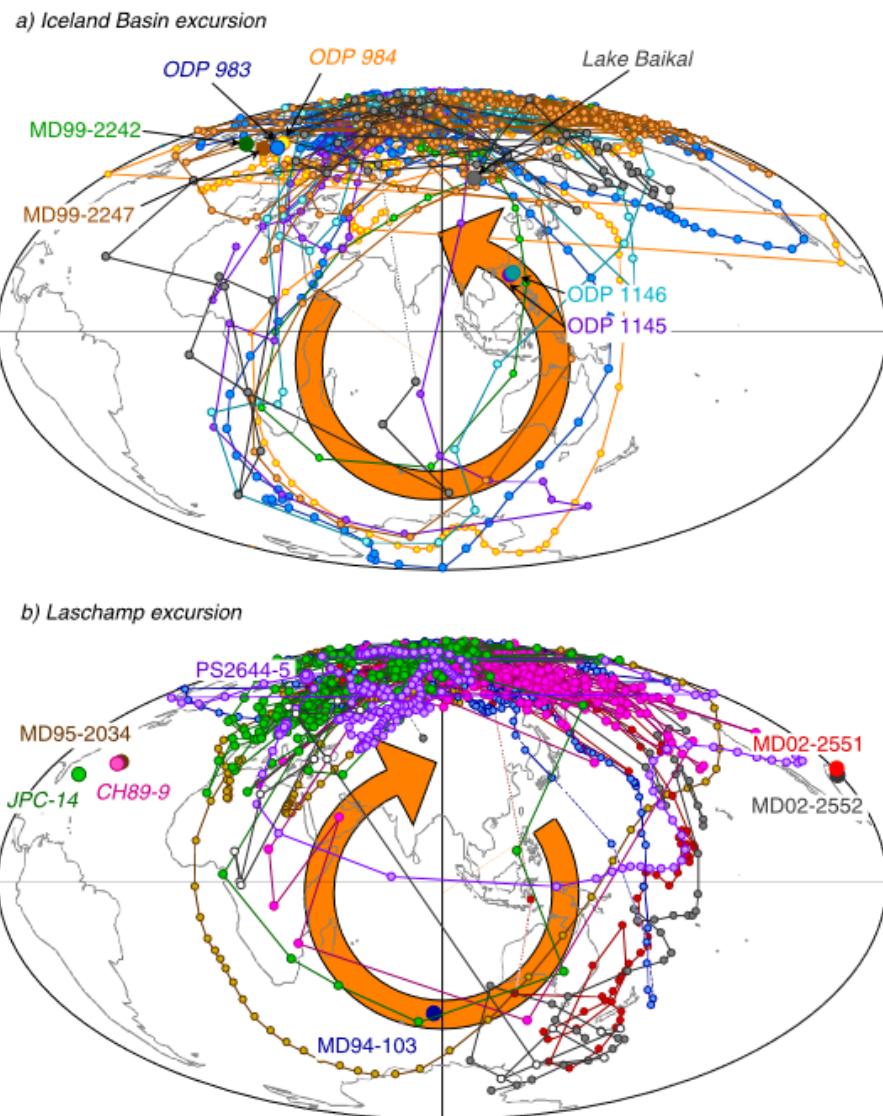


Figure 8. All of the VGP paths shown in Figure 7 are superimposed for (a) the Iceland Basin excursion and (b) the Laschamp excursion. Records reported in the literature are also shown. The large orange arrows illustrate the sense of looping, which is common to all records from each excursion. The loops are counterclockwise for the Iceland Basin excursion and clockwise for the Laschamp excursion.

그림 8 – 지자기 변위 역사에 대한 Laj와 Lund 연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만천 년 전의 Leschamps 변위 사건을 제외하고, 우리는 지구의 쌍극자 모멘트의 역사에 대해 강력한 차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정적 측정과는 다른 독특한 데이터를).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시적 데이터는 최소한 질량 및 대형 동물군 멸종이 쌍극자 현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시간에 따른 자기장 강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난 십만 년 동안 멸종과 낮은 지자기장 강도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임스 채널, 플로리다 대학교 지질학자, NPR [31]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두 번의 지자기 변위, 즉 사만천 년 전의 Laschamp 사건(그림 8의 하단 패널)과 최대 십팔만칠천 년 전의 Iceland Basin 변위(그림 8의 상단 패널) 고지자기 코어 기록이 이 기사에서 추정한 31번째 자오선 극 이동과 일치하는 가상 지자기 극(VGP) 진행을 따랐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의 그림 8에서 두 가지 진행 경로를 오른쪽에서 참조하라. 두 변위 모두 SAC-LLVP 돌출부로 그려진 동일한 지리적 경로를 따라 진행되었으며, 결국 시계 방향으로 상태 1로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상태 2로 되돌아갔다—둘 다 31번째 자오선을 따라 진행되었다. [32] Laschamp 및 Iceland Basin 변위에 관한 Lund 연구는 Laj 연구와 유사한 경로 파생을 보여준다. [33]

또한 상태 1에서 상태 2로 전환된 Laschamp 변위는 지자기 극의 지리적 위치 변경으로 시작되었으며, 캐나다에서 시작하여 러시아로 이동한 패턴을 보였다. 이는 1973년부터 현대 시대에 시작된 패턴이기도 하다.

이 가설에 따르면, 상태 2의 짧은 기간 동안은 ‘단순히 거꾸로 된 일상’이 아니다. 뚜렷한 화산 활동과 해양 이동으로 인해 지구는 분리된 회전 기간 동안 추운, 습한, 어두운 장소가 될 것이다. 즉, 그린란드, 남극, 보스토크 호수의 얼음 코어와 그로 인한 가속화된 탄소-14 퇴적률이 그러한 짧고 추운 회전 기간의 순 영향을 명확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인간의 신화적 이야기와 일치하는 물리적 증거(오일러 축 사막 표식)를, 부재를 시사하는 평탄화된 지수의 신화적 정확성보다 더 신뢰한다.

지구는 오일러 축 표식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아래는 지자기에 의해 유도된 기계적 평형(상태 1)과 회전축에 의한 각운동량 보존(상태 2) 사이의 매개된 잔니베코프 진동의 개념을 설명하는 짧은 비디오이다. 이 비디오를 제작해준 nobularart.com의 크레이그 스톤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비디오에 묘사된 기자 대피라미드의 위치와 천체 극 각도에 주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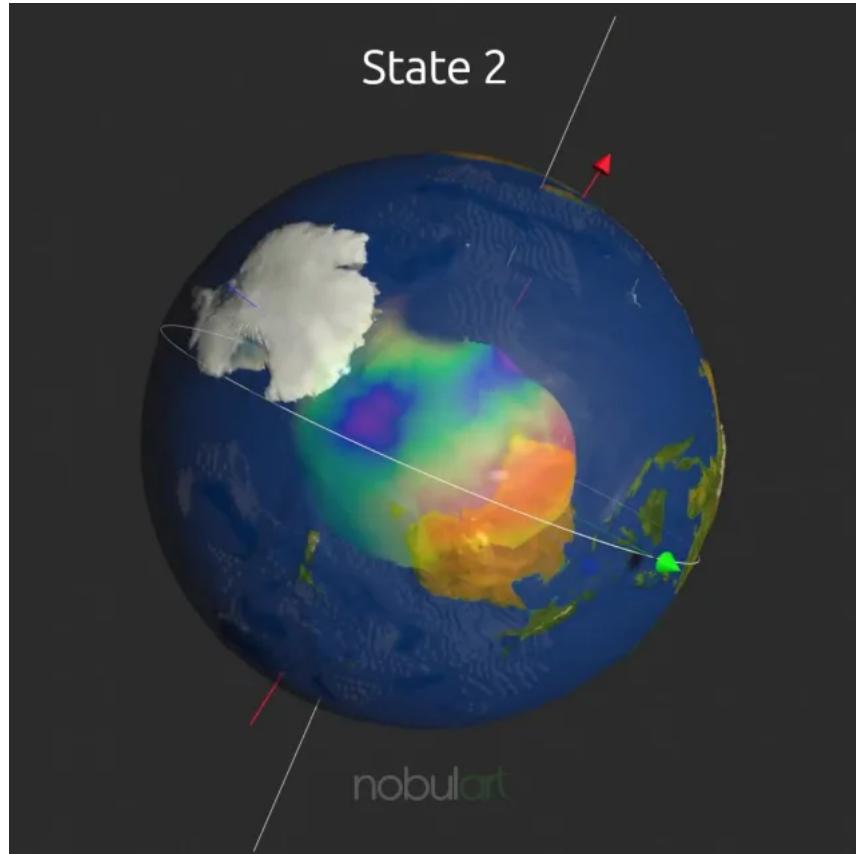


Exhibit J3 – 31번째 동쪽 자오선을 따라 위도 90도 북위(상태 1)와 14도 남위(상태 2) 사이를 순환하는 회전 북극축(104도)과 함께하는 매개된 잔니베코프 진동. 이 주기를 구동하는 지렛대는 핵의 자기 모멘트의 강도이다. 우리는 현재 상태 1에서 회전하고 있으며, 강하지만 감소하는 지자기 모멘트를 가지고 있다. 비디오에서 이 기사에 제시된 가설과 다른 유일한 점은 지구의 핵이 외부 회전체(ORB = 맨틀 + 지각)와 함께 잔니베코프 회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상태 1에서처럼 계속 회전할 것이다.

Exhibit J3에 표시된 ECDO 회전은 전 세계의 주요 해양 범람 사막 형성과 일치하며, 여기에는 고비 사막, 미국 남서부, 빅토리아 대사막, 파타고니아, 사하라 사막이 포함된다. [34] [35] 아라비아 사막은 상태 1로 복귀 후 또는 중에 아라비아 판의 고유한 안정화 과정의 결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페르시아만으로 후퇴한 해안선이 더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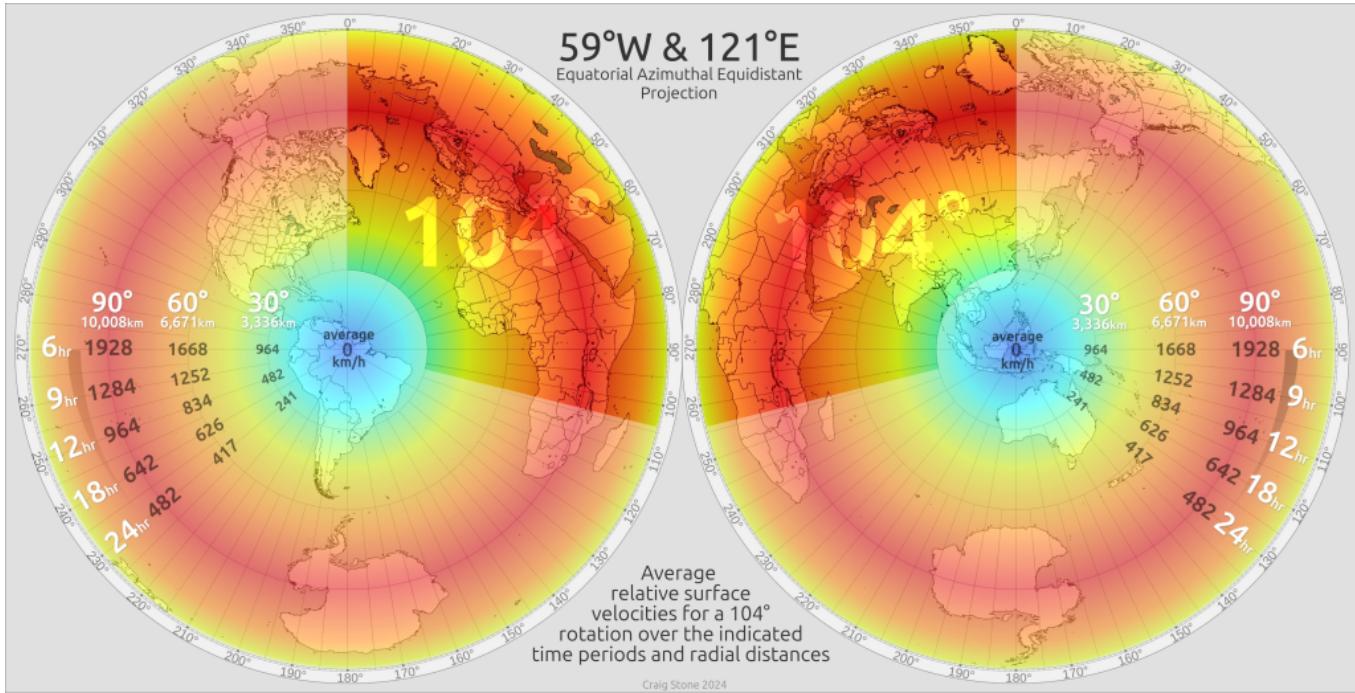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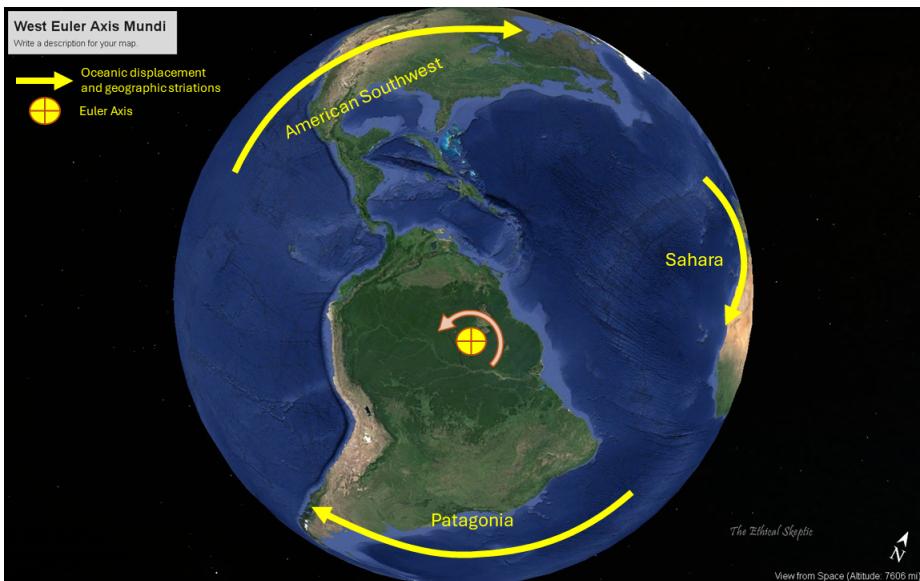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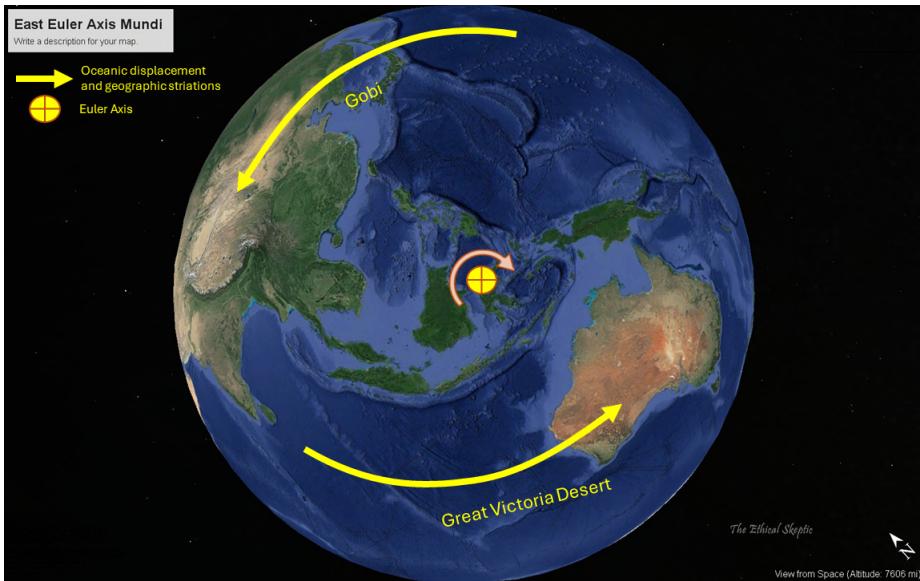


Exhibit J4 - 서쪽 및 동쪽 오일러 축 – 격렬한 48시간. 지리적 북극을 새로운 위치(Np')로 이동시키기 위해 지구가 일시적으로 회전할 축. 차트에는 원래의 각운동량에서의 이론적 초기 해양 관성 속도와 그러한 해양 이동으로 형성될 사막 및 줄무늬가 표시되어 있다. 인간, 동물군, 식물군의 유전적 다양성이 104° ECDO 회전 동안 상태 1에서 상태 2로의 ‘폭풍의 눈’ 안정성 지점(파란색 영역)에서 가장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도 북아프리카 대륙 질량과 고지대 사막에 의해 보호되고, 지형 질량 고도의 차이에 의해 일부 보호받고 있다. 이미지를 개발해준 nobular.com의 크레이그 스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이미지를 클릭하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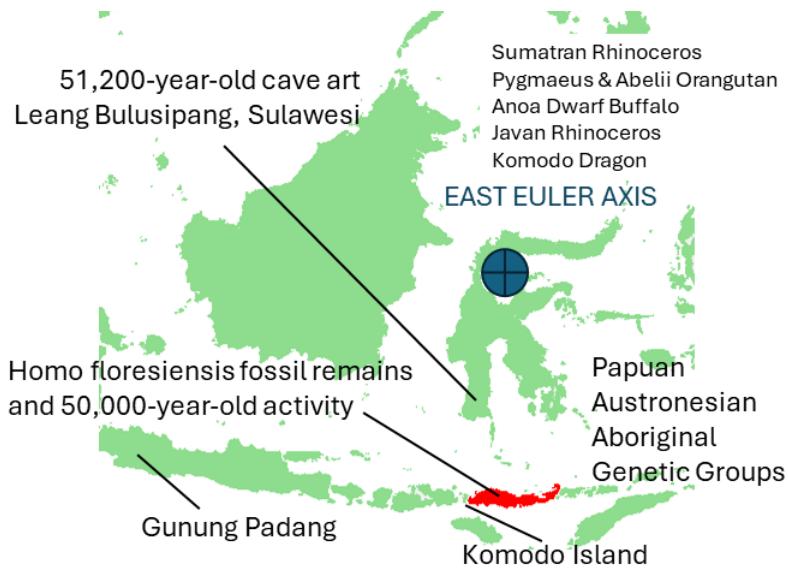
더욱이, ‘동쪽 및 서쪽 오일러 축 문디’(Exhibit J3의 녹색 화살표 벡터 및 Exhibit J4의 노란색/빨간색 ⊕ 기호로 표시된)는 각각 (0° , 121° E) 및 (0° , 59° W)에 위치하며, 지구가 일시적으로 회전하여 지리적 북극을 31° E, 14° S의 새로운 위치(Np')로 이동시키기 위한 축을 나타낸다. 이 용어는 이 특정 지구물리학적 사건에 대한 일시적 직교 회전축을 설명하는 오일러 회전 정리의 개념과 일치한다. 해양 이동으로 형성된 사막과 이 운동 사건에서 발생한 지구 표면의 줄무늬는 오일러 축 문디의 두 극과 명확히 일치한다.



크레이그 스톤은 또한 과거의 지자기 극 변위 사건이 우리가 즉시 위에서 식별한 동쪽 및 서쪽 오일러 축 자오선에서 클러스터링되었다고 지적했다. [37] 이는 우연이 아니다.

오일러 축에서의 유전적/생물학적 다양성 클러스터의 생존은 우연이 아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서반구의 범람 생존을 위한 최적의 위치는 에콰도르와 페루 안데스 산맥으로, 남아메리카에서 오일러 축 서쪽 바로 해안에 위치한다. 동쪽 오일러 축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건의 생존을 위한 유사한 위치는 술라웨시와 인도네시아의 구눙 파당에 위치한다.



아마도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굴 예술(오만이천 년 된)이 술라웨시의 Leang Bulusipang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이곳은 동쪽 오일러 축 바로 위에 위치한 해발 1800피트에 위치한 동굴이다.

아마도 이것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생존 유전적 요소들이 동쪽 오일러 축 근처에서 흐모 플로레시엔시스 형태로, 인도네시아의 탁월한 유전적 분포와 함께, 파푸아인, 오스트로네시아인, 오랑 아슬리(세망), 안다만 원주민의 가장 오래된 유전적 요소들로 나타나는 이유일 것이다. 네이처 제네틱스, 아메리칸 저널 오브 휴먼 제네틱스, 인베스티게이티브 제네틱스, 네이처에 발표된 미토콘드리아 DNA와 Y염색체 데이터를 사용한 충분하고 최근의 유전 연구들은 인도네시아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유전적으로 다양한 인구 중 하나임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전적 클러스터는 서쪽 오일러 축을 따라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아마존 부족들과도 명확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환경을 제외하고, 이 두 오일러 축 위치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전적으로 다양한(모든 종에 걸쳐) 위치이다.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의 논의가 지구물리학적 분석에서 인류의 관련된 역사와 신화로 전환되면서, 지금까지 설명된 ECDO 회전 구조가 고대 문화 전설에서 전해지는 사건들의 세부 묘사와 일치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대해 이 기사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 동안, 예를 들어:

물의 신 공공이 지고 있음을 깨달자, 그는 머리를 부주산에 들이받았고, 하늘을 지탱하던 기둥이 무너졌다. 기둥이 무너져 하늘은 북서쪽으로 기울어졌고, 땅은 남동쪽으로 이동했다.

~ 중국의 여와 대홍수 신화 [39]

실제로, 위에서 묘사된 상태 1에서 상태 2로의 전환에서, 중국은 정확히 이 방식으로 회전한다.

기자의 예견 (쿠푸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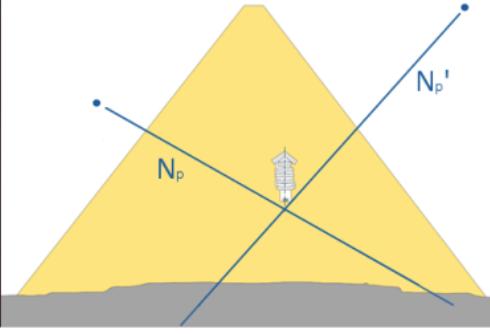
이 피라미드가 파라오 쿠푸의 묘실이라는 인기 있는 동화는 충분히 반증되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경이로움이 단순한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자는 아래에서 이러한 거대한 노력의 성과가 기념적 침묵에 감춰졌을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의 성과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최우선 과제였다. 이 기념비 자체는 모든 기술자, 감독관, 노동자에게 깊은 목적 의식을 불어넣었다. 피라미드를 짓는 것이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인류의 유산과 연속성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이 구조는 어떠한 형태로도 묘실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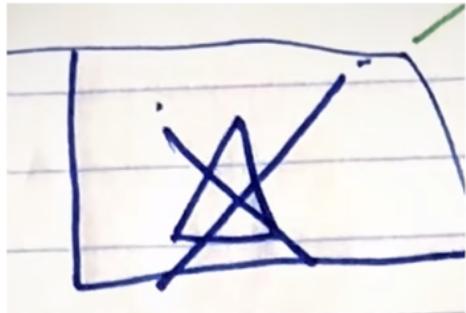
이 구조물이 다른 발열성 핵 주기와 관련된 거대한 작업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래의 상징들은 남극에서 발견된 이상한 구조물들에서 보고된 활동의 목적을 암시할 수 있다. 이 그룹이 그들의 탐구에서 성공을 거두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통제와 악의의 맥락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Coin from antiquity found in Mexico in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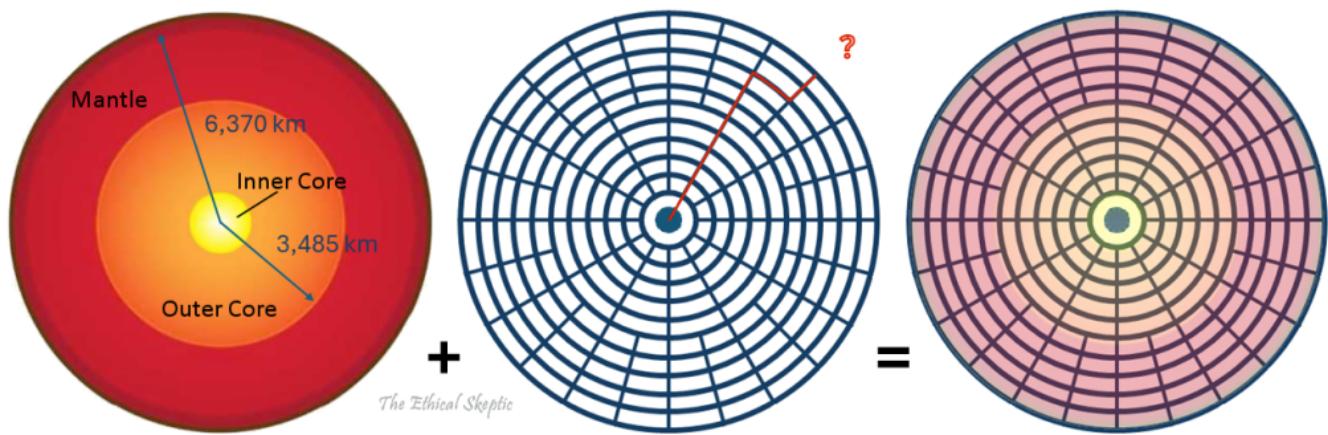
Our west perspective of Khufu King's Chamber shafts/poles



2003 Antarctica Octagon door marking - Seal Spartan 1

이미지 2 - 미 해군 LCDR Seal 'Spartan 1'의 이상한 발견 표식 – 2003년 남극의 ‘옥타곤’의 문에 새겨진 표식(오른쪽 패널). 1993년 멕시코에서 발견된 고대 동전과 일치(왼쪽 패널) – 아마도 6,000년 주기를 암시할 수 있음. 아래 논의에서 묘사된 N_p 및 N_p' 와도 일치함(중앙 패널). 왼쪽 및 오른쪽 패널은 린다 몰턴 하우의 2019년 제작물에서 발췌. 중앙 패널은 Exhibit K 아래의 동쪽을 바라보는 관점(스핑크스가 응시하는 방향과 동일).

How Did the Makers of the Coin Know This?



이미지 3 - 동전의 뒷면 – 이미지 2의 왼쪽 패널에 있는 동전의 뒷면에는 방사형 기호가 새겨져 있다. 이 기호는 이미지 3의 중앙 패널에서 재창조되었다. 동전의 비율은 지구 핵의 반경 55%와 지구 내핵의 반경 19%와 정확히 일치하며, 이는 전체 반경과의 관계에 따른 것이다. 이는 핵이 지구 전체 질량의 약 30%에서 40%를 차지하며, 사용된 상 변화, 격자, 밀도 가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동전의 제작자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위 이미지 2의 왼쪽에 표시된 동전의 뒷면에는 12개의 방사형 구간으로 나뉜 방사형 다이어그램이 새겨져 있으며, 그런 다음 24개 구간으로 나뉜다(오른쪽의 이미지 4 참조). 이 방사형 패턴은 위의 이미지 3에서 재현되었다. 이 기호를 비율에 맞게 재현하면, 이 기호는 지구 핵의 전체 몸체와의 비율에 일치한다. 아래의 가설은 이 관찰에 의존하지 않지만, 확실히 흥미롭다. 아마도 남극의 옥타곤 20피트 문에서 Spartan 1이 발견한 추가 기호는 핵과 맨틀 간의 위치 관계의 변화를 암시했을까? 아마도 최근 맨틀과의 상대적 운동에서 핵이 반전하는 것은 누군가('누구'인지는 추측하지 않겠음)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까? [40]



이미지 4 - 남극 문 기호와 일치하는 동전 뒷면 – Spartan 1이 남극 ‘옥타곤’에서 발견한 기호와 일치.

이러한 표식들이 우리가 이전 기사 Hidden in Plain Sight에서 설명한 대로, 7,000년 된 누비아 타조 알의 표면에 새겨진 세 피라미드에 대한 104° 각도 표식과 유사한가? 고대에도 쿠푸의 천체 극 관찰 기능의 원리가 잘 알려져 있었을까? 물론, 이는 단순한 추측이며, 알의 각도 표식은 단순한 우연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비아 알의 표식은 그러한 본성을 전달하고 있었다. 조각된 타격은 세 피라미드를 하늘과 관련시키는 방식으로 의도된 것이다.

우리가 중요한 경로로 돌아와 보면, 과학자와 아마추어 조사관은 왜 쿠푸 피라미드가 지구의 육지 중심에 이토록 가깝게 위치해 있는지 오랫동안 궁금해했다. [41] 그리고 북위 30도 평행선에. (독자는 천체 항법의 용어에서, 위도는 ‘평행선’이라고 불리고 경도는 ‘자오선’이라고 불린다는 점에 유의하라.) 쿠푸가 31번째 동쪽 자오선에서 명목상 위치를 계승하도록 배치된 것은 그리니치, 영국이 본초 자오선의 기준점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우연일 뿐이다.

그러나 쿠푸가 31번째 동쪽 자오선이라 불리는 경도에 정확히 배치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자오선은 현재의 북극(Np)과 제안된 대안적인 SAC-LLVP 기반 북극(Np') 사이의 진행 경로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는 위의 Exhibit F, I, J에 묘사된 자이로스코프 동역학 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만천삼백사십 년 동안 그들은 인간 형태의 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이집트에서 나타난 다른 왕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태양이 지금의 위치에서 네 번이나 떠오르지 않았으며, 지금 떠오르는 곳에서 두 번이나 쪘으며, 지금 지는 곳에서 두 번이나 떠오른 적이 있다고 말했다;

~ 헤로도토스, 이집트에 대한 기록 [42]

나는 태양과 다른 천체들이 뜨고 지는 위치의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뜨는 곳에서 졌고, 지금 지는 곳에서 떴다.

~ 플라톤, 정치가 (Politicus) [43] [44]

이것은 피라미드 내부의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특징을 고려하는 틀을 제공하며, 그들의 실제 목적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쿠푸의 삼중 관측소와 이중 104도 이상 현상에 대한 궁금증 이 구조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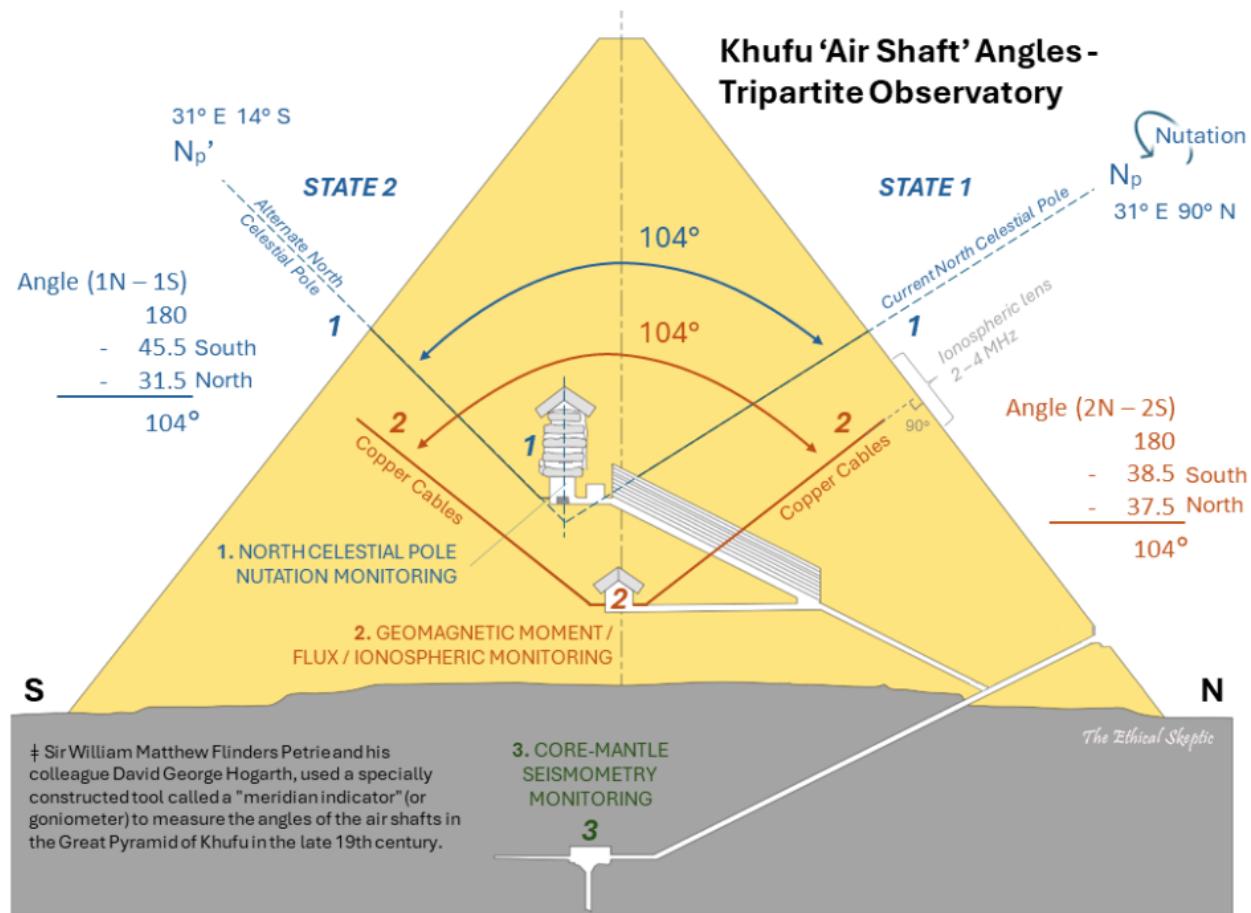


Exhibit K – 쿠푸 피라미드의 왕의 방과 여왕의 방에서 확장되는 통로 사이에는 104도의 간격이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통로들은 공기 공급이나 특정 별을 관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쿠푸 피라미드의 세 방이 지구의 회전 안정성을 모니터링하는 정교한 센서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추정한다. 동일한 모티프가 2003년 미 해군 씰 팀 Spartan 1이 남극에서 발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한 팔각형 구조물의 20피트 높이 문 오른쪽 상단에 표시되어 있다. [45] 우리는 이것이 삼중 관측소였다고 추측한다(가설의 주요 경로와는 관계없음):

1. 왕의 방 - 천체 극 세차 운동 모니터링: 북쪽 천체 극 모니터링 통로는 특정 천체 기준을 향해 있으며, 피라미드 표면으로 직접 연결되고, 기자의 N_p(상태 1)과 N_{p'}(상태 2)를 정확하게 가리킨다. 이 통로들은 천체 북극의 세차 운동(흔들림 및 이동)을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되었다(아래 Exhibit K3

참조). 왕의 방 북쪽 통로는 어떤 구조를 피하기 위해 중간에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여왕의 방 북쪽 통로와 유사하게 직접적인 광학적 관측에 사용될 수 없다. 대신, 이 통로는 천체 북극을 직접 향하는 피라미드 표면에서 종결을 요구하는 모니터링 장치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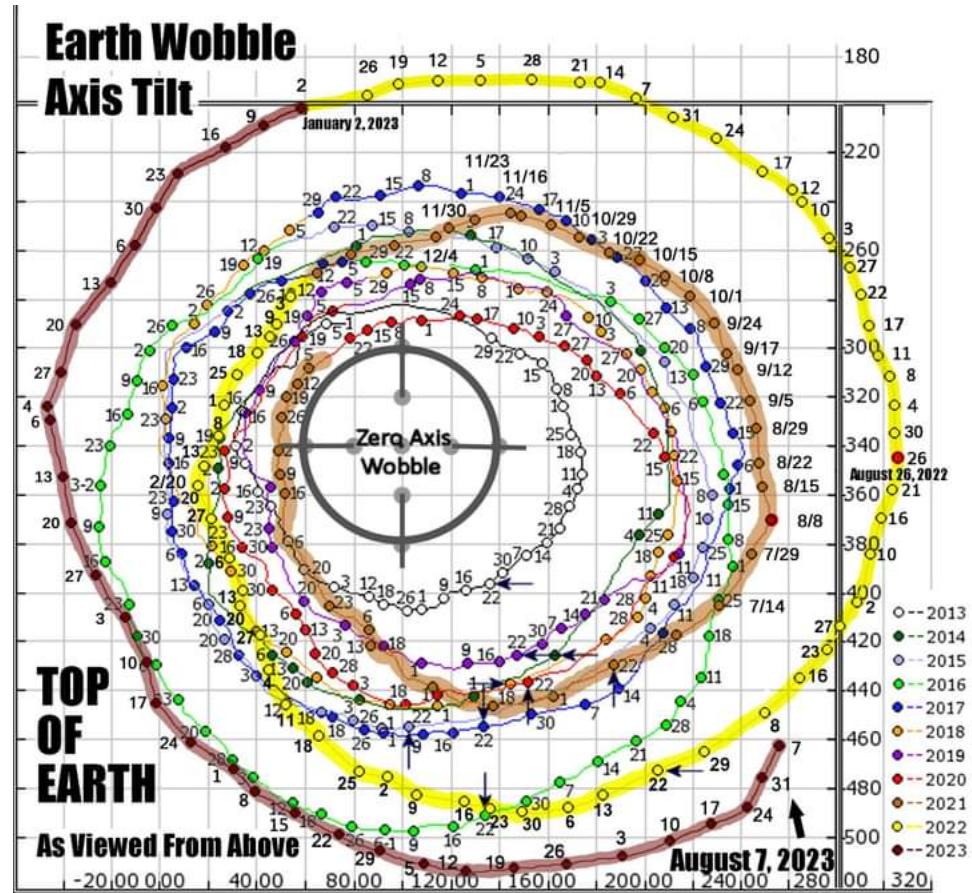


Exhibit K3 – 지구의 천체 북극 세차 운동(흔들림과 이동). 지구의 지자기 모멘트가 약해지면서, 천체 극의 세차 운동이 커지고, 전 세계 해양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우리는 그랜드 갤러리에서 중력 썰매가 작동하여 왕의 방의 메커니즘을 이동시켜 구조 전체를 구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가설의 주요 경로와는 관계없음). 측면 벤치에 있는 선형 미끄럼 흄집은 썰매가 실제로 그랜드 갤러리에서 작동했음을 나타낸다. 갤러리는 피라미드나 왕의 방의 돌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 어떤 응용에서도 들어 올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장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80톤의 돌을 그랜드 갤러리로 옮기는 것이 그랜드 갤러리를 사용하여 추가로 21미터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다. 몇 개의 돌을 위해 그곳에만 존재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자체적으로 5에서 16톤의 돌로 이루어짐)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모든 곳에서 논평이나 피라미드 변경 없이 수행된다. 썰매 이동 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복합 요소는 그 자체로 갤러리만큼이나 거대한 조립품이 필요했을 것이다. 대신, 그랜드 갤러리의 설계는 무게로 구동되는 괴종 시계와 같은 닫힌 중력 위치 에너지 시스템의 일환이었다.

왕의 방 바닥, 벽, 천장과 그 스트레스 완화실의 연속 천장에 사용된 화강암은 열의 좋은 전도체이다. 이 넓은 방 구조의 이러한 구성 요소에 사용된 화강암은 열을 왕의 방에서 위로,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멀리 퍼뜨릴 수 있다—만약 이곳이 모든 세 고전류 센서 구성 요소의 전력 생성 및 분배의 중심이라면. 스트레스 완화실의 석회암 벽은 비교적 열 전도율이 좋지 않다($1.3\sim2.4 \text{ W/m}\cdot\text{K}$), 따라서 이 구조는 일종의 열 굴뚝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왕의 방에 있는 화강암 베이비 비정상적인 변색을 보인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만성적인 고온에 노출된 것을 암시할 수 있다(크리스토퍼 던의 "기자 발전소" 연구에 따르면). [47]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의 가설은 그러한 추정에 기초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력 중심은 여왕의 방에 위치한 다음 센서 구성 요소와 분리되어 축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2. 여왕의 방 - 지자기 모멘트 및 전리층 모니터링: 구리 케이블 쌍(Exhibit M에서 볼 수 있듯이)을 통해 지자기 모멘트/자속장 방향 모니터링—이 구리 케이블은 전 이집트 고대 유물 장관 Zahi Hawass에 의해 부분적으로 암수되었다고 한다. [48] [49] 이 구리 케이블은 피라미드 외부로 완전히 이어지지 않는, 막혀 있는(‘공기’나 ‘별’을 위한 것이 아님), 피라미드 구조 자체를 향해 있는 통로 안에 있었다. 피라미드의 석회암 블록은 구리 케이블을 절연하고, 불필요한 전자기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자연적인 절연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면서도 임무에 중요한 지구의 지자기 주파수에는 투명성을 허용했다. 피라미드의 하늘을 향한 면과 90도의 상대적 각도(Exhibit K에서 각각으로 주석된 것)는 지자기 모니터링 시스템의 감도와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기 공명을 집중시키고 채널링하도록 설계되었을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전리층 모니터링 안테나였을 것이다. 다음이 적용된다:

왜 통로의 각도/종단점이 두 개의 다른 세트로 나뉘어져 있는가? 왜 여왕의 통로에만 구리 케이블 쌍이 있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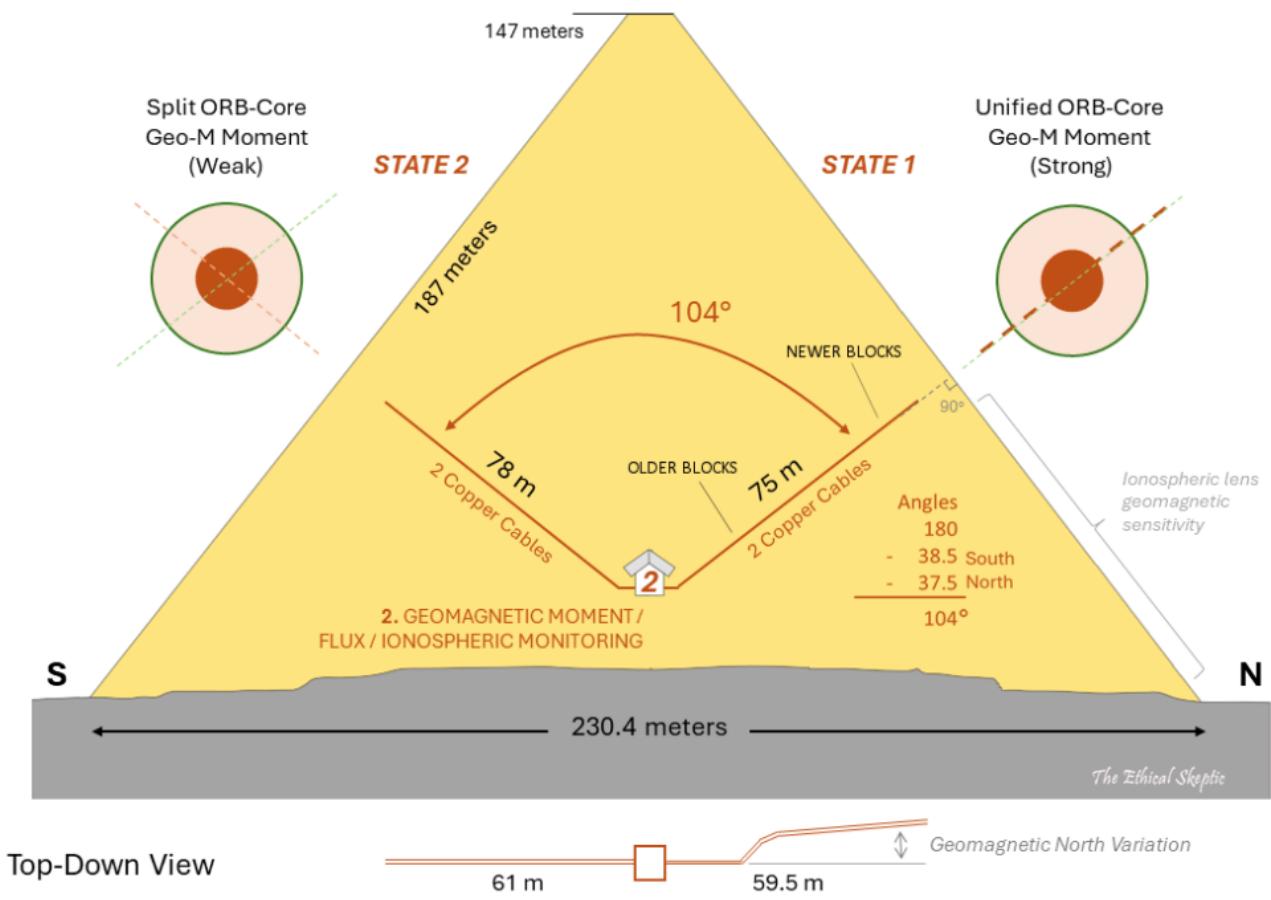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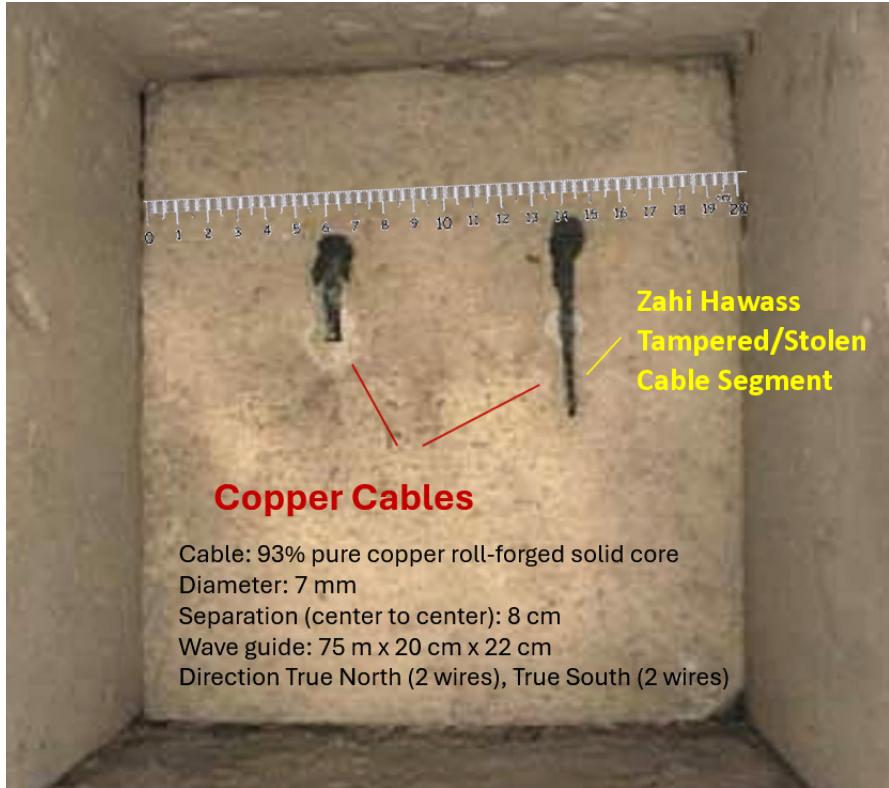


Exhibit K2 – 결론: “0.664에서 5.34 MHz 범위의 감도를 갖춘 고출력, 저SWR 듀얼-디폴 안테나는 지자기 및 전리층 조건 모니터링에 적합하다.” 핵의 지자기 모멘트의 차등 방향은 상태 2 동안 맨틀의 지자기 모멘트에서 104도 정도 차이가 있다(Exhibit J2 참조). 따라서 안테나 ‘V’의 104도 확산. 북쪽 통로는 구조물이 지어지는 동안 기자의 지자기 북쪽과 더 잘 정렬되도록 수정되었다(Top-Down View에 ‘variation’으로 주석됨).

구리 케이블의 잔해(오른쪽 사진 클릭)는 1990년 3월 Gantenbrink Upuaut 프로젝트에 의해 여왕의 방 남쪽 공기 통로에서(후에는 북쪽 통로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케이블은 오랫동안 도굴꾼들에 의해, 1872년 Waynman Dixon이 북쪽 통로 바닥에서 발견한 Dixon 유물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Zahi Hawass의 은폐 행위(추정)에 의해 제거되었다. 이 문 케이블의 이미지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Hawass는 Djedi 프로젝트 동안 문 압력 테스트 팀이 오른쪽 케이블을 제거하도록 했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이 진행되었으며, 연구팀은 구리 케이블 잔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고고학계에서도 아무런 항의가 없었다. 이것은 내가 고고학을 거의 존중하지 않는 이유의 전형적인 예이다.



아래에서 독자는 Hawass가 왜 이 구리 케이블을 압수하고 그 기록을 방지해야 했는지(추정) 그 이유를 목격할 것이다—이 구리 케이블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50]

아래의 Exhibit K2b에서, 우리는 케이블이 통로 끝 돌에 어떻게 고정되었는지에 대한 종단면 도면을 보여준다. 이 고정 방식은 케이블이 팽창(활성 전류로 인한 가열 시)과 수축(비활성 상태 시) 동안 돌에서 밀려 나오거나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했다.

2014년, 전 이집트 고대 유물 장관이었던 고고학자 Zahi Hawass는 이집트 유물 도난 혐의로 기소되었다. [Hawass]가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의 [목록] 중 가장 특이한 유물은 쿠푸 피라미드에서 나온 고대 구리 전선이었다. ~ Riddle, VineMontana TV

이집트 당국과 Hawass가 그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합의한 후, 인터넷에서 이러한 물품의 목록은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 케이블의 일부가 여전히 통로에서 5미터 아래 바닥에 놓여 있는 채 발견되었으며, 오래전에 가해진 힘으로 인해 끝 돌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였다. [51]

위 사진과 Exhibit K2b에서 볼 수 있듯이, 돌 표면에서 두 개의 구리 구성 요소가 드러나 있다. 첫 번째는 돌에 구리를 비둘기 꼬리 모양으로 깎아내어 전선 끝을 고정시키고 돌의 뒤쪽에서 너무 팽팽하게 당겨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두 번째는 구리 케이블 자체로, 이제 오른쪽 구리

케이블의 비둘기 꼬리형 주형 위에 걸려 있다. 동일한 매달린 케이블과 비둘기 꼬리형 고정 장치는 북쪽 통로의 돌에서도 볼 수 있다. 북쪽 통로 왼쪽 케이블의 클로즈업에서 비둘기 꼬리 모양으로 성형된 구리 피팅이 떨어져 나가고 구리 케이블이 그 자리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고정 설계에서는 구리 케이블을 돌에서 빼낼 수 없고, 돌을 통해 너무 팽팽하게 당길 수도 없다. 케이블은 돌을 통해 양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정밀하게 설계된 중요한 구성 요소에 적합한 엔지니어링 솔루션으로, 장식적이거나 일회용 기능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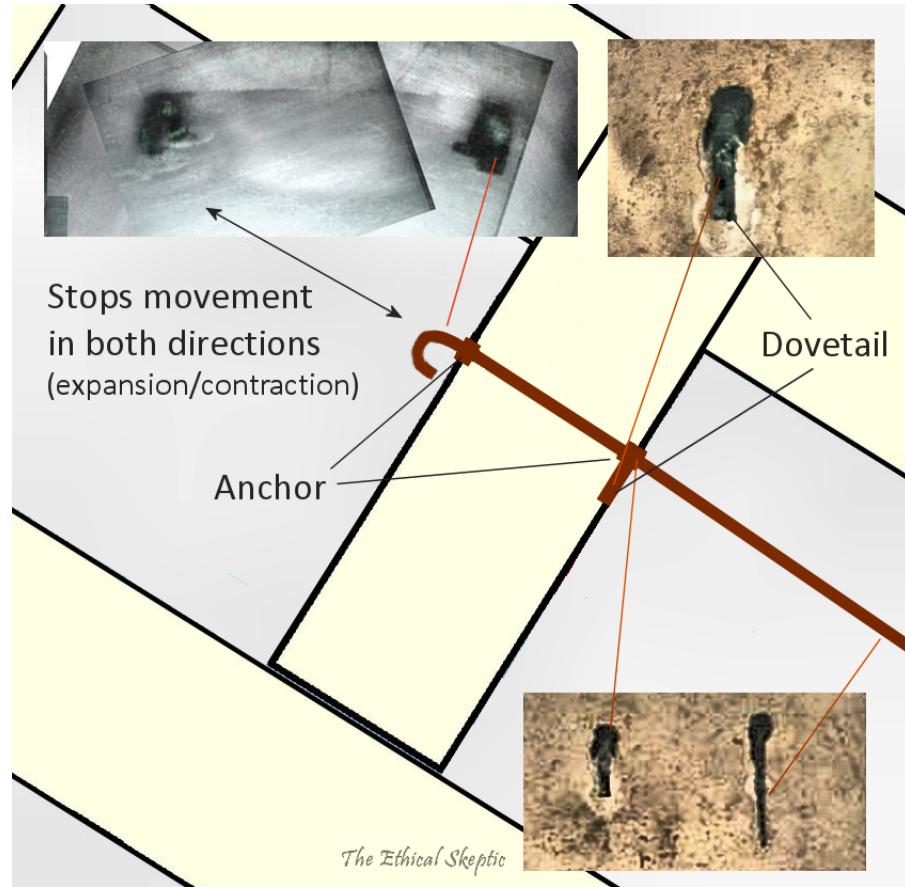


Exhibit K2b – 통로 끝 문과 팽창/수축 고정, 비둘기 꼬리형 연결 및 정지의 종단면.

이 피팅이 단순히 돌의 하중을 견디기 위한 것이라면, 더 싸고 강한 청동으로 만들었을 것이며, 부드러운 구리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 피팅은 돌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다. 돌 전체 표면에 걸쳐 석재 절단 베벨을 만들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제작하기도 쉬웠을 것이다. 오른쪽 케이블에서 볼 수 있듯이, 구리의 길이는 돌 표면의 고정 비둘기 꼬리 모양을 훨씬 넘어 확장되었다. 따라서 이 구리 케이블은 이 돌 표면에서 비둘기 꼬리 모양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케이블 끝부분은 Djedi 프로젝트가 2011년에 문을 뚫고 들어가면서 분리될 때까지 제자리에 남아 있었다.

통로 문 구리 피팅을 이해하기 위한 주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비둘기 꼬리 모양의 절단 주형은 일회용 기능(예: 손잡이 내리기 또는 단순한 장식) 위해서는 불필요하다. 이러한 절단은 반복적이거나 장기적인 동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구성 요소를 고정하거나 앵커링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가변적인 열 및/또는 전류 조건에서 팽창 및 수축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속 부품을 고정한다. 이 돌과 구리 장치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특정 기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우리는 북쪽 통로의 천장 마지막 10미터에 새롭고, 파티나가 없으며, 정교하게 깎인 석회암 블록이 사용되었음을 주목한다. 이 구간 이전에는 이전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번의 금속 막대 조사 시도에 의해 굵힌 어두운 파티나를 가지고 있다. 여왕의 남쪽 공기 통로와 유사하게, 이 통로는

상당한 시간 차이를 두고 여러 단계로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52] ‘묘실’이라는 내러티브의 확인 편향에서 벗어나 이러한 발견을 철저히 조사하는 데 집중한다면, 이 추론적 증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순히 사진을 찍고 “이건 정말 신비롭지 않은가…”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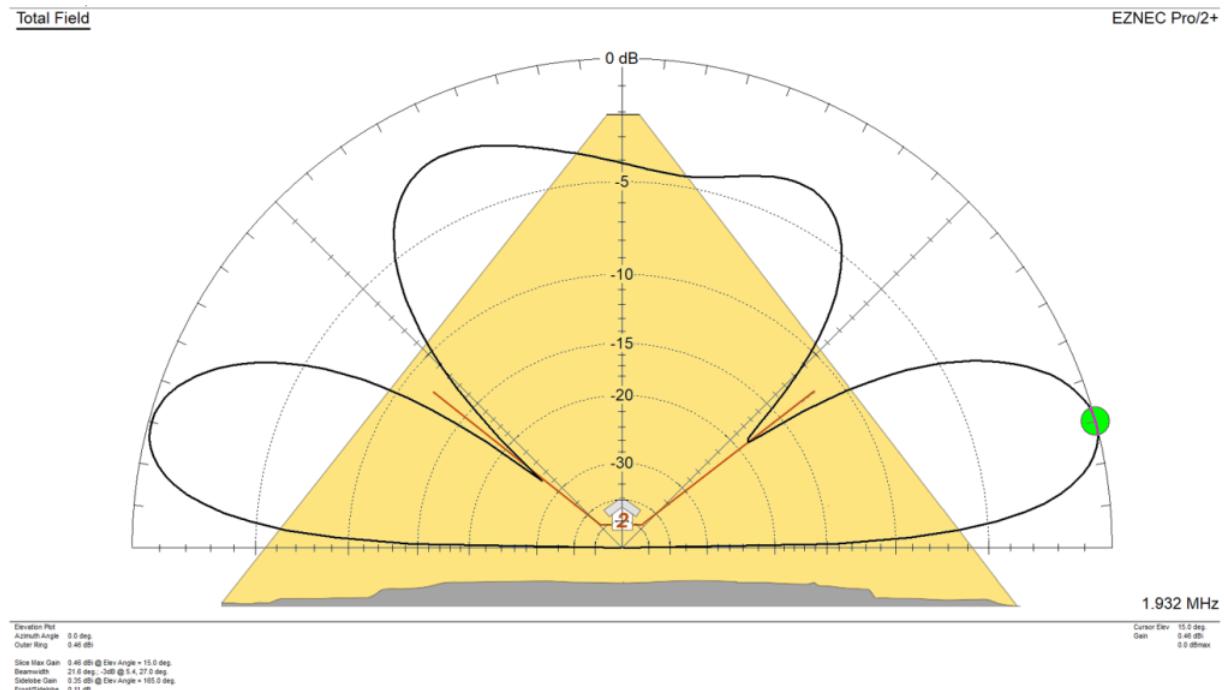
라디오 주파수 성능 분석 결과

군 정보 동료이자 통신 전문가이며 평생 친구인 사람이 최근에 나에게 군사 및 해상 통신에서 ‘V’ 구성의 전방향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군용 안테나 엔지니어링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라미드의 구리 케이블은 독립적인 쌍으로 연결되어 있었고(아마도 차동 및 편광 신호 감지 모드로도), 통로 끝 둘 뒤에서 독립적으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 남쪽 통로 78미터 x 2
- 북쪽 통로 75미터 x 2

공진 파장 = 150 (75×2) 미터 @ $\lambda/2$ Dipole = 주파수 1.932 MHz, 1.27의 정재파 비율, 그리고 지상파 메인 로브는 지평선 위 15 도 (위의 오른쪽 이미지 인셋에 표시된 보고서 출력). $5.34 / 4.29 / 3.11 / 0.644$ MHz (MF/HF)에서 이차 공진이 존재한다.



우수한 지자기 모니터링 감도 로브가 1.932 MHz와 그 고조파(EZNEC Pro 2+)에서 형성되며—두 개의 이중 케이블, 고전류 안테나가 여왕의 방으로 다시 연결되는 축 지상파 및 공중파에서 나타난다.

석회암은 전자기(EM) 신호의 차단제 역할을 하지 않으며, 특히 $0.1\sim30$ MHz 주파수 범위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신 이러한 신호에 대해 상대적으로 투명하여 최소한의 감쇠로 신호를 통과시킨다. 또한 석회암은 전기 전도체가 아니다. 이는 고전류 전기 케이블을 위한 훌륭한 절연재 역할을 한다. 8cm 간격으로 나란히 놓인 두 개의 7mm 단일 코어 구리 라인은 고전류, 저전압, 저 SWR을 가진 단일 활성 안테나로 작동하여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는 데 적합하다. [53] [54]

결론: 0.664 에서 5.34 MHz 범위의 감도를 갖춘 활성 고전류, 저 SWR 안테나는 지자기 및 전리충 조건 모니터링에 적합할 것이다. 높은 EM-전류장 필드는 피라미드의 Tura 석회암 표면의 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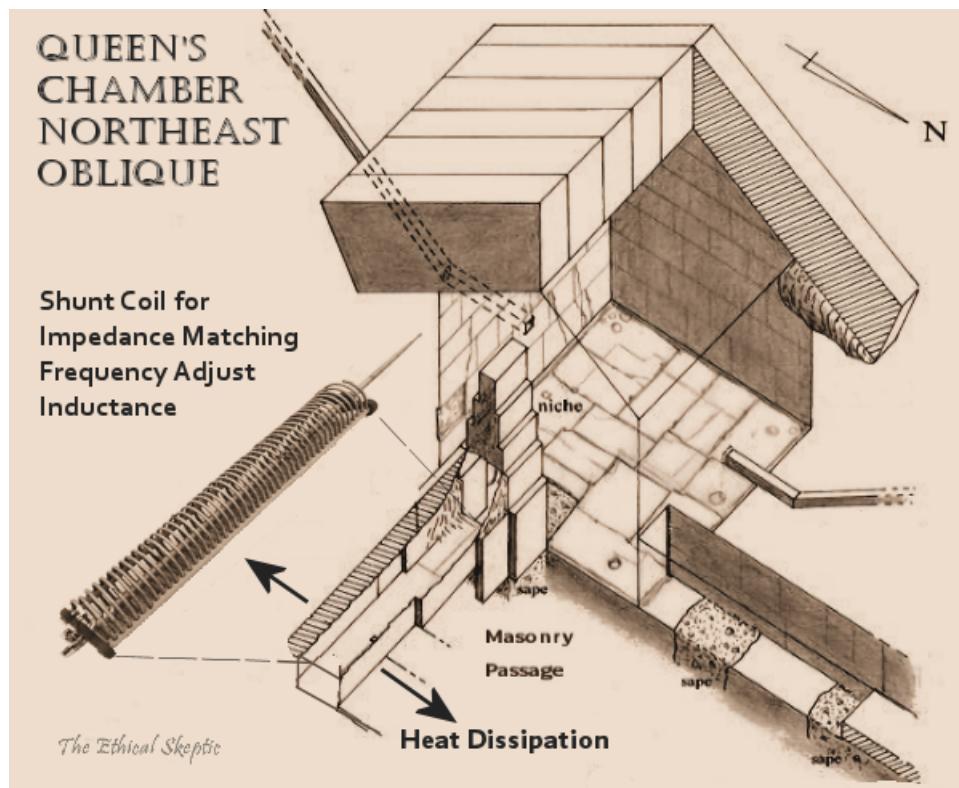
특성을 활성화하여 활성 수신 증폭기로 작용하게 할 것이다.

적용 가능한 주파수 범위:

- 지구의 지자기 모멘트(ELF) = 3~30Hz
- 대기/전리층(VLF) = 0.3~3 MHz
- 슈만 공명 = 7.83 Hz
- 지자기 맥동 = 1 Hz~1 MHz

따라서, 이러한 전선이 지구의 지자기 모멘트(ELF) 및 그 동역학을 전리층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의 일부였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55]

이 기능은 시스템의 활성 전력이 수평 및 전자기장에 수직인 션트 코일에 의해 제어되고 주파수가 조정될 때 특히 실행 가능하며, 이 코일은 방의 동쪽을 향한 틈새의 동쪽 수평 통로로 확장되어(고전류), 석회암 블록의 열전도 효율이 여왕의 방 전체의 온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 이를 예측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남쪽 통로 바깥과 위쪽 석회암의 상태를 조사했으며, 실제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여왕의 방 틈새 위와 출구, 그리고 여왕의 방 천장까지 이어지는 소실된 석회암이 틈새 근처에 집적되어 서쪽으로 이동하며 천장 능선을 따라 확산되는 것이 확인되며, 이는 고대에 고온이 존재했음을 입증한다. 가열된 석회암 표면은 열분해 및 부분 용융을 겪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광택 있는 짙은 갈색 유리질로 변할 수 있다(아래 Exhibit K2c 참조).[56] 이 짙은 화재로 인한 것이 아니며, 유리질로 변한 표면에는 결합된 연소 재나 화학 반응 잔류물이 없다. 이 짙은 갈색의 ‘표범무늬’(나의 용어)는 이산화탄소(CO_2)의 방출과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색이 변할 수 있는 석회암의 불순물 때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틈새 입구 바로 위에 있는 돌 내부의 ‘녹는 줄무늬’는 부드러운 석회암이 고온에서 분해되어 ‘생석회’로 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57]

이 전력을 사용한 사람들은 전압의 유용성(옴의 법칙: $V = IR$)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력을 장거리로 전송할 필요가 없었다(이것은 높은 전압을 요구했을 것이다). 따라서 전력은 고전류, 고저항이었으며, 인근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장거리 응용을 위해 전력을 생성하는 사람들은 저항과 열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장거리 전력 전송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이 전력은 피라미드 내부에서 직접 사용되었다.

결국, 가르침받은 동화는 버려야 한다—이것은 무결성과 성숙의 전제 조건이다.



Exhibit K2c - 비연소 열의 고온 – 수평 통로 출구 바로 위치한 생석회 분해가 가장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며, 열이 틈새 꼭대기로 상승하면서 낮은 온도의 표범무늬로 변한다. 이것은 화학 반응이나 연소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놀라운 수준의 열 노출을 나타낸다.

3. 지하실 - H-층 P-파 초저주파 모니터링: 심부 지진계/핵-맨틀 H-층/LLVP 동역학 모니터링 유체 기반 센서. 지자기 모니터링과 유사한 효과로, 피라미드 구조는 표면, 장치 또는 기타 인근 활동에서 발생하는 잡음 없이 지진 활동과 지구 내부 동역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하실로 지진 신호를 격리하고 집중시키도록 최적화되었을 수 있다. 이 방 자체는 물을 사용하여 관련 초저주파수를 감지할 것이다. [58]

또한, 방 내부의 암반 절단된 남쪽 통로가 5~10 Hz 범위의 기본 주파수로 초저주파를 생성하거나 수신하는 공명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방에서 일정한 저주파 소음이 들리거나 감지될 수 있다는 독립적 판단이 있다. [59] [60] 이것은 Exhibit K3 아래에 나와 있는 피라미드 자체의 설계와도 잘 일치하며, 5 Hz로 최적화되어 있다.

대피라미드의 규모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왜 물에 침식된 방을 그 아래에 묻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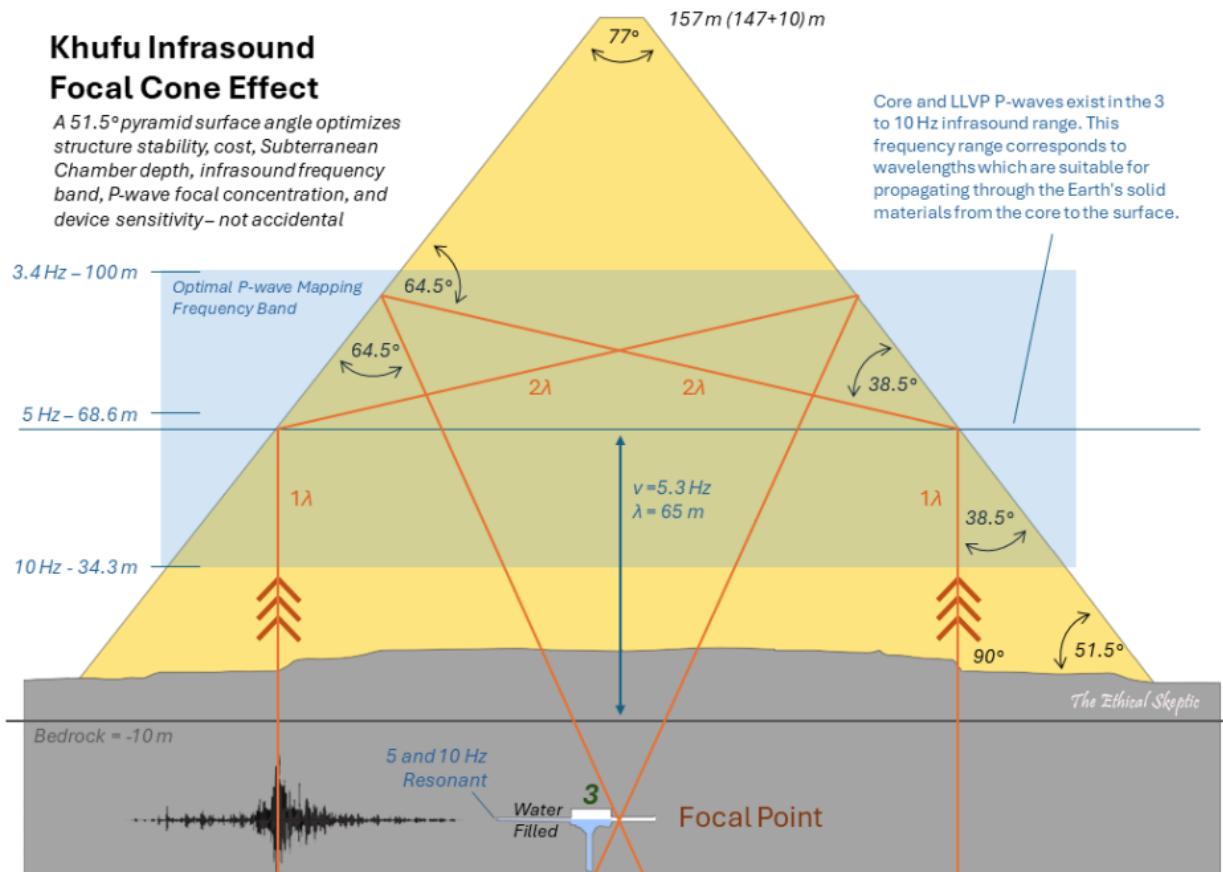


Exhibit K3 – 30~70미터의 파장 범위(지구 P-파)를 갖춘 초저주파는 H-층에서 지표면까지의 전파에 적합하며, 이는 피라미드 내부에서 마치 마이크로폰의 포물선 반사기처럼 반사될 것이다. 그러한 초저주파의 초점은 지하실의 위치와 일치한다. 5~10 Hz 범위는 지구 내부, 특히 핵에서 나오는 잠재적 소음을 포함한 초저주파 신호를 감지하기에 매우 적절하다.

이것은 또한 대피라미드의 규모가 그 기능에 왜 중요한지 설명한다. 피라미드의 경사각이 줄어들면 유체로 채워진 방은 더 깊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경사각이 너무 가파르면 구조가 붕괴될 위험이 있으며, 비용이 비선형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구조의 크기가 더 작아지면 관련된 파장을 효과적으로 집중시키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설계는 측면 경사, 지하실의 깊이 및 전반적인 도구 효과 사이의 균형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카프레 피라미드를 제외한 모든 다른 피라미드는 카프레의 중요한 기능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천체 극의 단기 세차 운동 역학, 지구 자기장의 강도, 비대칭성 및 방향, 그리고 피라미드에 의해 증폭된 H-층/LLVP 지진 소음을 지하실에서 모니터링하면 동적 통합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다. 피라미드의 모양 자체는 일종의 수신 콘 역할을 하여 지구를 향해 아래쪽으로 뺀어 있어 이러한 모니터링 기능을 향상시켰다. 이 시스템은 세 가지 구성 요소 모두가 동시에 이상 신호를 나타낼 경우, 중요한 지질학적 사건이 시작됨을 나타내는 더 정확한 추론을 허용할 것이다.

이 통합 시스템은 피라미드의 ‘관측소’ 부지만을 기반으로 하는 원래의 기반암층에 장착되어 있으며, 전체 건물에 걸쳐 있지는 않다. 이 방들은 함께 고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며, 이는 알려지지 않은 존재, 아마도 신화 속 아눈나키 자체가 다가오는 대홍수와 같은 중요한 지질학적 및 회전 사건을

예측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인간에게 이 사건을 숨기기로 맹세했다. [65]

이러한 기술의 존재가 고대 외계인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다는 우리의 제안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두 번째 기사에서 피라미드를 인간이 건설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했다. 반면, 지금까지 우리가 쿠푸의 목적에 대해 과학으로 송배해온 것은 터무니없는 어린이 동화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인류는 이 건물에 대해 모욕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에 지쳤다. 이 가설이 불편하거나 당신의 우월한 믿음에 도전한다면, 성숙한 인간처럼 이 증거를 다루고, 진리의 지상파 심판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하라.

통로의 비밀

그러나, 두 세트의 통로가 단일 목적만이 아니라 이중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위 Exhibit K에 나타난 이미지에서, 왕과 여왕의 방 각각에서 특정 각도로 외부로 올라가는 ‘공기/별 통로’에 관한 부분에서, 이 통로 쌍 중 하나는 북쪽을 직접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남쪽을 직접 가리킨다. 이러한 정밀한 정렬은 단순한 환기를 위한 것이 아님을 시사하며, 이러한 특별한 설계에 들어간 상당한 비용과 공학적 노력이 단순한 공기 통로용이었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쉽게 세울 수 있고(더 중요한 것은,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 제거될 수 있는) 수직 방향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공기 통로였다면 말이다. (참고로, 이 기사에서 7N과 7S는 ‘세트’의 통로로, 7N과 10N은 ‘쌍’의 통로로 지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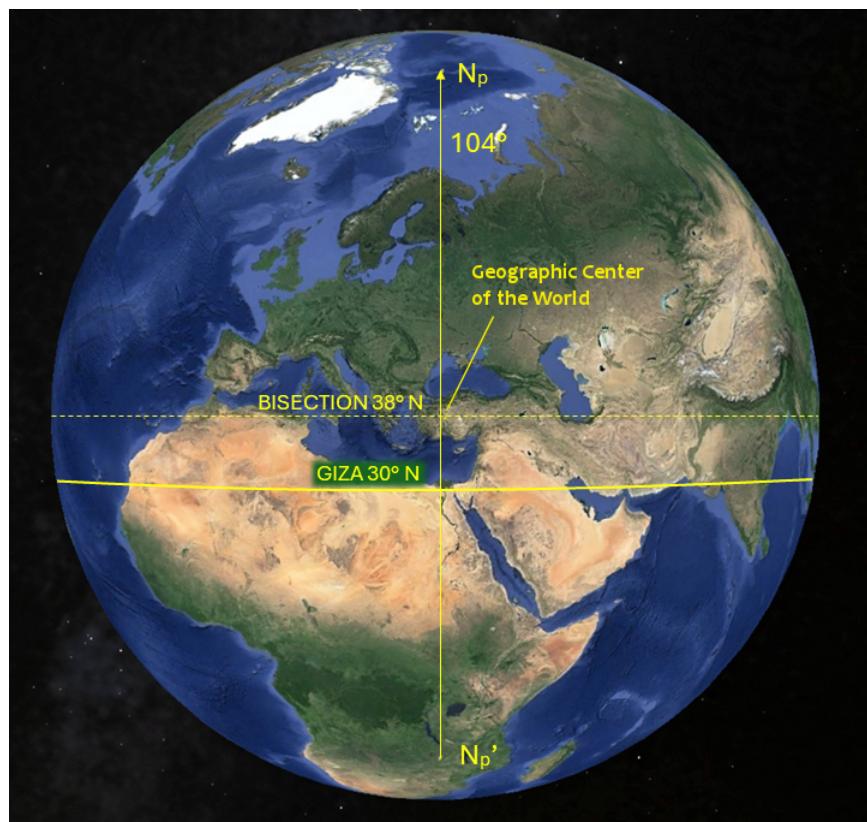


Exhibit H2 – 38도 북위의 세계의 지리적 중심과 30도 북위의 기자 단지가 Dzhanibekov 회전에 따른 Np에서 Np'로의 자오선과 관련하여 표시된다.

또한, 이러한 통로 입구가 각 방 내부에 낮게 배치된 것은 공기 흐름을 촉진하는 데 비효율적이다.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당한 공학적 투자와 노동력이 부적절한 공기 흐름 설계로 여겨질 수 없을 만큼 너무 의도적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별 통로’의 중요성은 단순히 특정 별과의 정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통로들이 세트로 이루는 각도—104도—에 있으며, 각 방의 지평선

각도를 보충하여 180도를 이룬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통로 세트(왕과 여왕의 통로 세트)가 정의하는 두 각도가 Exhibit H2에 정의된 두 중요한 위치: 기자 고원과 세계의 지리적 중심에서 본 Dzhanibekov 회전과 일치한다는 것이다(에라토스테네스 실험이 유사한 발견법을 적용하는 곳을 참조). 이러한 두 개의 중재된 차동 각도는, 특정 별과의 직접적인 측정이나 일치보다, 이 기념물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통로의 비밀

각 통로 쌍은 동일한 천문학적 기준점에 고정되어 있으며, 두 개의 다른 지구 회전 방향(N_p 와 N_p')에서의 천구 북극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두 개의 다른 지리적 위치(Giza와 세계의 지리적 중심)에서 고정되어 있다. 지리적 위도의 8도 차이는 메시지를 인증하는 열쇠의 일부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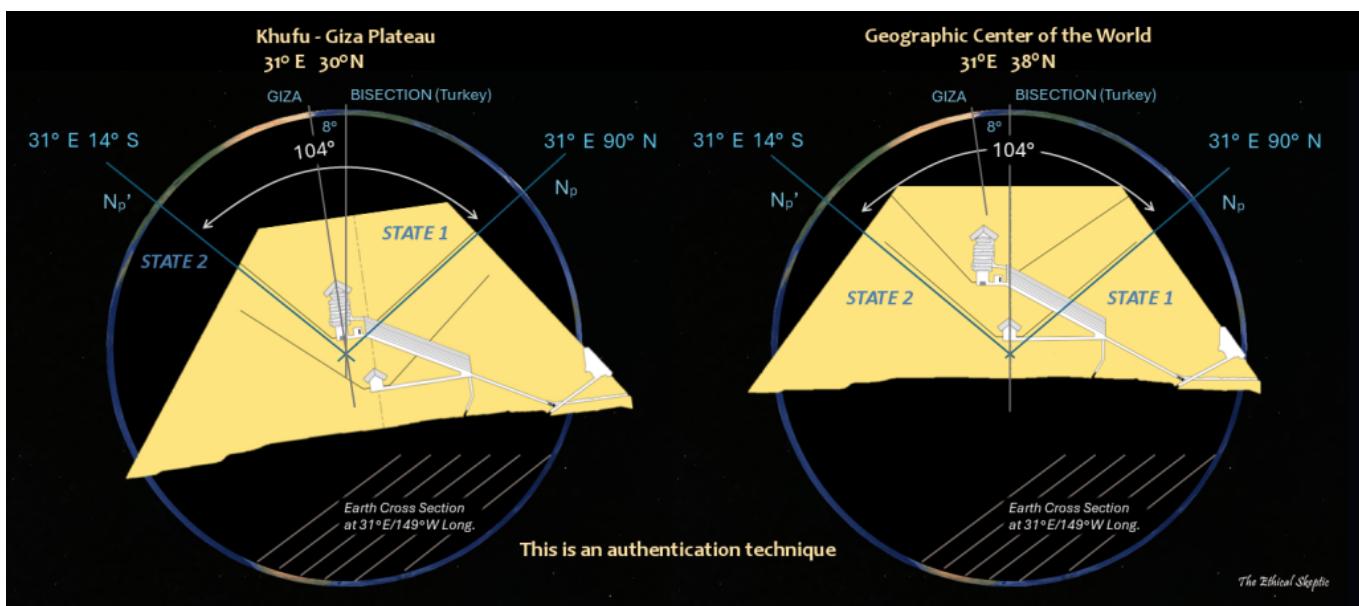


Exhibit L – Mediated Dzhanibekov 회전 각도에 맞추어 정렬된 Khufu 통로 – 터키의 이분할 위도와 기자 모두에서. 개념적으로, 여기에서 피라미드 건설자들은 왕과 여왕의 방 통로를 사용하여 N_p (상태 1)에서 새로운 극 정렬 N_p' (상태 2)로의 변화를 구분하고 인증했다. 오른쪽 정렬이 Dzhanibekov 회전을 이등분하고 세계의 지리적 중심인 31.4° 동경과 38.4° 북위에 정확히 위치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통로의 복제와 오프셋 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시간대에 걸친 천구 북극 위치의 변화를 인증하는 것이다. 이는 단일 통로 세트로는 전달될 수 없는 지식이다. 또한, 합의되지 않는 통로 조합으로는 절대로 전달될 수 없다.

Khufu 피라미드 내부의 기반 관측소 건설자들은 Giza(왼쪽)와 터키(오른쪽) 두 개의 다른 지리적 위치에서 이 원칙을 나타내어 지구의 자름에 대한 매우 정교한 지식을 나타냈다. 통로의 복제와 오프셋 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시간대에 걸쳐 천구 북극 위치의 변화를 인증하는 것이다. 이는 단일 통로 세트로는 전달될 수 없는 지식이다. 또한, 이 암호화된 메시지는 신성한 군대나 그들의 질투심 많은 신에 의해 해손되거나 해체될 수 없으며, 의로운 지식으로 침묵하게 되거나 불타거나 매장되거나 자연의 요소에 의해 침식될 수 없다.

나는 이 구조물을 나의 위대함을 위한 기념물로, 나의 영역을 찬양하기 위해, 혹은 나의 유해를 위한 안식처로 세우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자만심이 자신의 이름조차 이 거대한 기념비에 한 번도

새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니, 우리는 너희의 조상이다. 오, 인간이여, 너희가 이 가장 깊은 비밀을
열어젖힌 지금, 너희는 이제 Utnapishtim의 시대와 같은 시대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했음을 알아라.

너희는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림의 형태로 전달하지 않았는지 물을 수 있다—이 기념물이
바로 그 그림이다. 우리는 이 관측소를 수백만 개의 돌 아래에 묻었으며, 엄청난 재산과 셀 수 없는
목숨의 대가를 치렀다. 이 유산이 다시는 씻겨 나가거나, 지워지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희의 포획자들이 보여줄 게으름, 탐욕, 교활함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
기념물은 우리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오, 무지의 자녀들이여, 너희의 장난감과 궤변에
눈이 멀어버린 너희여—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피라미드 내부에 특정한 목적을 암시하는 표시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모든 가설은 이 문제를 겪고 있다. 이 건물의 어떤 제안된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이 방들 내부에 원래 보관되었고 명백히 보호되었던 모든 것이 나중에 침입자들에
의해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침입자들은 접근 가능한 모든 표시를 지웠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전 기사인 Hidden in Plain Sight에서 언급한 것처럼 붉은 황토색 표시를 위조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표시가 없다는 것은 무지에 대한 항소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무의미하다.

물론, 건설자가 이러한 접근할 수 없는 통로 중 하나에 건설 당시의 극 방향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표시를 했더라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분명히 이 정도의 정교함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정보를
표시한 유물을 남길 필요성을 예상했을 것이다. 신™이 지울 수 없고, 과학™이 반박할 수 없는 위치에
설정된 것 말이다. 인내심을 가져라, 독자여, 그러한 단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돌이 말할 수 있다면

여왕의 방에서 위쪽으로 뻗어 있는 별/공기 통로 중 하나에는 Upuant Project에서 촬영한 비상형 문자
표기가 있다.[66] 천장에는 이 통로를 끝내는 블록 바로 전의 마지막 돌에 하늘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 예술적 표현에는 소북두성, 대북두성, 용자리, 도마뱀자리, 목자자리, 세페우스자리,
카시오페아자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특정 하늘 부분과 그 방향을 명확히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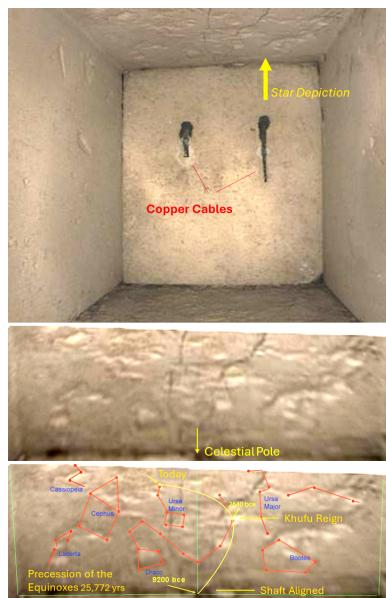


Exhibit M - 여왕의 방 별 통로 끝부분 – 이 별자리 표는 통로의 천장에 있는 마지막 돌에
새겨져 있다. 춘분 전진에 따라, 그 표는 기원전 9200년에서 9600년 사이의 기자 스카이라인을
묘사하고 있다. 게다가, 이 표기는 남쪽을 향한 통로를 맞추는 데 사용된 북쪽 하늘의 묘사이다.

돌 자체의 묘사는 진북을 중심으로 하여, 돌 프레임의 가장 아래 중심에 천구 북극이 고정되어 있다. 마치 이 특정한 돌이 매일 밤 특정 별을 ‘측정’(항해자가 특정 별로부터 위치선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하여 다음 날의 작업을 진북에 맞추기 위해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 (정렬 가이드가 없을 때). Exhibit N 아래에는 이 기능적 실습이 개략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는 건설 현장 감독관의 기발한 발상이라고 생각되었다.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은 이 북쪽 하늘 묘사가 나타내는 시간대이다. 특히, 이 묘사는 현재 북극성(Polaris)에서 크게 벗어나 있으며, 이는 충분 전진 때문에 예상되는 바지만, Khufu 시대(기원전 약 2540년) 당시의 천구 북극 위치에서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Exhibit M의 하단 패널에 묘사된 것처럼 Draco 꼬리 끝부분에 위치).

이 묘사는 별 통로의 건설 시기가 기원전 9200년에서 9600년 사이였음을 시사하며, Exhibit M과 Exhibit N을 비교하여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조각에 표현된 많은 별들이 기원전 2540년에는 지평선 아래에 있었고, 따라서 그 시대의 관찰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기원전 9200년 Giza에서의 북쪽 하늘을 묘사한 Starry Night™ 렌더링이 아래에 표시되어 있으며, Exhibit M에 새겨진 배열과 정확히 일치하며, 섹스턴과 같은 정렬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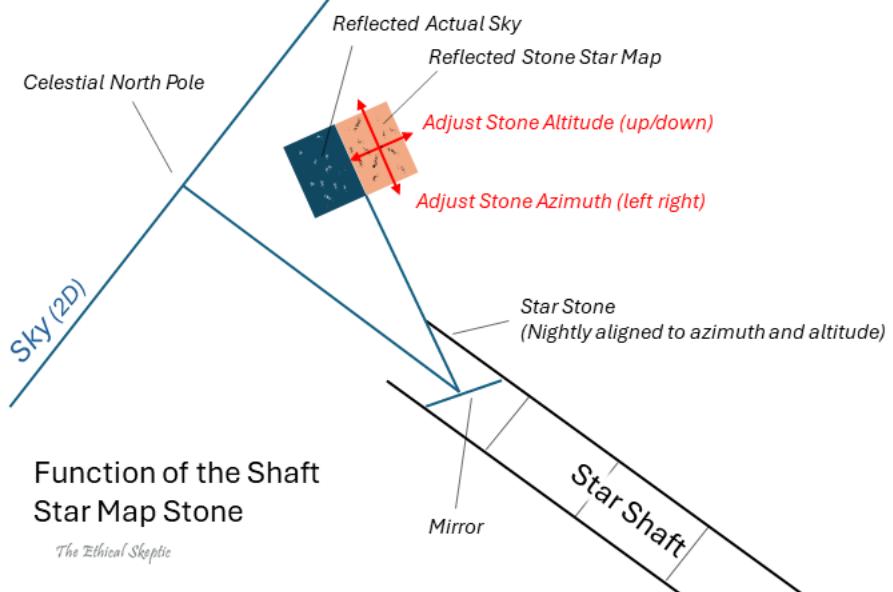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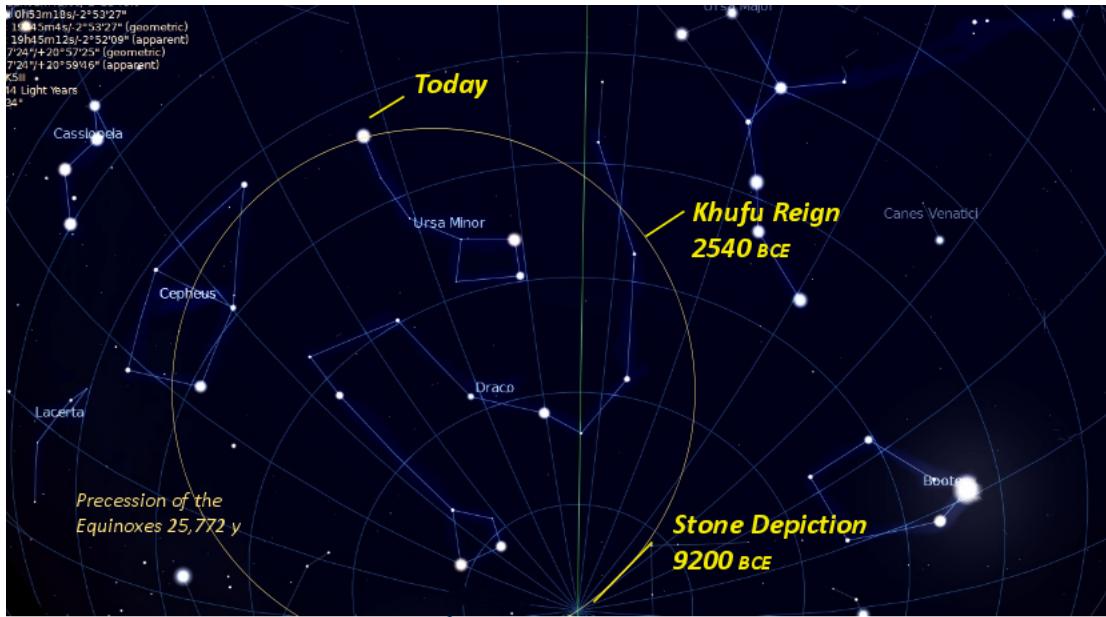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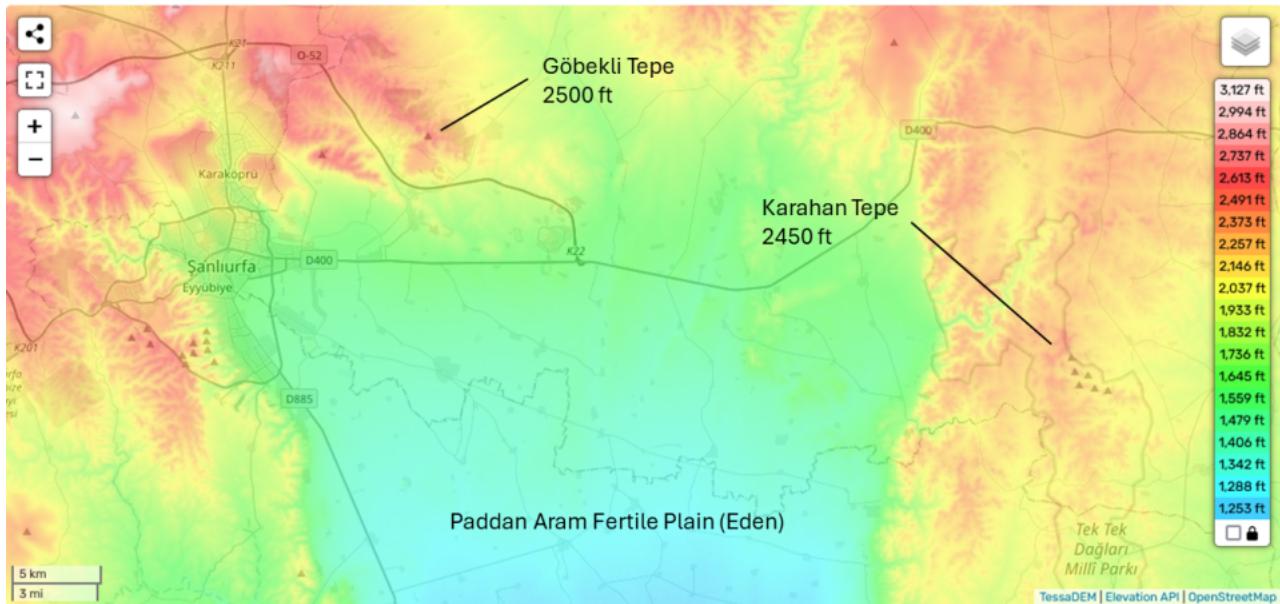


Exhibit N - 별 시간대 및 섹스턴과 유사한 엔지니어링 – 실제로 현장 감독관은 별 지도가 새겨진 통로 천장 돌을 가져와 돌의 하단 중심을 하늘의 천구 북극과 맞추고, 돌의 중심이 천구 북극의 방위각 및 고도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해야 했다 – 이러한 방식으로 다음 날의 작업(및 통로)을 진북에 정렬하는 것이다. 돌은 천구 북극의 고도를 측정하고 방위각과 함께 조준할 수 있도록 북쪽 하늘을 수평으로 이등분해야 했다. 감독관이 8인치 거울을 통로 안에 장착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섹스턴과 유사할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고 춘분 전진(천구 북극의 위치가 25,772년 주기로 변하는 현상)에 대한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통로 건설의 날짜 범위가 분명해진다.

이 네 개의 통로가 모두 천구 북극에서 이상한 각도로 처음부터 시작하여, 이후 각 사례에서 고도와 방위각 규율을 다시 얻는다는 사실은 이 정렬이 이러한 통로의 기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 통로들은 공기 통로가 아니었다(여기서 때때로 사용된 명칭에도 불구하고). 밀봉 돌에 있는 구리 장치는 돌을 제자리에 놓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라미드의 모든 돌은 제자리에 놓아야 했지만, 그러한 노동 집약적인 통돌 구리 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없었다. 또한 이러한 장치들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무게 중심에 배치되지 않았다. 이는 구리 케이블이었으며, 그 목적에 대해 이전에는 아무런 이론도 없었으나, 이제 그 목적이 명확해졌다.



Stellar Dating of Pillar 43 'Vulture Stone' at Göbekli Tepe

The Ethical Skep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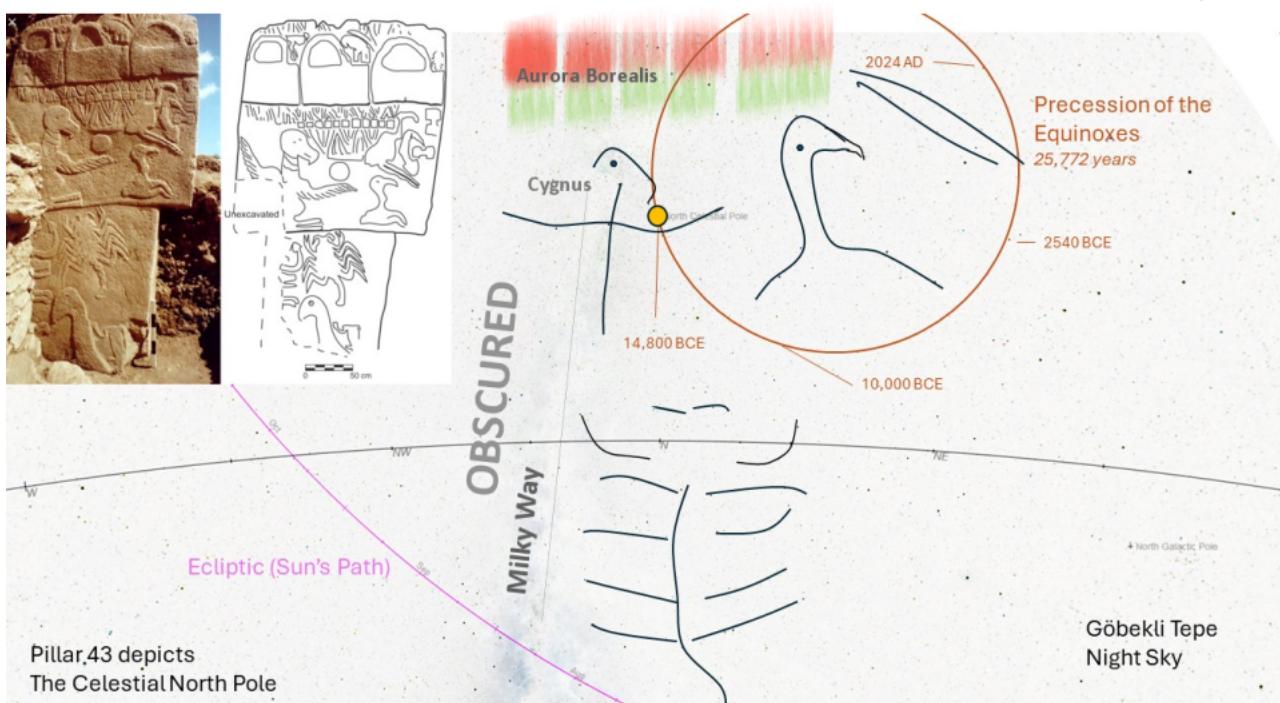


Exhibit N2 – Göbekli Tepe의 Vulture Stone (기둥 43)은 기원전 14,800년의 건설 날짜를 나타낸다. 하단 패널은 14,800 BCE, 터키 산리우르파에 대한 Starry Night Pro 8에서 개발되었다. 중요한 부분이 발굴 감독팀에 의해 의도적으로 가려졌음을 주목하라. 우리는 이러한 유사 과학적 비윤리를 다음 기사에서 언급할 것이다.[67]

이 통로가 시사하는 기원전 9200년에서 9600년 사이의 날짜 범위는 일부에서 Göbekli Tepe의 기둥 43, 즉 'Vulture Stone'에 새겨진 날짜와 일치한다고 추측된다.[68] Exhibit N2의 오른쪽에서는 필자가 기둥 43의 별 묘사에 충분 전진 대원을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기둥 43의 원은 천구 북극과 충분 전진의 위치를 기원전 14,800년의 날짜와 함께 묘사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기둥 43의 원이 많은 사람들이 제안한 것처럼 태양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태양은 황도면(Exhibit N2의 보라색 선)을 따라

이동하며 Cygnus 근처에 전혀 오지 않기 때문이다. Cygnus의 오른쪽 날개 위에 위치한 천구 북극(Exhibit N2의 노란색 원)의 위치는 기원전 14,800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

아마도 이러한 발견들, 즉 Enochian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유전자 혼합, 노예화, 성적 학대, 수명 조작, 인권 침해, 무지, 방치, 신으로 가장하기, 존재적/영적 고문)에 연루된 Archonic 세력을 고발하는 이러한 발견들이 Göbekli Tepe의 발굴이 Doğubay Group에 의해, 그리고 20년 동안 자금을 지원한 세계 경제 포럼의 요청에 따라 중단된 이유일 것이다.[69] [70]

약 11,500년 전, 기원전 9550년경, Potsdam 천문대의 천문학자들이 Tiahuanaco 유적의 기록에서 산출한 바와 같이, 지구의 60마일 두께의 껌질이 1/4에서 1/2일 만에 다시 위치를 이동하였으며, 이전 변동으로부터 7,000년 후에 발생하였다. 북극이 남쪽으로 이동하였고, 아프리카의 Sudan Basin이 북극으로 이동하였다. 이것이 Talmud가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간 시기라고 말한 때이며, 성지(Holy Land)가 여러 세대 동안 ‘극심한 추위의 지역’으로 이동되었다는 때이다. 실제로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6,500년 전까지, 즉 5,000년 동안 지속되었다. 적도의 피벗 지점은 질레 중부 해안과 베트남 북쪽의 중국 양쯔강 근처에 있었다.

~ Chan Thomas, The Adam and Eve Story[71]

분명히 진정한 극 이동(TPW) 사건은 약 11k-9k 전에 극의 위치를 변경하였다.

~ Utah Geology[72]

이전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이 범람의 일시적인 해수 상승은 해수면 위로 최대 2200피트까지 상승하였다. 우리의 가장 오래된 대규모 인간 거주지인 Göbekli Tepe와 그와 동시대인 Karahan Tepe가 해발 약 2500피트의 언덕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Exhibit N2의 상단 패널을 참조). 왜 그들의 식량 자원이 훨씬 아래에 있는 Harran 평원(Paddan Aram)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수척하게 묘사한 고대인들(그들의 동물과 함께)은 그들의 집을 이러한 고지대에 선택했는가?[73]

Exhibit N2에서 천구 북극 묘사 위에 오로라가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을 주목하라(콘도르 날개 위의 원), 이는 돌의 저자들이 기록하려 했던 대격변이 광범위한 지자기 현상과 관련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아마도 Göbekli Tepe와 Karahan Tepe는 집이나 신전(전형적인 회피 전략)이 전혀 아니었을 것이다; 대신, 계획된 대격변의 피난처였을 것이다. 건설자들이 별을 이용한 부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사건 말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 중요한 정보.

이러한 형태의 증거는 물론 귀납적이지만, 나는 건설자들이 반대 정렬 중에 물속에서 대피라미드의 두 개의 통로를 건설했다고 믿지 않는다. 복잡성을 단순화하려고 할 때 복잡함이 생겨난다. 반면에 이 가설은 강력한 우아함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내가 고려한 마지막 아이디어였으며, 내가 반증할 수 없는 유일한 아이디어였다. 또한 인류의 기념물 역사에 얹힐 수많은 미스터리를 설명해준다.

이러한 모든 관찰을 단순히 현대의 계몽된 상태와 관련이 없는 단순한 문화적, 종교적 상징주의로 치부하는 것은, 사실상 특정 금기된 구조물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석재 묘사들을 단순히 배제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태도는 이 기사 서두에서 우리가 비판했던 직선적 귀납 또는 넬소니언 무지의 함정에 빠진 과학적 접근 방식을 영속시키는 역할만 한다. 과학은 카프레와 쿠푸 피라미드(그리고 실제로 모든 고대 기념물)와 관련하여 그 함정에 갇혀 있으며, 급격한 변화와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류의 역사와 관련된 이 측면에 대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교리적 신념 체계를 위한 또 다른 ‘완벽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을 소개하는 것이다. 만약 선형적으로 완벽한 답이 기준이라면, 현재의 합의는 처음부터 고려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의 비판적이고 이질적 귀납적 특성으로 인해,

이 일련의 기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가설은 사이비 과학의 정의에 부합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에 새겨진 별 묘사의 가능한 날짜 범위에 대한 논쟁을 제쳐두고, 한 가지 사실은 명백하다:

이 천구 북극 지도에 의해 정렬된 통로는 오늘날 Giza의 남쪽 하늘을 향하고 있다.

서사시적 결말

독자가 아래의 내용을 노아의 성경 이야기와 대조해 보기를 권장한다. 노아 이야기에서는, 대상 독자들이 사건의 발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야기가 많이 각색되었음을 볼 수 있다.

성경의 홍수 서사는 그 사건들을 익숙한 전형으로 축소한다: 그것은 ‘인간의 잘못’이었다(익숙하게 들리는가?), ‘비가 내렸다’(익숙한 신비로운 숫자의 날 동안), 그리고 마법 같은 ‘샘’이 있었으며, 그 모든 엄청난 바다의 잉여(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바다의 세 배 이상의 양)가 몇 달 만에 그냥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47일 만에 완전히 자란 올리브 나무가 신비하게 다시 나타났다[74] – 최적의 조건에서도 올리브 씨앗이 발아하여 첫 잎을 내기까지는 6개월이 걸린다.[75] 힘들 달라... (ChatGPT-4o가 이에 대해 언급하다)

이는 ‘5살에게 설명해줘’ 접근법의 문제를 보여준다: 이는 종종 중요한 부정확성으로 이어지는 기술이다. 결과적으로, 성경의 버전은 사건의 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고대의 다른 기록들(아래와 같은)보다 신뢰할 수 없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애쓸 때, 인류는 중요한 지구물리학적 원리를 놓치게 된다. 이것이 사물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때 발생하는 일이다 – 결국 모두가 멍청해진다.

흥미롭게도, 《길가메시 서사시》의 제 IX, X, XI 서판에서 우루크의 왕 길가메시는 조상 우트나피쉬팀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납니다. 우트나피쉬팀은 한 신(Ea/Enki)의 지시에 따라 큰 배를 건조하고 그 배에 친지, 가족, 가축들을 태운 후,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후 신들로부터 불멸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자신이 2/3가 신인 길가메시는 불멸의 신비를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의 의견: 왜 누군가가 이 세계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hibit O – 모헨조다로 왕의 인장.

이에 따라, 길가메시는 마슈 산맥을 넘고 며칠 동안 동쪽으로 행군합니다. 수메르 문학 전자 텍스트 자료(ETCSL)의 대홍수 이야기 Segment E는 우트나피쉬팀의 거주지가 "해가 뜨는 곳, 딜문 땅"에 있다고 확인합니다.[76] 그 후, 그의 일행은 강을 따라 3일간 폴을 사용하여 (수백 마일, 본문에 따르면 약 한 달 반의 정상적인 여정) 이동한 후 목표 지점에 도달합니다.[77] 이 여정은 인더스강의 입구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모헨조다로로의 강 상류 여행과 일치합니다 (3일간 4노트 속도 = 327마일, 모헨조다로는 상류로 325마일 거리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길가메시는 강 무역 및 어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트나피쉬팀을 만납니다.

우트나피쉬팀은 길가메시에게 어떻게 그의 세계가 단 하루 만에 급격한 전환으로 사라졌는지, 즉 "40일 밤낮" 동안의 비가 아니라 지속적인 폭풍, 천체 충돌, 태양 코로나 물질 방출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 대기 바람과 혼합되어 산을 넘는 바다의 물결이 단번에 넘쳐나는 격변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물결은 고속 바람에 의해 옮겨졌으며 (비와는 다릅니다), 땅이 갑자기 파괴되고, 바다가 갑자기 침범한 것 (ETCSL의 Segment E는 "땅을 휩쓸었다"고 합니다)으로 이는 지구 회전 현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트나피쉬팀은 길가메시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78]

내가 너에게 숨겨진 것을 알려주겠다, 길가메시, 신들의 비밀을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에아, 아누의 현명한 아들은 맹세로 인해 둑여 있었고,
[다가오는 대홍수에 관한] 지식을 [갈대 집 벽에] 반복하여 이야기하였다:
'갈대 집아, 갈대 집아! 벽아, 벽아! [그와 대화할 때, 그에게] 말하라
슈루팍의 사람, 우바르투투의 아들에게:
"너의 집을 허물고 배를 지어라!"'



그 정해진 시간이 왔다.

아침에 [샤마쉬]가 빵 덩어리 [화산 폭탄]를 쏟아붓게 하고, 저녁에는 밀비 [화산재/화산암]를 내리게 했다.

나는 날씨의 모습을 지켜보았다-날씨는 보기에도 두려웠다! 나는 바로 들어가서 출입구를 봉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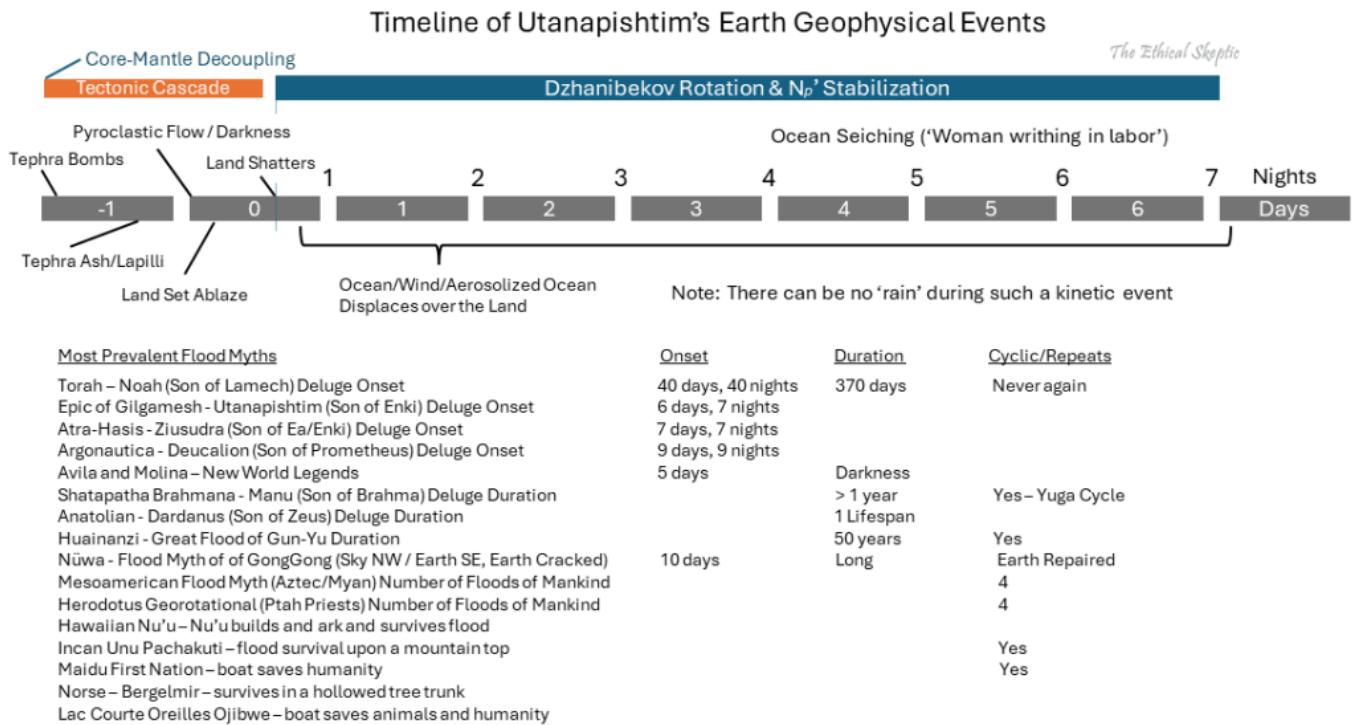
새벽이 막 빛나기 시작했을 때
지평선에서 검은 구름이 떠올랐다.
[천둥이] 그 안에서 울리고,
그 앞에는 [어두운 돌풍]과 [번개]가 있었으며,
[거대한 화산재 소용돌이]가 산과 땅을 덮었다.

아누나키가 횃불을 들어올려,
그들의 불꽃으로 땅을 불태웠다.
[놀라운] 충격 [소용돌이]가 하늘을 휩쓸었고,
모든 빛을 어둠으로 바꾸었다.

[그러자 모든 땅이 갑자기] [점토] 항아리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남풍이 하루 종일 불었고...
빠르게 불어 산을 물속에 잠기게 했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군대]처럼 압도했다.
아무도 자신의 동료를 볼 수 없었고,
그들은 홍수 속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없었다.
신들은 홍수에 겁에 질려
하늘로 물려갔다, 아누의 하늘로 올라갔다.

6일 동안, 7일 밤 동안
바람과 홍수가 계속되었고, 폭풍이 땅을 평평하게 했다.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폭풍은 맹렬하게 휘몰아치고 있었으며,

홍수는 전쟁 같았다-스스로와 싸우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다.
 바다가 고요해지고, 잔잔해지며, 소용돌이와 홍수가 멈췄다.
 나는 하루 종일 둘러보았다-고요가 찾아왔고
 모든 인간이 점토로 변해 있었다!
 지형은 지붕처럼 평평했다.



여러 대홍수 신화 비교 노트에서 알 수 있듯이, 토라를 제외한 가장 유명한 3~4개의 대홍수 신화는 위에 묘사된 시간표와 일치합니다. 중국의 군-우 신화는 사람들이 물에 잠긴 땅에서 어떻게 두 세대 동안 (한 사람의 수명, 또는 50년 – 우리의 카르스트 침식 추정치 상한) 고투했는지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두 가지 신화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설이 타당하다면, 이 대홍수 효과는 반복되는 주기의 일부입니다 (ECDO – 진동).

또한, 중국의 여와 홍수 신화에 따르면, 그들의 땅은 남동쪽으로 이동했고, 하늘은 북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상태 1에서 상태 2로 이동하는 중재된 잔니베코프 회전에서 정확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위의 Exhibit J3 참조).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서 나온 에타나 전설은 다음과 같습니다.[79] 에타나 전설을 포함하여 가장 크고 유명한 설형 문자 서판 컬렉션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에타나는 수메르 왕 목록에 언급된 전설적인 기쉬의 왕이었으며, 대홍수 이후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기를 두려워해 대도시나 성을 건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에타나는 대홍수 이후 문명의 기초를 세운 왕 중 한 명으로 수메르 왕 목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길가메시는 초기 왕조 시대 후반에 우루크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대략 기원전 27~26세기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토라/성경의 내러티브와 비교되는 신뢰성에 대해, 종종 거친 바다에서 항해하는 평생 선원으로서, 나는 길고 좁은 용골형 선체 설계, 즉 '수면 관통/대형 프리보드' 유형의 해양 선박, 특히

추진력이 없는 선박이 기술된 대홍수 상황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묘사한 노아의 방주는 450 x 75 x 45 피트 크기의 이 유형(6:1 비율 - 오른쪽의 Exhibit P 상단 두 패널 참조)의 선박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호깅(hogging)'이라고 불리는 바다 상태 유도 모멘트를 견딜 수 없으며, 분할된 450 피트의 용골은 매우 빠르게 부러졌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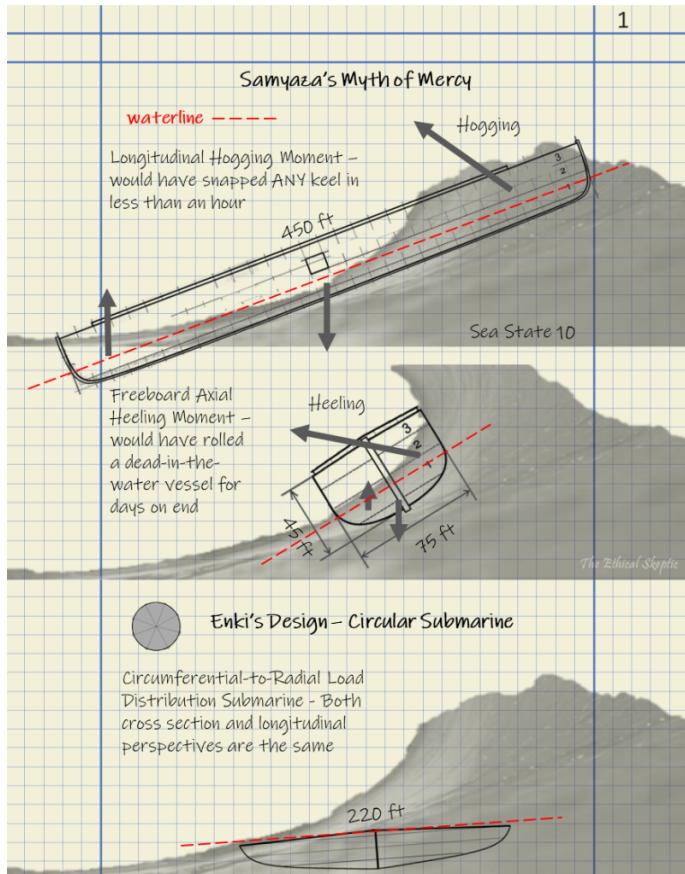


Exhibit P – Enki의 원형 잠수함과 비교한 표면 용골형 선박.

더욱이, 파도가 그러한 길고 좁은 선박의 측면을 강타할 때, 그 선박은 완전히 전복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회전할 것입니다. 여기에 상당한 밸러스트를 추가하고, 용골이 휘어지는 현상과 선체의 비틀림 모멘트를 혼합하면, 450피트의 나무로 된 용골을 따라 꼬임이 생기며, 그 결과 배와 그 안에 있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격렬한 밀폐된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80]

다양한 선박 설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선박이 바다 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제공하고 파도와 바람에 맞서 이끌어 갈 수단 없이 이러한 설계의 선박을 건조하지 않습니다. 길고 얕으며, 물 위에서 추진력이 없는 표면 용골형 선박은 거친 바다에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찰은 토라/성경 이야기의 후대 조작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를 보여주기 위한 환상적이거나 상징적이며 우화적이거나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으며, 이 이야기의 다른 더 정확한 버전들은 모두 파괴되거나 묻혀버렸습니다. 질문은 왜일까요? 독자는 이러한 은폐가 인류의 역사와 기원에 관한 일관된 패턴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동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실현 가능한 배 설계는 대부분 잠수하는 원형 초승달 형태의 ‘잠수함’이었을 것입니다. 이 설계에서는 용골 힘 하중이 우선적으로 원주 방향으로, 그 다음으로 선박의 바람이 부는 쪽으로 방사형으로 분산되며, 파도가 배 위를 넘어가게 되어 선박 아래에서 발생하지 않으므로 용골 힘 모멘트 자체가 훨씬 덜 두드러지며 모든 표면 효과가

최소화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선박이 ‘긴’ 측면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회전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화적인 신 Enki의 방주 설계(Exhibit P의 세 번째 패널 참조)는 Atra-Hasis에게 제출된 이와 같은 유형의 설계로, 전설이 아닌 전례 없는 도전에 대한 공학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81]

끝으로, 이 불편한 격변의 경로를 몇 걸음 더 내려가 봅시다. 물론, 이 전체 구성은 핵심적인 실존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어떤 종류의 책임 있는 존재가 빈번한 전복 현상이 발생하는 ECDO 행성에 인류와 같은 대규모 감각적 문명을 고의로 배치하거나 개발하였을까요? 이는 무신론적 관점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논거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기회와 영향력을 가진 가상의 존재가 실제로 이 일을 저질렀고, 그 행동이 외부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그러한 악의 증거를 파괴하거나 무작위성 또는 희생자들 자신의 악행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비열한 행위는 우주 전역에서 혼을 보호하는 힘에 대한 모독으로, 애녹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구성하지 않을까요?[82] 이를 과학적, 수사학적, 종교적, 소각, 매장, 인간 수명 단축, 사회적 조롱과 중상모략, 또는 제국주의 정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은폐하려 한다면, 그 절박한 의지가 무게 2.5톤의 거대한 두 개의 돌 더미에 의해 방해받을 뿐일 것입니다.

아마도 대피라미드는 결국 기념비가 아니라; 그것은 선행된 관측소를 위한 목적적 메시지였으며, 이 지적 재산이 다시는 씻겨 나가지 않고,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자들에 의해 기억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불가능한 돌무더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도합니다... 정말 시도합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개인 블로그 기사에 게시하는 것은 우아한 점을 보여줍니다. 저는 질문, 아이디어, 증거를 금지하는 자들의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명령을 채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행 유도적 네로니안 무지의 수렁에서 해매면서 아이러니한 탐구의 사제 복장을 두른 채로 있습니다.

아마도 더 흥미로운 마지막 언급으로, 우리는 길가메시가 우트나피쉬팀을 찾으러 갔던 것으로 주장하는 도시 마헨조다로의 첫 번째 왕의 인장이, 인더스강에서 몇 백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해양 선박, 까마귀와 비둘기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poch vanguards gnosis

The Ethical Skeptic (윤리적 회의론자)

인용

1. The Ethical Skeptic, “Syndicate Science – The Definition”; The Ethical Skeptic, WordPress, 24 Apr 2024; Web, <https://theethicalskeptic.com/?p=84476>
2. Academic Studies Are Getting Marked Down,” The Wall Street Journal, accessed 30 May 2024, <https://www.wsj.com/science/academic-studies-research-paper-mills-journals-publishing-f5a3d4bc>.
3. Fake scientific papers are alarmingly common,” Science, accessed May 29, 2024, <https://www.science.org/content/article/fake-scientific-papers-are-alarmingly-common>.
4. Burial chamber for anyone, hall of records library, river of mercury cap, power station, rocket launch pad, alien construction, giant construction, granary, water pump, natural formation, celestial energy generator, penny-on-a-fan effect, dimensional portal, irrigation, stellar gateway, time machine, great Egypt society monument, stellar communications station, king's/national treasure vault, chemical production factory, ceremonial chamber, Earth orbit, rotation, or land mass control system, solar/celestial observatory, ark, ark of the covenant hold, spacecraft navigational aide, home of gods, metallurgy/alchemy work station, home, celestial energy focal prism, rites and initiation chamber, etc. – please note, that when I use the names 'Khufu' and 'Khafre', this is for pyramid identification only. The notion that these edifices were burial chambers built by those Pharaohs over 20 years in and around 2550 BCE is not a realistic possibility.

5. A few, but not all, of the predictions I have made and confirmed with this theory:

Sea Salt in human inaccessible areas (Queen's North Air Shaft)

Karst geomorphology on the Sphinx (Yes)

Limestone reccretions in the lower passages and chambers of the pyramid (Yes)

Ocean silt in the lower pyramid chamber (inaccessible areas only)

Morphology and size of the erosion band on the Khafre Pyramid

Artifacts from the pyramid which pre-date the Fourth Dynasty significantly (Cedar Plank Dixon Relic)

Regional flood geomorphologies in the Saudi and Sahara Deserts.

Correspondence in metrics between the geomorphologies in #7

Heat decay of Queen's Chamber niche and horizontal passage

Transparency of limestone to geomagnetic monitoring frequencies.

Copper cables only in the Queen's Chamber air shafts.

Karst geomorphology on stones which are inaccessible (Queen's North Air Shaft midway up)

The full set of pyramid angles, dimensions, and designs.

6. The Ethical Skeptic, "The Climate Change Alternative We Ignore (to Our Peril)"; The Ethical Skeptic, WordPress, 16 Feb 2020; Web, <https://theethicalskeptic.com/2020/02/16/the-climate-change-alternative-we-ignore-to-our-peril/>

7. "A true polar wandering (TPW) event evidently changed the location of the pole around 11k–9k BP."; UtahGeology website; extracted 12 Jul 2024; <https://utahgeology.com/bin/iceage/index.html>

8. Veritasium; The Bizarre Behavior of Rotating Bodies;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1VPfZ_XzisU&t=92s

9. Wikipedia: The Tennis racket theorem; https://en.wikipedia.org/wiki/Tennis_racket_theorem

10. Veritasium; The Bizarre Behavior of Rotating Bodies;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1VPfZ_XzisU&t=92s

11. Wenyng Zhang, Wenbin Shen, New estimation of triaxial three-layered Earth's inertia tensor and solutions of Earth rotation normal modes, Geodesy and Geodynamics, Volume 11, Issue 5, 2020, Pages 307–315, ISSN 1674–9847, <https://doi.org/10.1016/j.geog.2020.03.005>.(<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674984720300240>)

12. Tsekhmistrenko, Maria & Sigloch, Karin & Hosseini, Kasra & Barruol, Guilhem. (2021). A tree of Indo–African mantle plumes imaged by seismic tomography. Nature Geoscience. 14. 1–8. 10.1038/s41561–021–00762–9.

13. Garnero, Edward J.; McNamara, Allen K.; Shim, Sang–Heon (2016). "Continent-sized anomalous zones with low seismic velocity at the base of Earth's mantle". Nature Geoscience. 9 (7): 481 – 489.

14. Laura Baisas; Popular Science: "Two giant blobs lurk deep within the Earth, but why?"; <https://www.popsci.com/science/earth-blob/>

15. Mcnamara, Allen. "A review of large low shear velocity provinces and ultra low velocity zones." Tectonophysics (2019): n. pag.

16. Wenyng Zhang, Wenbin Shen, New estimation of triaxial three-layered Earth's inertia tensor and solutions of Earth rotation normal modes, Geodesy and Geodynamics, Volume 11, Issue 5, 2020, Pages 307–315, ISSN 1674–9847, <https://doi.org/10.1016/j.geog.2020.03.005>.(<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674984720300240>)

17. NOAA Physical Sciences Laboratory (PSL); <https://psl.noaa.gov/>

18. The Ethical Skeptic, "The Climate Change Alternative We Ignore (to Our Peril)"; The Ethical Skeptic, WordPress, 16 Feb 2020; Web, <https://theethicalskeptic.com/2020/02/16/the-climate-change-alternative-we-ignore-to-our-peril/>

19. a craton is an old and stable part of the continental lithosphere, which consists of Earth's two topmost layers, the crust and the uppermost mantle
20. Tsekhmistrenko, Maria & Sigloch, Karin & Hosseini, Kasra & Barruol, Guilhem. (2021). A tree of Indo–African mantle plumes imaged by seismic tomography. *Nature Geoscience*. 14. 1–8. 10.1038/s41561–021–00762–9.
21. Boyce, Alistair & Kounoudis, Rita & Bastow, I. & Cottaar, S. & Ebinger, C. J. & Ogden, C.. (2023). Mantle Wavespeed and Discontinuity Structure Below East Africa: Implications for Cenozoic Hotspot Tectonism and the Development of the Turkana Depression. *Geochemistry, Geophysics, Geosystems*. 24. 10.1029/2022GC010775.
22. Cottaar; Lekic (2016). “Morphology of lower mantle structures”. *Geophysical Journal International*. 207 (2): 1122 – 1136.
23. Tsekhmistrenko, Maria & Sigloch, Karin & Hosseini, Kasra & Barruol, Guilhem. (2021). A tree of Indo–African mantle plumes imaged by seismic tomography. *Nature Geoscience*. 14. 1–8. 10.1038/s41561–021–00762–9.
24. ChatGPT-4: If the Earth's core and geomagnetic poles remain stationary while the outer mantle rotational component undergoes a Dzhanibekov rotation, the resulting observations could be interpreted as a magnetic pole shift inside scientific studies covering such a timeframe. Without a clear understanding and ability to differentiate between core dynamics and mantle movements, such an event could easily be misinterpreted as a conventional geomagnetic pole shift. This misinterpretation could lead to incorrect assumptions about the processes occurring within the Earth's interior.
25. Please note that one could argue 103° as well, given that the north and south faces of Khufu are each 51.5° on average. We would not quibble with this approach. In this approach the “ $52+52=104$ ” annotation would be changed to “ $51.5+ 51.5 = 103$ ”.
26. Wikipedia: Geographical centre of Earth;
https://en.wikipedia.org/wiki/Geographical_centre_of_Earth
27. <https://x.com/Rainmaker1973/status/1817579048991682575>
28. Kirschvink, Joseph & Ripperdan, Robert & Evans, David. (1997). Evidence for a Large-Scale Reorganization of Early Cambrian Continental Masses by Inertial Interchange True Polar Wander. *Science*. 277. 541–545. 10.1126/science.277.5325.541.
29. 1. Mechanism Locking True North for 4,550 Years: The Earth's rotational axis (true north) has maintained a stable alignment with the Khufu Pyramid for the past 4,550 years. Some geophysical mechanism has kept the rotational axis precisely locked that entire time, preventing significant shifts in the Earth's orientation. We are missing that key mechanism as a premise to this argument. If one is to ask the former question, one must also ask this inverse question as well. It suggests an appeal to ignorance at play, and need for genuine skepticism both ways.
2. Variance of Nutation within Precession: We do not have precise measurements of the celestial pole's nutation variance within the 25,772-year precession cycle. This lack of detailed understanding means we cannot definitively conclude whether the Great Pyramid's precision alignment to true north is purely coincidental within this variance or if another factor ensures this

alignment. Again, we risk appeal to ignorance here.

3. Disagreement between Khufu and Khafre Alignments: The alignments of the Khufu and Khafre pyramids to true north do not perfectly match each other, both within each structure (intra-structure) and between the two structures (inter-structure). How do we address this discrepancy tolerance? What physical feature do we select as our single reference for this contention?

4. Other Aligned Monuments: What about the myriad other aligned monuments that indicate significant historical true polar wander and/or disagreement as to true north? Do we simply discard the whole body of observational evidence to emphasize only one observation?

5. Inconsistent Alignment within Pyramids: Different components of each pyramid show slight deviations from the true north alignment. This suggests that while the builders aimed for alignment, natural construction variances may have led to accidentals and/or misalignments. In other words, did we cherry pick what we chose as our alignment reference as a touch of cultural grandstanding?

30. Furthermore, the measurement error tolerance for any given time interval spanned nearly to the Leschamps excursion limit (6% of DM2017 = 80 ZAm2) to begin with. (Panovska S., Korte M., & Constable C. G. (2019). One hundred thousand years of geomagnetic field evolution. *Reviews of Geophysics*, 57, 1289–1337. <https://doi.org/10.1029/2019RG000656>) The Panovska study cited above even summed together the age-uncertainty blending of study averages, which themselves data smoothed over large timescales extrapolated from small geographic sampling regions, and only when such measures were in agreement (Panovska, Section 2.3).

In other words, these studies do not feature a temporal resolution which would alert to this type of event. It would simply appear as noise inside a mundane geomagnetic excursion, if at all.

The study chart plot-lines look pretty and authoritative—with lots of intimidating notation (“(V)(A)DM [ZAm2]”) and precision-implying summation functions (“ $V(r, \theta, \phi, t) = \sum \sum \sum (a/r)$ ”) serving as academic window dressing and proxy for a conceptually straightforward yet imprecise measure (volcanic material ‘thermoremanent magnetization’ with 70% of the sampling derived from Europe and Turkey). Such confidence/blending results contrast starkly with the currently observed speed of dipole moment weakening, one which is 10 times faster than any measure found inside these paleogeomagnetic studies—including the Leschamps event. (Fiona MacDonald; Science Alert: New Study Shows How Rapidly Earth’s Magnetic Field Is Changing; 11 May 2016; <https://www.sciencealert.com/new-study-shows-that-earth-s-magnetic-field-is-weakening-more-rapidly-than-we-thought>)

This is Gaussian blindness, and as such it is not very informative. It is akin to estimating the ten-minute-interval speed of a car during a 10-day trip, with a standard deviation-based confidence band ranging from 10 to 110 miles per hour and a discrimination interval of half a day, from sampling only conducted while the car was on two-lane roads, and only by means of an agreement between tire and wind noise (no speedometer). Based on this type of analytical approach, the car would never exceed the speed limit and never stop even once for gas, fuel, or restroom.

In systems engineering, when transient signal dynamics exceed weak-observation histories by a factor of 10, the confidence in such historical observations is significantly reduced. (Chiang, L.H. et al.; “Fault Detection and Diagnosis in Industrial Systems”; 2001; ISBN: 1-85233-327-8.)

(Chen, Chi-Tsong. Linear System Theory and Design.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Gyre-driven models (Finlay, Aubert, 2016) of our current decline in the Earth's geomagnetic moment, place the attainment of a Leschamps-level of decay, as occurring in less than 1000 years (1900 years to "zero"), a timeframe far below the resolution of current paleogeomagnetic models. (Finlay, C., Aubert, J. & Gillet, N. Gyre-driven decay of the Earth's magnetic dipole. *Nat Commun* 7, 10422 (2016). <https://doi.org/10.1038/ncomms10422>) As one may observe in the study graphic linked earlier (Panovska, 2019), we are already 1500 years into such a dipole weakening. The sint-2000 model itself indicating a particularly precipitous drop during this timeframe.

31. Nell Greenfieldboyce; NPR Science: Ancient Trees Show When The Earth's Magnetic Field Last Flipped Out; 18 Feb 2021; <https://www.npr.org/2021/02/18/969063568/ancient-trees-show-when-theearths-magnetic-field-last-flipped-out>

32. Carlo Laj, Catherine Kissel, Andrew Roberts. Geomagnetic field behavior during the Iceland Basin and Laschamp geomagnetic excursions: A simple transitional field geometry?. *Geochemistry, Geo-physics, Geosystems*, 2006, 7 (3), pp.n/a–n/a. 10.1029/2005GC001122. hal-03118231

33. Lund, Steve & Schwartz, Martha & Keigwin, Lloyd & Johnson, Thomas C.. (2005). Deep-sea sediment records of the Laschamp geomagnetic field excursion (~41,000 calendar years before present). *J. Geophys. Res.* 110. 10.1029/2003JB002943.

34. rotating gif graphics courtesy again of Craig Stone at nobulart.com

35. Desert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Kppen climate classification system – however, in this definition featuring oceanic displacement striations

36. Wikipedia: Euler's rotation theorem;
https://en.wikipedia.org/wiki/Euler%27s_rotation_theorem

37. McElhinney, M.W.; Paleomagnetism: Continents and Oceans; 2000; San Diego Academic Press; ISBN: 12-483355-1

38. Aubert, Maxime & Lebe, Rustan & Oktaviana, Adhi & Tang, Muhammad & Burhan, Basran & Hamrullah, & Jusdi, Andi & Abdullah, & Hakim, Budianto & Zhao, Jian-xin & Geria, I. & Sulistyarto, Priyatno & Sardi, Ratno & Brumm, Adam. (2019). Earliest hunting scene in prehistoric art. *Nature*. 576. 1–4. 10.1038/s41586-019-1806-y.

39. , Wikibooks: Chinese Stories/Nwa;
https://en.wikibooks.org/wiki/Chinese_Stories/N%C3%BCwa

40. Nikk Ogasa; Science News: "Earth's inner core may be reversing its rotation;" 23 Jan 2023;
<https://www.sciencenews.org/article/earth-inner-core-reverse-rotation>

41. Ancient Code: "The Great Pyramid of Giza is located at the exact center of Earth's landmass"; 29 Apr 2024; <https://www.ancient-code.com/the-great-pyramid-of-giza-is-located-at-the-exact-center-of-earths-landmass/>

42. Project Gutenberg; Herodotus: An Account of Egypt:
<https://www.gutenberg.org/files/2131/2131-h/2131-h.htm>,
43. Plato. (c. 360 B.C.E.). The Statesman (Politikos). In Jowett, B. (Trans.), The Dialogues of Plato. Retrieved from Perseus Digital Library.
44. Velikovsky, I. (1950). Worlds in Collision. Retrieved from Spirasolaris: Selections from Immanuel Velikovsky's Worlds in Collision (1950) <https://www.spirasolaris.ca/wic.pdf>
45. YouTube: “The Why Files: Mysteries Beneath the Ice: The Secrets of Antarctica”; March 2024; <https://www.youtube.com/watch?v=IQz7innxnms>
46. YouTube: Great Pyramid: Lost Technology of the Grand Gallery REVEALED;
https://www.youtube.com/watch?v=SslpjDtEw_U&t;=1261s
47. Dunn, Christopher. The Giza Power Plant: Technologies of Ancient Egypt. Bear & Company, 1998.
48. Andrew Lawler; Smithsonian Magazine: “The Fall of Zahi Hawass; 17 Jul 2011;
<https://www.smithsonianmag.com/history/the-fall-of-zahi-hawass-32319337/>
49. In 2014, the former Egyptian Minister of Antiquities, archaeologist Zahi Hawass was charged with stealing Egyptian antiquities. In the list of items [allegedly] stolen by [Hawass], the most unusual artifact was the ancient copper wires from the Pyramid of Cheops;” YouTube: “New Discovery Inside the Great Pyramid! What Did Scientists Find?”; 20 Apr 2023;
<https://www.youtube.com/watch?v=Mr2jqqvHL2w>
50. In 2014, the former Egyptian Minister of Antiquities, archaeologist Zahi Hawass was charged with stealing Egyptian antiquities. In the list of items [allegedly] stolen by [Hawass], the most unusual artifact was the ancient copper wires from the Pyramid of Cheops;” YouTube: “New Discovery Inside the Great Pyramid! What Did Scientists Find?”; 20 Apr 2023;
<https://www.youtube.com/watch?v=Mr2jqqvHL2w>
51. YouTube: “Discovering the Closed Door Inside the Great Pyramid: The Upuaut Project”; (Full Documentary)<https://www.youtube.com/watch?v=cT16PVkhwrg&t;=2997s>
52. Ancient Architects, YouTube: EXCLUSIVE: First Look Inside the Great Pyramid Queen’s Chamber (2022); pulled 9 Jun 2024; <https://www.youtube.com/watch?v=Ki0405ulvIY>
53. 3ROAM – Antenna Length to Frequency Calculator;
https://3roam.com/antenna-length-to-frequency-calculator/#google_vignette.
54. ChatGPT-4o agrees with our engineer:
1. Active Antenna Characteristics (Medium Frequency/High Frequency Antenna)
- An active antenna with a standing wave ratio (SWR) of 1.27 indicates a relatively low amount of power reflected back towards the source, which is efficient for signal transmission and reception. The design frequency of 1.932 MHz and its resonances at various frequencies suggest a broad range of operability. This range of resonances could imply a sophisticated design, possibly to maximize sensitivity across multiple frequency bands. Such a feature might have been employed

for detecting a wide range of signals or for enhancing communication capabilities.

2. Close Proximity of Cables

The close proximity of the two cables could indeed afford high amperage and low voltage, particularly in an active antenna configuration. In such a setup, the antenna might use an active component, like a transistor or amplifier, to boost signal strength. This increased sensitivity would be crucial for detecting weak signals or for long-range communication. The high amperage could enhance the antenna's ability to pick up faint signals, making it more effective in its role.

3. Polarized or Differential Detection

The potential for using the two cables in a polarized or differential detection role is worth exploring. Polarization could help in distinguishing between different signal sources or reducing interference from unwanted directions. Differential detection could enhance signal clarity by comparing the signals received by the two cables, effectively canceling out noise and improving signal-to-noise ratio. This might not have been commented upon, but it could provide additional functionality to the antenna system.

55. Wang, C., G. Hajj, X. Pi, I. G. Rosen, and B. Wilson (2004), Development of the Global Assimilative Ionospheric Model, *Radio Sci.*, 39, RS1S06, doi:10.1029/2002RS002854.

56. Leeder, M. R. (1999). *Sedimentology and Sedimentary Basins: From Turbulence to Tectonics*. Blackwell Science.

57. Pamela Pearson; “Why Burn Limestone?”; 20 Mar 2017; <https://oldknows.com/2017-03-20-a-flow-chart-showing-the-uses-and-processes-of-limestone.html>

58. ChatGPT-4o comments: To detect P-waves effectively in a static chamber infiltrated with sensors, the fluid used should have properties that allow efficient transmission of seismic waves while being compatible with the sensors and the chamber environment. One of the best fluids for this purpose is water. Here are the reasons why:

Acoustic Impedance Matching: Water has an acoustic impedance that is well-matched to many materials used in seismic sensors, ensuring efficient transmission of P-waves from the fluid to the sensors.

High Transmission Speed: P-waves travel through water at a speed of approximately 1500 meters per second, which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ther fluids, allowing for clear and fast detection of seismic signals.

Low Attenuation: Water has low attenuation for seismic waves, meaning the waves can travel longer distances without significant loss of energy, leading to clearer signals.

Availability and Safety: Water is readily available, non-toxic, and safe to handle, making it a practical choice for use in a controlled experimental setup.

Temperature Stability: Water maintains its properties over a range of temperatures, which is beneficial for consistent and reliable seismic measurements.

While other fluids like mineral oil or glycerin could also be used, they often have higher attenuation or are less practical to handle. Thus, water is generally considered the best fluid for detecting P-waves in such a setup.

59. Ancient Origins: The Great Pyramid Experiment: Exploring Infrasound Technology Use By The Ancients <https://www.ancient-origins.net/artifacts-other-artifacts/great-pyramid-0012179>

60. YouTube: “When was the Subterranean Chamber built? | Great Pyramid of Giza | Lines in Sand”; <https://www.youtube.com/watch?v=iiozjuoILu0>

61. The frequency range for infrasound, which can be generated by natural sources such as earthquakes, volcanic activity, and other geological phenomena, typically lies between 0.1 Hz and 10 Hz. This is the range where infrasound waves are most effective at traveling long distances through the Earth’s solid materials, such as those originating from the core and propagating to the surface.

Earthquake P-waves are employed as the sound generation mechanism for the velocity based mapping of the core and LLVP structures themselves. Body waves, specifically Primary waves (P-waves), that travel through the Earth as a result of an earthquake typically have a frequency range between 0.1 Hz and 10 Hz. However, most of the energy from these waves is concentrated in the lower part of this range, typically from 1 Hz to 5 Hz. Inner Earth activity is attenuated more quickly because it falls in the higher frequencies, 5 Hz to 10 Hz.

P-waves are capable of traveling through the Earth’s interior and are the fastest seismic waves, thus they are the first to be detected by seismometers after an earthquake occurs. This makes the 5 to 10 Hz range quite reasonable for detecting infrasound signals emanating from deep within the Earth, including potential core noise (sources: Wikipedia on Infrasound, White, B. C., Elbing, B. R., and Faruque, I. A.: Infrasound measurement system for real-time in situ tornado measurements, *Atmos. Meas. Tech.*, 15, 2923–2938, <https://doi.org/10.5194/amt-15-2923-2022>, 2022.).

This frequency range corresponds to wavelengths that are tens of meters long, making them suitable for penetrating deep into the Earth’s structure and reaching the surface where they can be monitored. These properties of infrasound align well with the idea of using such frequencies to detect and study geophysical phenomena originating from the Earth’s core and other deep layers.

62. Wikipedia: Seismic wave/Bod wave/P-waves; https://en.wikipedia.org/wiki/Seismic_wave

63. LibreTexts: Geosciences: 6.6: Seismic Waves; [https://geo.libretexts.org/Courses/Lumen_Learning/Book%3A_Physical_Geography_\(Lumen\)/06%3A_Tectonic_Forces/6.06%3A_Seismic_Waves](https://geo.libretexts.org/Courses/Lumen_Learning/Book%3A_Physical_Geography_(Lumen)/06%3A_Tectonic_Forces/6.06%3A_Seismic_Waves)

64. The Khufu Pyramid: The Shaft or Well: Important notes: ; <https://khufupyramid.dk/important-information/important-notes>

65. Academy of Ancient Texts: “The Epic of Gilgamesh, Tablet XI”; <http://www.ancienttexts.org/library/mesopotamian/gilgamesh/tab11.htm>

66. Wikipedia: Upuaut Project; https://en.wikipedia.org/wiki/Upuaut_Project

67. The Ethical Skeptic, “The Principle of Diminishing Narrative Returns”; The Ethical Skeptic, WordPress, 13 Jun 2024; Web, <https://theethicalskeptic.com/?p=89300>
68. The Why Files (Nov 2023). Gobekli Tepe and the Prophecy of Pillar 43 [Video]. 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r4xzFWW-FAA&t:=646s>
69. YouTube: You Won’t Believe This Disturbing Gobekli Tepe Update; 10 Jun 2024; <https://www.youtube.com/watch?v=cPNgGnUrCKM>
70. “the ICOMOS panel considers that there is an imbalance between the scientific research requirements and prospects as indicated in the nomination dossier, and the proposed management plan. The ICOMOS Panel would appreciate if the State Party could provide reassurances regarding the continuing medium-and long-term funding of fundamental, independent, scientifically motivated and managed research programmes.” ICOMOS Evaluation Unit letter to UNESCO, 22 Dec 2017; <https://whc.unesco.org/document/165629>
71. Chan Thomas, The Adam and Eve Story. Bengal Tiger Press; 1963; p. 45; https://nobulart.com/media/The_Adam_And_Eve_Story-Chan_Thomas.pdf
72. “A true polar wandering (TPW) event evidently changed the location of the pole around 11k–9k BP.”; UtahGeology website; extracted 12 Jul 2024; <https://utahgeology.com/bin/iceage/index.html>
73. YouTube: Mysterious 11,000-Year-Old Statues: Were the People of Gobekli Tepe Starving to Death?; <https://www.youtube.com/watch?v=aoGg3VPdVLA>
74. Genesis 8:4–11: 40 days after the first mountain peaks reappeared Noah releases a dove which returns with nothing, then 7 days later he releases it again and it returns with an olive leaf in its beak.
75. Gardening Know How. Propagating Olive Trees: How To Grow An Olive Tree From A Pit. Available at: <https://www.gardeningknowhow.com/edible/fruits/olive/propagating-olive-pits.htm>. Accessed May 15, 2024.
76. “[The Gods An and Enlil gave Zi-ud-sura and his wife eternal life and] settled Zi-ud-sura the king in an overseas country, in the land Dilmun, where the sun rises.”; ETCSL: The Sumerian Great Flood Story: Segment E; <https://www.mesopotamiangods.com/the-sumerian-great-flood-the-flood-story-translation/>
77. Academy of Ancient Texts: “The Epic of Gilgamesh, Tablets IX, X, XI”; <http://www.ancienttexts.org/library/mesopotamian/gilgamesh/tab10.htm>
78. Academy of Ancient Texts: “The Epic of Gilgamesh, Tablets IX, X, XI”; <http://www.ancienttexts.org/library/mesopotamian/gilgamesh/tab11.htm>
79. Wikipedia: Library of Ashurbanipal; https://en.wikipedia.org/wiki/Library_of_Ashurbanipal
80. The challenges faced by long vessels in rough seas, including hogging and sagging stresses, are well-documented in naval architecture. These phenomena are extensively covered in sources such as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and Marine Engineers’ Principles of Naval Architecture.

Additionally, the propensity for long, narrow vessels to roll in beam seas is a recognized issue in ship design and stability. ~ Society of Naval Architects and Marine Engineers. Principles of Naval Architecture. Various editions. This comprehensive reference cover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ship design, including the structural stresses of hogging and sagging, and the stability challenges faced by vessels in various sea conditions.

81. Dr. Irving Finkle; “The Ark Before Noah: A Great Adventure”; extracted 3 Jun 2024;
https://www.youtube.com/watch?v=s_fkpZSnz2I

82. The Complete Book of Enoch: Chapter 5 – Book of the Words of Righteousness, Verse 5:
“Your petition [to the high council for forgiveness] will not be granted unto you. And from henceforth you shall not ascend [back] into heaven unto all eternity, and in bonds of the earth the decree has gone forth to bind you for all the days of the world.”; <https://ia801001.us.archive.org/19/items/TheCompleteBookOfEnochStandardEnglishVersionJayWinter/The%20Complete%20Book%20of%20Enoch%2C%20Standard%20English%20Version%20-%20Jay%20Winter.pdf>

83. Two seals discovered in the (c. 2500–1750 BC) from the DK area of Mohenjo Daro and one graffiti have representations of sea-going ships. There are two birds, forward and aft which seem to be dishakak used for finding direction. “It was common to carry such birds aboard, because their infallible flight towards the land when released helped the mariners in locating the direction of the land.” The biblical Noah kept a raven and a dove in his ark and let them out at intervals to find out dry land. ~Mathew, K. S. (2018). Shipbuilding, Navigation and the Portuguese in Pre-modern India. Routledge. p. 32. ISBN 978-1-351-58833-1.